

홈플러스 임원 4명
한해 연봉이 70억
직원 평균의 80배

이승한 회장 등 홈플러스 등기원들이 일반 직원들보다 80배가 넘는 연봉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홈플러스 직원들은 경쟁업체들이 받는 연봉보다 적고, 심지어 전국 근로자 평균 연봉에 비해 서도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밝혀져 임원과 직원과의 연봉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이승한 회장 등 홈플러스 등기원 4명이 받아 간 연봉은 총 69억 9800만원이다. 1인당 평균 17억 5000만원이다. 대형할인마트 1위 업체인 이마트(신세계 포함)가 평균 13억원, 롯데마트가 12억원인 것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치다.

임원들이 업계 최고 대우를 받는 것과 달리 홈플러스 직원들의 1인당 평균 연봉은 2200만원이다. 평균

임원 업계최고, 직원은 최저
이승한 회장 20억원 웃돌아
직원평균 2200만원의 100배

근속기간이 4년인 남자 직원의 연봉은 2900만원이고, 여직원은 1600만원이다. 직원들이 받는 급여는 대형할인마트 1위 업체인 이마트(3300만원)에 비해 1000만원 이상 적고, 3위인 롯데마트(2700만원)에 도미치지 못한다.

또한 2009년 국내 근로자평균 연봉은 2530만원과도 300만원 이상 차이가 있다. 최고 경영자인 이승한 회장의 연봉이 20억원 이상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를 감안하면 직원들과 100배 가량 차이가 나는 셈이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외국계 회사인 홈플러스의 임원 연봉이 업계 최고 수준인 것은 그렇다치더라도 직원 급여가 이렇게 적은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다”며 “정부가 대기업 임원 고액 연봉에 대해 문제를 걸고 나서는 마당에 이승한 회장이 임원 배불리기에 혈안이 돼 있다는 비난을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임원 연봉 중 영국 테스코에서 파견된 임원이 포함돼 있어 프리미엄이 많이 있다”고 해명했다. 윤철규 기자 yoonck@

서울 무상급식 주민투표…11시 현재 투표율 11.5%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일인 24일 오전 종로구 혜화동 자치회관에 마련된 제2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오전 11시 현재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투표율은 11.5%인 것으로 점정 집계됐다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밝혔다.

▶기사 4면 노진환 기자 myfixer@

현대車 임단협 잠정합의

3년 연속 無파업… 타임오프제 도입키로

현대자동차 노사는 3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합의했다. 이 잠정합의안이 26일 실시될 노조 찬반투표에서 가결되면 노사는 3년 연속으로 무파업 임단협 타결을 기록하게 된다.

▶관련기사 3면

현대차 노사는 지난 23일 오전 11시 울산공장 본관 회의실에서 김억조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과 이경훈 노조위원장 등 노사교섭대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1차 임단협 교섭을 시작, 마라톤협상 끝에 24일 새벽 잠정합의에 성공했다. 교섭을 시작한 지 78일 만이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호봉승급분을 포함해 기본급 9만3000원 인상 △성과 및 격려금 300%+700만원 지급 △회사 주식 35주 지급 △사회공헌기금 40억원 조성 등이다.

최대 쟁점이던 타임오프 문제는 지난해 개정된 노조법을 준수키로 노사 양측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유급 전임자(근로시간 면제자) 수를 기준 237명에서 26명으로 대폭 줄인다 는 데 노사 양측이 뜻을 모았다. 이로써 현대차 노조의 전임자는 유급 전임자 26명과 무급 전임자 85명을

포함해 111명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이는 타임오프 시행 이전과 비교해 절반 이상 줄어든 규모다.

회사에서는 노조활동에 전입하는 유급 대상자 26명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무급 대상자 85명은 노동조합이 조합비 등 자체적인 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현대차 노사는 개정법안 준수와 사회공헌 등을 합의안에 포함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성숙된 교섭문화를 선보이며 ‘3년 연속 무분규’ 타결 기록을 이어가게 됐다. 이번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26일 실시될 예정이다.

현대차 사측은 “올해 단체교섭이 타임오프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노사가 합심해 개정 노조법을 따르기로 합의함으로써 타임오프가 완전히 정착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준형 기자 junior@

최신원 회장 골프장 투자 계열사 돈 빌려 3배 차익

개인회사 앤츠에 155억…2년새 400억 올라

SKC 최신원 회장이 골프장 부지로 40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

신원 회장은 개인회사를 통한 부지 매입 자금 마련을 위해 SK텔레콤 돈을 이용하는 등 개인자산 증식을 위한 ‘터널링’(땅굴파기)에 계열사를 동원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터널링은 계열사간 내부거래로 지

배주주의 이익을 높여주는 행위를 일컫는 용어다.

24일 금융감독원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최신원 SKC 회장의 개인회사 앤츠개발이 충북 음성군 감곡면 문촌리 일대에 대규모 임야 2필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임야는 180만평(55만평) 규

모로 현재 골프장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충청북도는 최근 앤츠개발 소유의 임야에 대해 군관리계획(체육시설)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앤츠개발 소유의 임야의 시세가 전정부지로 뛴 것으로 확인됐다.

감곡면 문촌리 일대 임야는 현재 3.3㎡(1평)당 5만~6만원선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지만 앤츠개발 소유부지는 10만원을 호가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지난 2007년 30억원

을 털어 앤츠개발을 설립했다. 앤츠

개발은 현재 최대주주가 지분 90%

이상 가진 최 회장으로 사실상 개인

회사다. 문촌리 부지 시세차익이 고

스란히 최 회장의 뒷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현유섭 기자 hyson0214@

▶2면에 계속

계획부지에 속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평가액이 5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앤츠개발은 지난 2009년 문촌리 임야 2필지를 매입했다. 매입비용은 3.3㎡당 2만5000원으로 137억원 수준이다.

앤츠개발이 부지 매입 2년새 무

려 매입 가격의 3배가 넘는 400억원 대의 시세차익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

최 회장은 지난 2007년 30억원

을 털어 앤츠개발을 설립했다. 앤츠

개발은 현재 최대주주가 지분 90%

이상 가진 최 회장으로 사실상 개인

회사다. 문촌리 부지 시세차익이 고

스란히 최 회장의 뒷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현유섭 기자 hyson0214@

▶2면에 계속

무디스, 日 신용등급 강등

Aa2→Aa3 한 단계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을 9년 3개월만에 하향했다.

▶관련기사 2면 무디스는 24일(현지시간) 일본의 신용등급을 기존 ‘Aa2’에서 ‘Aa3’로 강등했다. 이는 무디스의 신용등급 21단계 중 세 번째다.

동일본 대지진 발생 후 일본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디스는 막대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문제로 일본의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특히 “5년 동안의 잔금이 총리 교체를 장기적으로 경제와 재정 건전화에 방해가 됐다”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또 “동일본 대지진이 2009년 세계적 경기 침체로 타격을 입은 일본의 경제 회복을 더디게 해 달리 평가를 악화시켰다”고도 했다.

경제성장 전망의 취약성이 재정적자 감축과 사회보장 및 세제 개혁

을 한층 가로막고 있다는 점도 강등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제시했다.

국내 투자기들이 자국에 대한 충

성도가 높아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

해 세계 최저 수준의 금리로 자금 조달이 수월하다는 것이 이유다.

앞서 무디스는 지난 2월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하고 5월 말에는 하향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6월 공개한 보고서에서는 간 나

▶관련기사 2면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1-04693호(2011.08.16~2011.09.03)

공감365

GDP 200% 육박…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정치권 힘겨루기 잣은 총리 교체도 주요 원인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이 신용평가사가 예고한 대로 강등됐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는 24일(현지시간) 9년 3개월 만에 일본 국가 신용등급을 'Aa2'에서 'Aa3'로 한 단계 하향했다. 무디스는 이전부터 일본의 막대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이를 감당할 만한 리더십 부재를 이유로 신용등급을 낮추겠다고 경고했다. 다른 신용평가사도 마찬가지다. 지난주 일본의 2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R&I는 "일본 국가 신용등급 강등 확률은 50%가 넘는다"며 "9월 내년도 예산안이 공개되는 대로 일본 국가 신용등급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밝혔다. 세계 3위 경제대국으로서의 자존심에 타격은 입었지만 자자자득이다. 일본 경제는 2011 회계 1분기(4~6월)까지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사실상 경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 동일본 대지진의 후유증과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따른 전력난, 여기다 세계적인 경기둔화와 살인적인 수준의 엔화 강세로 당초 기대했던 'V자형' 회복세는 요원해졌다. 이는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올해 일반회계 예산은 92조 4000억엔이지만 세수는 40조 9000억엔에 불과해 재정 부족분을 메우려면 44조 3000억엔의 국채를 새로 발행해야 한다.

대지진 피해를 수습하기 위한 16조~25조엔까지 감안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에 육박하는 재정적자만 키울 뿐이다. 일본 경제의

무디스 역시 이번 신용등급 강등 이유에 '잦은 총리 교체'를 포함시켰다. 일본의 경우, 정권 교체 때마다 일본의 정책 운영능력이 약화해 재정건전화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신용등급 강등이 차라리 잘됐다는 분위기다. SMBC 닉코증권의 노지 마코토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장기적으로 일본의 재정 운영에 관한 경종"이라며 "민주당 대표선거를 치르기 전, 적절한 시기에 발표됐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이번 신용등급 강등이 장기적인 경제·재정운영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오히려 채권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단기적으로는 오는 26일 미국 외 이오밍 주 째슨홀에서 열리는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이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α 수익을 창출하라! 자산을 이동하라!

시중금리+α 수익을 추구하는 자산관리 핵심계좌 삼성 POP 골든에그 어카운트

아무리 높은 금리도 인플레이션 앞에선 도리가 없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자산을 키우는 핵심도 예전과 달라야 합니다.
지금, 금융공식을 깨는 새로운 솔루션, 골든에그 어카운트에 주목하십시오

「시중금리+α」 수익을 추구하는 '플랜 A'

약정형(예시)

- 물가연동 국고채 : 연수익률 약 6.02% (세전, 개인은행 환산)
- 서울도시철도 채권 : 연수익률 5.05% (세전, 개인은행 환산)

*장기채권의 종도마각 전략을 병행합니다

수익추구형

금융공학을 활용하여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 및
원금보장형 ELS, 장기 채권과의 조합을 통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시중금리+α' 수익을 추구합니다

※ 당시는 위험성, 수익성, 수수료, 해지방법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는 반드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투자결정은 내리시기 바랍니다. ※ 채권은 발행사 사정에 의해 원금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종도매 매 시 시장금리 등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황에 따라 펀드금리와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확인하신 후 매입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당시는 본 채권에 대해 종도환매 및 원리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채권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아 유동성이 제한됩니다. ※ 분배형 상품의 경우 개별상품 수의 발생 시, 또는 발생한 수익금이 분배금보다 적을 시, 월지급이 중단 되거나 투자원금에서 분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채권 예시는 8/4기준, 물가150~2106 (KR1030037160) [예상상가상률 3.5%, 예상금리 1.0%, 만기 2021.06.01, 서울도시철도 11-07 [매매금리 4.17%, 만기 2018.07.30] 기정 예시된 수익률은 본 서비스 기입 시 체권증명, 수익률, 기입일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삼성POP골든에그카운트를 통하여 기업한 개별상품의 투자성과에 따라 원금손실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기입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헌법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create with you
삼성증권 SAMSUNG

종합

■ 日 신용등급 강등… 경제대국 자존심 '상처'

“막대한 재정적자… 리더십도 없다”

GDP 200% 육박…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정치권 힘겨루기 잣은 총리 교체도 주요 원인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이 신용평가사가 예고한 대로 강등됐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는 24일(현지시간) 9년 3개월 만에 일본 국가 신용등급을 'Aa2'에서 'Aa3'로 한 단계 하향했다.

무디스는 이전부터 일본의 막대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이를 감당할 만한 리더십 부재를 이유로 신용등급을 낮추겠다고 경고했다. 다른 신용평가사도 마찬가지다. 지난주 일본의 2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R&I는 "일본 국가 신용등급 강등 확률은 50%가 넘는다"며 "9월 내년도 예산안이 공개되는 대로 일본 국가 신용등급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밝혔다.

세계 3위 경제대국으로서의 자존심에 타격은 입었지만 자자자득이다.

이다. 일본 경제는 2011 회계 1분기(4~6월)까지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사실상 경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

동일본 대지진의 후유증과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따른 전력난, 여기다 세계적인 경기둔화와 살인적인 수준의 엔화 강세로 당초 기대했던 'V자형' 회복세는 요원해졌다.

이는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올해 일반회계 예산은 92조 4000억엔이지만 세수는 40조 9000억엔에 불과해 재정 부족분을 메우려면 44조 3000억엔의 국채를 새로 발행해야 한다.

대지진 피해를 수습하기 위한 16

조~25조엔까지 감안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에 육박하는 재정적자만 키울 뿐이다. 일본 경제의

주요 신평사별 일본 국가 신용등급

무디스 역시 이번 신용등급 강등 이유에 '잦은 총리 교체'를 포함시켰다. 일본의 경우, 정권 교체 때마다 일본의 정책 운영능력이 약화해 재정건전화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신용등급 강등이 차라리 잘됐다는 분위기다.

SMBC 닉코증권의 노지 마코토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장기적으로 일본의 재정 운영에 관한 경종"이라며 "민주당 대표선거를 치르기 전, 적절한 시기에 발표됐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이번 신용등급 강등이 장기적인 경제·재정운영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오히려 채권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단기적으로는 오는 26일 미국 외 이오밍 주 째슨홀에서 열리는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이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일감 몰아주기에 증여세·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내년 세제개편 '기업 옥죄기'로?

재계 "경제행위 제재에 조세 동원" 반발

정부가 그 동안 논란이 돼 온 일감몰아주기 기업들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항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업들의 탈법적 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 수혜기업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윤곽을 잡았다"고 말했다. 즉, 과세방식에 대한 논란이 됐던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소득세나 법인세 대신 영업 이익에 증여세를 물리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다.

과세 대상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모든 기업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과세 시기에 대해서는 조율중에 있으며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부의 이번 방침에 재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과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조세를 동원한다는 것은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 특히 재계 일각에서는 일감몰아주기 기업의 경영권 간섭이라는 주장이 팽배해 있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재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재계 한 관계자는 "영업이익에 증여세를 물리는 방식은 정부가 기업 경영 방식을 간섭하려는 의도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도입됐던 조세특례제도를 재정비하는 한편, 올해 연말까지 한시 적용하기로 한 41개 비과세·감면 제도 역시 정비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과 내수활성화 촉진을 위한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를 7%로 확대하고 법인세 소득세 등 추가 감세하기로 했다. 재정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도 폐지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정기회계에 제출할 올해 세법개정안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며 "일감몰아주기 과세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성일 기자 hsi@

기자수첩

안 철우
산업부
acw@

나다)이 참으로 어려운 경지라는 것을 일희이 넘어서야 알았다"고 소회를 밝힌 그가 왜 무리수를 둔 것일까.

최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로 긴밀한 정치적 인연을 맺어왔다. 하지만 지난 3월 연임 문제를 놓고 진행된 인사 청문회

최시중 위원장은 뭐하나

악에만 몰입했다며 강한 질타를 하고 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아이폰 혁명이 일어나는 급박한 상황에서 방통위의 뒷북정책으로 인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력 약화를 초래했다는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또 매년 되풀이 되는 통신비 인하 이슈와 관련, 키를 쥐고 있는 최 위원장의 오락가락하는 발언은 시장의 혼란 만 더워 부추겼다.

이번 주과수 경매에 대한 그의 발언은 "걱정스런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였다. 부작용이 속출하자 뒤늦게 실수를 자인하는 모양새다.

방송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 자리에 오른 후 "이순(李順·귀가 부드러워져 남의 말을 새겨 듣

에서도 언론 장악을 위해 보수 신문에 종편을 몰아주는 특혜로 공정성과 공공성을 잃어버렸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방송통신정책의 수장역할을 해야 할 최 위원장에 대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계속되고 있다.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는 바람에 전 공석회처럼 변화의 속도가 빠른 IT시장을 주도하기에는 여부족이라는 얘기다. 애플,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IT공룡들의 선공에 우리 기업들의 위치가 위태롭다. 이제는 특정 세력의 간섭과 압력, 정치적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방송통신산업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공평무사하고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타슈켄트 영빈관에서 열린 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에서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우즈벡 자원개발 MOU 체결

가스전 개발·화학플랜트 건설 4조5000억 규모

우리나라가 우즈베키스탄과 4조 5000억원 규모의 수르길 가스전 개발과 가스화학플랜트 EPC(설계·조달·건설)를 수주하는 내용의 협정을 맺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 수르길 프로젝트 계약을 비롯, 한시적 근로협정, 산업·에너지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등 협정 서명식에 참석했다.

이번 수르길 프로젝트는 아랍해 인근에 1300억㎥의 매장량(LPG 생산 9600만t)이 확인된 가스전 개발·생산과 가스화학플랜트를 건설·운영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6년 이후 5년에 걸친 협상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사업의 지분은 우리측 컨소시엄 UZKOR을 구성하고 있는 협동석유화학(22.5%), 한국가스공사(22.5%), STX에너지(5%) 등이 절반을 차지했다. 나머지 50%는 우즈베키스탄 국영가스회사(UNG)가 소유했다. 또 플랜트 건설에는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자금조달 방안이 확정되는 10~11월경에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윤필호 기자 beetlebum@

‘치킨게임’ 된 주파수 경매 (1.8GHz) 당장 원점서 재검토하라

“(주파수 경매제를) 걱정스럽게 주시하고 있다.”(최시중 방통위원장), “이번에는 힘들겠지만 필요하다면 차후에 경매방식 개선을 검토해보겠지.”(오남석 방통위 전파기획관)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을 위해 첫 도입된 경매제가 과열경쟁으로 차단자 방통위가 경매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며 갑자기 꼬리를 내렸다. 시장경쟁을 통한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며 경매제의 당위성을 주장했던 원래의 당찬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출혈경쟁으로 인해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를 넘어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되자 “경매제에는 아무런 문제 없다”고 장담했던 방통위가 돌연 태도를 바꾼 것이다.

지난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의 원들은 주파수 경매가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방통위 “문제없다”더니 부작용 속출 누가 따로 통신료 인상…소비자만 ‘봉’

당초 사업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적정가격에 주파수 자원을 끌고 루나눠가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던 방통위도 두 사업자간 경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자 담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경매자가 1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주파수 경매를 걱정스런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면서 주파수 경매제의 실패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수두부서에서도 주파수 경매제에 개선이 필요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며 입장문을 선회했다.

하지만 주파수 경매가 상당 진행된 상황에서 전면 재검토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미 한계를 넘어서 1.8GHz 대역 경매의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양사가 배수진을 치고 입찰경쟁에 서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으나 주파수 가격이 8000억원을 넘어설 경우 사설상 채산성이 맞지 않아 포기하는 사업자가 조만간 나올 것이라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승자는 주파수를 확보하겠지만 사상 최고의 비용을 치러야 한다.

치킨게임이나 다를 바 없는 이번 주파수 경매는 예고된 참사였다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상한가를 제한하지 않은 상황에서 더 높은 가격을 써 내는 입찰자가 종국에 승리하는 ‘동시오름식입찰’ 특성상

주파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또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으로의 광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이 1.8GHz 대역 입찰에 몰릴 것이라는 것 또한 예측가

능한 부분이었다. 함께 매물로 나온 800MHz 대역폭도 10MHz로 적은 데다 LTE용으로 활용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다는 게 공통된 분석이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체계적인 장기 주파수 할당 계획을 내놓기에 앞서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놓고 무한 배팅을 부추긴 책임도 면하기 어려울 것을 보인다.

방통위는 연내 이동통신3사가 보유한 주파수 자원폭 보다 2배 이상 많은 최대 668MHz폭의 신규 주파수를 발굴하는 ‘모바일광캐토플랜’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규 주파수의 대역과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어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중장기 주파수 활용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미래희망연대 김동원 위원은 “주파수 경매 과열경쟁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총괄적이고 종합적인 주파수 계획이 제시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박세림 기자 serimpark@

車업계 대립 끝·상생 시작… 새 노사문화 열어

■ 현대車 임단협 ‘3년 연속 무분규 합의’ 의미

현대차 노사가 24일 새벽 전격 합의점을 이끌어낸 올해 임단협 합의안은 현대차는 물론 산업계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는 현대차 노조가 출범한 지 24년 만에 처음 이뤄진 ‘3년 연속 무분규 합의’라는 상징적인 의미는 물론, 과거 대립적 노사관계를 불식시키고 상생이라는 새로운 노사문화의 패러다임을 확립시켰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 8일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2개월여의 긴장된 협의기를 이어왔다. 이미 올해 초부터 양측이 갖기지 쟁점 현안에 대해 팽팽한 의견대립을 내비치면서 올해 임단협은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난항을 예고하기도 했다.

올 초 윤여철 현대차 부회장은 공정위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임단협은) 여전히 현안들이 산재해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9월 임기가 끝나는 이경훈 현대차 노조위원장은 비롯한 집행부 역시 “회사가 사상 최대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그리고 지난 2년여 동안 노사의 입장은 충분히 수용했기 때문에 올해 민감은 물려서 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본교섭이 시작되면서 투쟁만이 협상의 수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노사 양측이 함께 인식하게 됐다. 현대차 노사 안팎에서는 이러한 공통된 자각이 ‘3년 연속 무분규 합의’로 된 원동력이 되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과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관행에서 벗어나 합리적 교섭문화를 새롭게 창출했다는 점도 주목되고 있다.

사측은 노조가 실질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제시안을 1차부터 파격적으로 제시했다. 밀고 당기는 소모적인 협상방식에서 벗어나 효율적 교섭관행을 만들겠다는 노측의 의지도 뚜렷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쟁점현안이었던 ‘타임오프’가 정착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현대차와 자동차업계는 물론 산업계 전반에 적잖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 노사는 이번 임단협을 통해 범위 정한 유급 전임자 26명에 대해서만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는 같은 현안을 두고 대립중이거나 향후 임단협을 예고하고 있는 재계전반에 하나의 선례가 될 전망이다.

나아가 지난해 사회공헌 기금 40억 원 출연한 데 이어 올해도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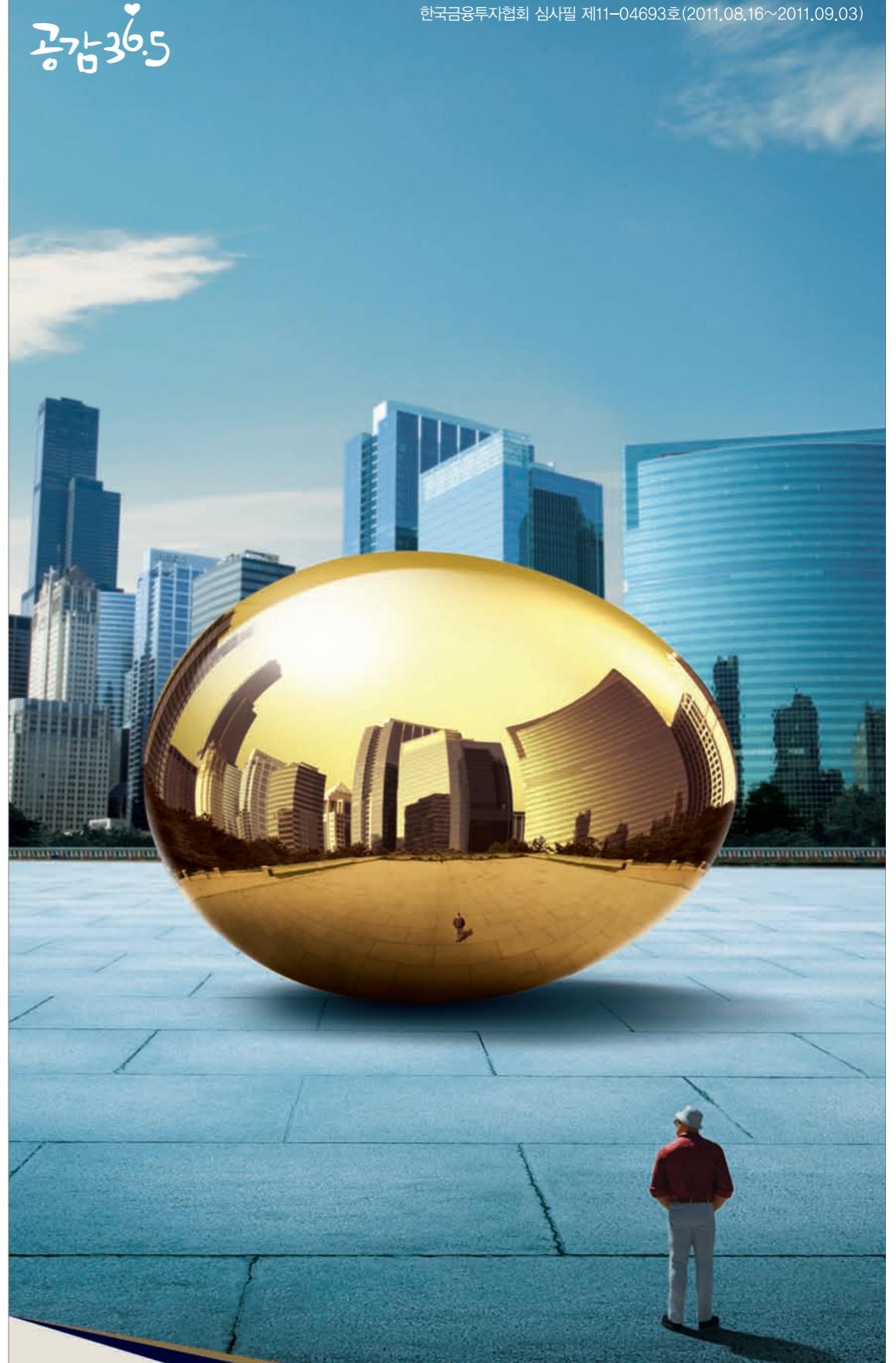
24일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을 잠정 합의한 후 김억조 현대차 사장(오른쪽)과 이경훈 현대차 지부장이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금액을 출연, 불우한 이웃의 어려움을 나누는 데에도 노사가 함께 나선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과거의 폭력적이고 과격한 ‘강성노조’의 편견을 불식시키는데 일조한 대목이다.

이렇듯 대표적 강성노조로 알려진 자동차 업계는 최근 들어 이전과 달라진 양상을 보이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잠정안 마련은 직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함께 회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사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생산성 향상 및 품질향상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노사가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가장 먼저 임단협을 마치고 파업 없이 생산에 매진하고 있다. 김준형 기자 junior@



현금수익을 창출하라! 자산을 이동하라!

매월 현금수익을 추구하는 자산관리 핵심계좌 삼성 POP 골든에그 어카운트

부동산 가치,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꾸준한 현금 흐름으로 자산을 지키고 키우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지금, 금융공식을 깨는 새로운 솔루션, 골든에그 어카운트로 옮기십시오

「月현금수익」을 추구하는 '플랜 B'

약정형(예시)

- 국고채 20년 만기 : 月 30만원 (세후, 1억 투자시)
- 골든에그(금융채 포트폴리오, 만기 7년 원금수령형) : 月 34만원 (세후, 1억 투자시)
- ※ 장기자본의 종도매각 전략을 병행합니다

고수익형

- 매월 최초 원금의 1%를 지급하는 골든랩 월 1% 플랜
- 펀드, 해외채권, 월지급식 ELS를 활용하여 고수익을 추구하는 다양한 「月현금수익」을 추구합니다

※ 당시는 위험성, 수익성, 수수료, 해지방법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채권은 발행사 사정에 의해 원금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중도매매 시 시장금리 등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황에 따라 판매금리와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확인하신 후 매입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당시는 본 채권에 대해 중도환매 및 원리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채권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아 유동성이 제한됩니다. ※ 분배형 상품의 경우 개별상품 수의未발생 시, 또는 발생한 수익금이 분배금보다 적을 시, 월지급이 중단 되거나 투자금에서 분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가입하시기 전에 투자내용, 활동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일어보시기 바랍니다. ※ 국고채 20년을 예상 8/6/15, 1억 일시 매입, 매입금리 현금리수준 3.98%, 기정 * 삼성POP골든에그는 제권포트폴리오형 중 원금수령형 8/4/15, 만기 7년형, 투자금액 1억, 만기원금 1억 기정 월수령액(세후) 및 재투자 감안하지 않은 세후 투자수익률 기준 예상된 수익률은 본 서비스 기입 시 채권종목 수익률을 기입일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채권 포트폴리오형 만기가 다른 디수의 국채 및 금융채로 구성된 서비스 ※ 만기상환 원리금에 따라 금융소득증합과세에 해당될 수 있고, 세율은 혼동 범위를 수 있습니다. 삼성POP골든에그카운트를 통하여 기관한 개별상품의 투자성과에 따라 원금손실 기능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 삼성POP골든랩 월 1% 플랜 (자문: 케이원, 운용: 삼성증권) 가입시 수수료 신한 1.5%+분기손취 1.0%.

정부 親서민 금융정책 ‘갈팡질팡’

은행대출 문턱 더 높아져 서민 돈줄 끊겨 역마진 불구 고금리 서민상품 출시 압박

금융권을 통한 정부의 친서민 정책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대출시장에서는 서민들이 돈을 구하기 못해 밭을 등등구르는가 하면 예금시장에서는 은행경영에 악영향을 미치면서까지 서민용 고금리상품 출시를 독려하고 있다.

은행 창구에선 은행 요구에 대출을 상환하려는 고객에게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리는 웃지못할 일도 벌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일관성 없는 전시민 정책에 금융소비자만 골탕을 먹고 있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의 대출상환창구를 찾은 A씨는 “한 달 전에 상담할 때는 대출이 된다니 지금은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나”며 하소연을 했다.

금융당국이 대출 중단 행위를 하지 말도록 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은 수익률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특히 계절이 가을로 들어서면서 가계의 ‘금융 수요’가 피크로 치닫고 있는데 정작 대출 문턱만 높아졌다.

반면 금융당국은 은행들에게 서민전용 고금리 수신상품을 출시하겠다고 압박을 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고금리 수신상품 출시 유도는 서민금융 대책이 대출에

구할 곳이 없는 서민들의 주름살만 깊어지고 있다. 결국 상대적으로 거래조건이 험악한 서민들은 2금융권으로 빌길을 옮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은행들은 금융당국이 고객들을 볼모로 서민금융 책임을 떠맡기려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은행들은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혁신론 등 서민상품을 취급하고 있는데 고금리 상품까지 더 해진다면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금융당국이 시장에 전하는 메시지가 약간은 헛기운인 듯하다”며 “경제위기가 증폭되며 은행 건전성을 유지하기 결국은 서민을 위한 것인데 이 같은 내용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듯하다”고 말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패션 거리’ 이젠 옛말 ‘성형의 메카’ 새 명성



新상권 ⑫ 강남구 압구정역

젊음과 부의 상징이었던 서울 압구정동. 1990년대 오렌지족의 활동무대로 ‘패션 1번지’라 불리던 압구정은 최근 몇 년간 상권의 특색화와 다양화에서 청담동 명품거리, 신사동 가로수길 등에 밀려 퇴색해갔다. 그러나 몰락해간 압구정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 압구정 상권은 과거 식음료, 패션 가게 위주에서 벗어나 성형외과와 치과가 대거 몰려 ‘성형촌’으로 부활을 꿈꾸고 있다.

◇‘비싼 임대료’가 압구정 몰락 초래= 부동산 업계에서는 압구정의 몰락을 재촉한 첫 번째 요인으로 높은 임대료를 꼽고 있다. 인근의 부동산 한 관계자는 “메인 도로변 33㎡(10평)짜리 옷가게가 보증금 1억원, 월세 400만원, 권리금 1억원 등에 달하고 있다”며 “임대료가 높아 지면서 자금력에 시달리는 개인사업자들이 밀려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압구정역을 지키는 터줏대감격인 패스쿠찌의 경우 4개층을 사용하는데 월세가 4000여만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권분석 전문업체 상가뉴스레이디 측은 “점주들이 자주 바뀌면 단골손님도 덩달아 사라지는데 이는 상권의 안정성이 결정적으로 흔들리게 하는 요인”이라며 “최근 몇년간 압구정 일대에서 사라지는 점포가 많아 상권 몰락이 초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패션업계에서는 압구정로데오거리의 퇴색에 대해 제품의 취약성을 꼽는다. 이곳 상가의

비싼 임대료 탓에 의류점 떠나며 상권 쇠퇴 편리한 교통 덕 성형외과 집결 ‘부활 날갯지’

웃들은 인근 청담동처럼 명품이 아닌데 그렇다고 보세의류를 저렴하게 팔 수 있는 상권도 아니란 게 업계 층 분석이다. 이 때문에 압구정에 진입한 패션업체의 경우 제품 구성에 있어 많은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보세의류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옆에 명품거리가 있고 또 다른 패션의 거리 가로수길도 급성하고 있다”며 “인근의 상권과 손님들이 대체로 겹쳐 가로수길과 압구정이 성장과 몰락이란 정반대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형외과·치과 등 업종구성 변화로 부활= 몰락해간 압구정 상권이 부활을 꿈꾸고 있다. 업종 구성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다시 한번 상권이 활성화되고 있다. 식음료 및 패션·뷰티 가게가 줄어들고 성형외과와 치과 등이 대거 몰려왔다.

압구정역에서 수년째 패스쿠찌를 운영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최근 몇년간 압구정 일대는 식음료 및 패션가게들이 줄어들고 성형외과가 대거 몰려들어왔다”며 “커피를 찾는 손님들이 절반 이상이 병원 손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했다.

박영준 NICE신용평가정보 E-비즈본부 E-인프라사업실 실장은 “압구정 상권의 경우 강남구 평균 유동인구에 비해 적은 편이다”며 “그러나 병원을 이용하기 위해 찾아오는 목적 고객이 많아 고객의 구매력 수준이 높고, 이에 따라 상권의 활성화 정도는 높다”고 설명했다.

NICE신용평가정보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압구정역에서 을지병원 사거리로 오는 대로를 따라 성형외과 수는 80개 이상이다. 해당 상권에서 특화병원을 찾는 고객도 성형외과 60% 이상, 피부과 16% 이상, 치과 10%, 안과 6% 정도로 성형외과의 비중이 가장 높다.

성형외과가 대거 몰리면서 상가 임대료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 114에 따르면 서울 주요 상권 임대료 가운데 압구정 상권은 평당 월 임대료가 5만68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압구정역 인근의 D공인증개사 관계자는 “2005년 이후 명동과 청담동 일대 성형외과들도 교통이 편리한 압구정역 쪽으로 옮겨오고 있다”며 “성형외과가 많다 보니 압구정역-성형촌 공식이 생기는 등 상권부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임대료는 덩달아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선애 기자 lsaa@



성형외과 외에 잘 나가는 업종

치과·사진관 월 매출 3000만~4000만원대

치과, 성형외과와 시너지 효과
사진관도 예식·미용업종 ‘후광’

압구정역 상권은 다른 대형 상권에 비해 유동인구가 많지는 않지만, 이용 고객들의 소득·소비 수준이 높아 구매력 수준이 높다.

고객들의 유형에 민감한 특징과 높은 구매력 수준에 맞춰 대부분의 업종에서 건당 매출액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병원 업종의 경우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안과 등 특화병원의 수가 많고 수의성도 좋으며, 업력이 길어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압구정에서 가장 매출이 좋고 안정적인 업종으로는 성형외과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치과가 거론되고 있다. 치과는 압구정 일대에 80여개가 밀집되어 있다. 치과의 월 평균 매출은 4200만원 이상으로 집계되며 1월부터 5월까지 비슷한 매출평균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강남구 안에서도 압구정 평균 매출이 20% 이

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건당 매출액이 45만원 이상인 고객이 22.4%로 높은 비중을 보이기 때문이다.

박영준 NICE신용평가정보 E-비즈본부 E-인프라사업실 실장은 “같은 상권 내에 성형외과가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치과는 사업안전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예식, 미용 관련 서비스업종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니 만큼 사진관도 안정성이 높은 업종으로 부상하고 있다. 압구정역 일대 사진관은 90여개 이상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실장은 “예식, 미용 관련 서비스업종이 집중되어 있어 사진관을 찾는 고객들이 많다”며 “사진관 월 평균 매출은 3200만원 수준으로 집계되며 웨딩 시즌이 시작되는 3월부터 5월까지 매출이 12~2월의 매출 평균보다 35% 이상 높다”고 설명했다. 또 사진관 업종의 경쟁 점포 수가 많은 만큼 차별화된 서비스가 요구되며, 점포 디자인, 이벤트 등은 물론 구매와 직결되는 가격 요인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lsaa@

다달이
내 통장으로
용돈이
들어온다면?

Smart 월지급식펀드 서비스

전국 133개 지점 서비스 중

• 다양한 펀드군에 투자할 수 있으며, 펀드투자를 이용한 정기적인 현금흐름창출이 가능합니다
• 인출방법도 고객에 맞춰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 시장상황과 성향에 맞춘 펀드선택의 다양성과 자유로운 펀드대체가 가능합니다

진행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며 실제배당형 상품으로서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운용 결과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투자경험을 하기 전에 반드시 투자설명서 및 위험을 수령하여 상품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투자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품은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한 것은 아닐 수 있으므로 세부목적, 투자기간, 투자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푸르덴셜증권은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는 투자에 있어서 반드시 그려진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화금융네트워크 | 한화증권 | 푸르덴셜투자증권

리비아 시르테 일전만 남았다

(카다피 고향)

반군, 카다피 트리폴리 요새 장악
행방 묘연 카다피 “결사항전” 발표

이제 카다피만 잡으면 된다.

리비아 반군은 23일(현지시간) 카다피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인 끝에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원수의 핵심 거점인 바브 알-아지자야 요새를 장악했다.

수도 트리폴리의 요새에서 폐허 한 카다피군은 카다피의 고향인 시르테로 퇴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압델 하킴 벨하지 반군 사령관은 “카다피와 그의 친구들은 끼여들처럼 도주했다”면서 “우리는 트리폴리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선언했다고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 보도했다.

반군 측의 이브라힘 다비시 유엔 주재 대사는 “반군은 아지자야 요새를 완전히 장악했다”면서 “리비아는 72시간 내에 해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지자야 요새에 없는 것으로 확인된 카다피는 24일 트리폴리의 지역 라디오 방송에서 “아지자야 요새에서 철수한 것은 전술적 이동일 뿐”이라고 말했다고 알-오루바 TV가 전했다.

그는 “나토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거나 순교할 것”이라고 결사 행전

의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카다피 정부 대변인도 알-오루바 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는 수개 월 또는 수년 동안이라도 북대서양 조약기구(나토)군과 반군의 공격에 저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세계는 42년간의 권좌에서 쫓겨난 카다피의 행방에 주목하고 있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카다피

일가가 아지자야 요새 지하에 숨어 있거나 지하의 대규모 비밀 터널을 통해 밖으로 빠져 나갔을 것으로 예상했다.

카다피는 자신의 고향인 시르테에 머물거나 이동할 가능성에 커졌다.

시르테는 여전히 카다피군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반전의 계기를 도모하기에 최적의 장소로 카다피의 은신처로 줄곧 거론됐다.

이제 남은 것은 카다피의 고향인 시르테에서의 일전이다.

반군은 시르테 전투에서도 또 한 번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

다바시 대사는 “반군은 48시간 안에 시르테를 장악할 것”이라면서 “리비아 전 지역도 3일 내에 반군 수중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르테는 친 카다피 성향이 강한 지역인데도 스커드 미사일도 다양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반군이 장악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올해 초 동결한 리비아 자산을 반군의 향후 국가 재건 활동과 인도주의적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은선 기자 stop1020@



리비아 반군이 23일(현지시간)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의 상징인 트리폴리 중심가 녹색광장에서 카다피의 최후거점인 바브 알-트리폴리/신화연합뉴스



테러에 놀란 가슴 지진에 ‘철령’ 워싱턴을 포함한 미국 동부 지역에서 규모 5.9의 지진이 발생한 23일(현지시간) 뉴욕 시민들이 건물 밖으로 뛰쳐 나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뉴욕/AP연합뉴스

美 버지니아주 규모 5.9 지진…동부 지진 공포

워싱턴·뉴욕 시민 긴급대피 소동

원전 가동 중단…JFK공항 등 한때 소개령

미국 수도인 워싱턴 D.C.도 지진의 공포에서 안전하지 못했다.

버지니아주에서 23일(현지시간) 오후 1시51분경 규모 5.9의 지진이 발생했다.

미 지질조사국(USGS)은 지진 진앙은 워싱턴 D.C.에서 남서쪽으로 148km 떨어진 버지니아주 미네랄

뉴욕에서도 진동이 감지돼 사무실 안에 있던 직원들이 거리로 뛰쳐 나오는 등 일대 소동이 벌어졌다.

특히 이날 지진은 9·11 테러 10주년을 앞두고 발생해 주민들이 다시 한번 폭탄 테러 공포에 빠졌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여름 휴가를 즐기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진 발생 직후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 윌리엄 데일리 백악관 비서실장, 톰 도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과 전화회의를 갖고 피해상황을 점검한 뒤 상황을 계속 주시하도록 지시했다.

워싱턴 D.C. 시내 중심가의 고층 건물이 흔들리는 장면이 목격됐고 백악관과 국방부, 의회 등 주요 관공서 건물에서는 직원들이 긴급 대피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노스 앤더’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중단했다고 비상발전기가 작동돼 별다른 이상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뉴욕 JFK공항과 뉴어크공항 관제탑도 한때 소개령이 내려졌으며, 9·11 테러로 붕괴된 세계무역센터(WTC) 부지에서 진행 중이던 건설 작업도 일시 중단됐다.

미국 정부는 일부 건물이 손상됐으나 아직 사상자 소식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지진은 지난 1897년 이후 버지니아에서 발생한 지진 중 114년만에 최대 규모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남부 캘리포니아주 지진센터의 토머스 헬먼 조던 소장은 “이번 지진은 동부 연안에서 일어난 지진 중 이례적으로 큰 규모”라면서 “이 지역에서도 지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켰다”고 설명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BOA·골드만삭스…美 대형銀

‘좀비뱅크’로 전락하나

올 들어 주가 대폭락…투자자들 불안

뱅크오브아메리카 주가 추이



악화도 불가피하다.

BoA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바젤III’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오는 2019년까지 자기자본 비율을 9.5%로 끌어 올려야 한다는 사실도 부담이다.

그러나 피해 보상에 합의한 기관투자자들에게 이달초 AIG도

Bo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줄소송 사태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BoA는 지난 2분기에 88억

3000만달러(약 9조5099억원)이

라는 사상 최악의 분기 순손실을

골드만삭스 주가 추이



미국에서 금융위기 당시의 ‘좀비뱅크’ 사태가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최대 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주가가 올 들어 53% 급락하고 골드만삭스는 35% 이상 떨어지는 등 대형은행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CNN머니가 보도했다.

좀비뱅크는 부채가 자본을 잠식하는 등 실질적으로 맹한 상태이

기록했다.

6월에 서브프라임 모기지증권 투자와 관련해 손실을 본 기관투자자들에게 85억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기 때문.

그러나 피해 보상에 합의한 기관투자자들에게 이달초 AIG도

Bo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줄소송 사태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BoA는 지난 2분기에 88억

3000만달러(약 9조5099억원)이

라는 사상 최악의 분기 순손실을

“규제 완화” 오바마 親기업 행보 가속

미 백악관이 23일(현지시간) 기업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수백여개에 각종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백악관은 “규제 완화로 기업들이

향후 5년간 100억달러(약 11조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달 5일 노동절 이후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 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전기업 행보를 과시하려는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미 정부 관계자는 규제 완화를 통해 일부 특정 철도차량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고가의 기술

장비 규정을 없애거나 불필요한 서류 작업을 생략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온라인 서류 전송 작업도 대폭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야당인 공화당은 대선을 의식한 성급한 발표로, 핵심내용도 그동안 기업들이 철회를 주장했던 탄소배출 규제나 소비자 금융, 건강 보험 관련 법안과 관련한 주요 규제가 포함되지 않는 등 불충분하다고 비판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양광모 지음 | 260쪽 | 12,000원

이 시대 리더들의
운명 같은
동행

위대한 만남

Make more personal connections

위대한 인물들은 어떻게 좋은 인맥, 성공적인 대인관계를 만들었을까?
별처럼 매력적 이거나, 별처럼 당신을 감동시킬 생애 한 번뿐인 만남

손정의 인생의 멘토를 찾아라
스티브 잡스 열정으로 사로잡아라
마크 주커버그 6억 명의 친구를 만들다
빌 게이츠 불공평한 인생을 공평하게 만들어 주는 것
마쓰시타 고노스케 길은 잊어도 사람은 잊지 마라

반기문 편지로 마음을 열어라
김제동 계산적인 마음을 버려라
오프라 윈프리 상대의 고통을 가슴으로 끌어안으라
박경림 진심으로 대하라
조영남 삶은 인맥이다

워런 버핏 성공을 도울 귀인을 찾아라
이나모리 가즈오 원리원칙을 세워라
버락 오바마 SNS로 꿈을 이루다
훈다 소이치로 평생을 함께 갈 최고의 파트너를 만들어라
원스턴 처칠과 알렉산더 플레밍 한 번 닿은 인연은 소중히 여겨라



스마트폰에서 <QR코드리더>로
확인하세요.

Tel 02-322-6144/ Fax 02-325-6143/ www.muhan-book.co.kr muhanbook7@naver.com



대선 앞둔 러시아 경제정책 대변혁 예고

■ 미즈호종합연구소 보고서

러시아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국영기업 민영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망한 신흥시장인 러시아 진출을 노리는 기업들에게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 민간 싱크탱크인 미즈호종합연구소(MRI)는 최근 보고서에서, 내년 3월 예정된 대통령 선거와 국제 금융시장의 향배가 러시아 민영화 성공의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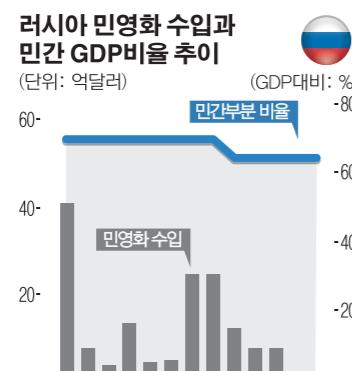
러시아 정부는 지난 3일(현지시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12-2016년까지 민영화 할 20개 대기업 리스트를 발표했

다. 러시아 정부는 5년간 총 6조루블(약 223조원), 매년 평균 1조 2000억 루블의 민영화 수입으로 재정적자를 메운다는 구상이다.

앞서 러시아 정부는 작년 11월로 스네프트(정유), 러시아철도(운수), 스베트뱅크(은행), 아에로프로트(항공), 트랜스페리티(송유관) 등 10개의 민영화 기업 리스트를 발표했다.

러시아 정부는 이 중 OZK(곡물)를 제외한 9사에 대해서는 민영화 후에도 50-75%의 지분을 계속 보유 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는 9사 중 6사의 지분을 2016년 말까지 원칙적으로 모두 처분한다는 내용과 함께



세레메토보공항과 아에로프로트, OAK(항공기 제조) 등 10사의 민영화 계획이 추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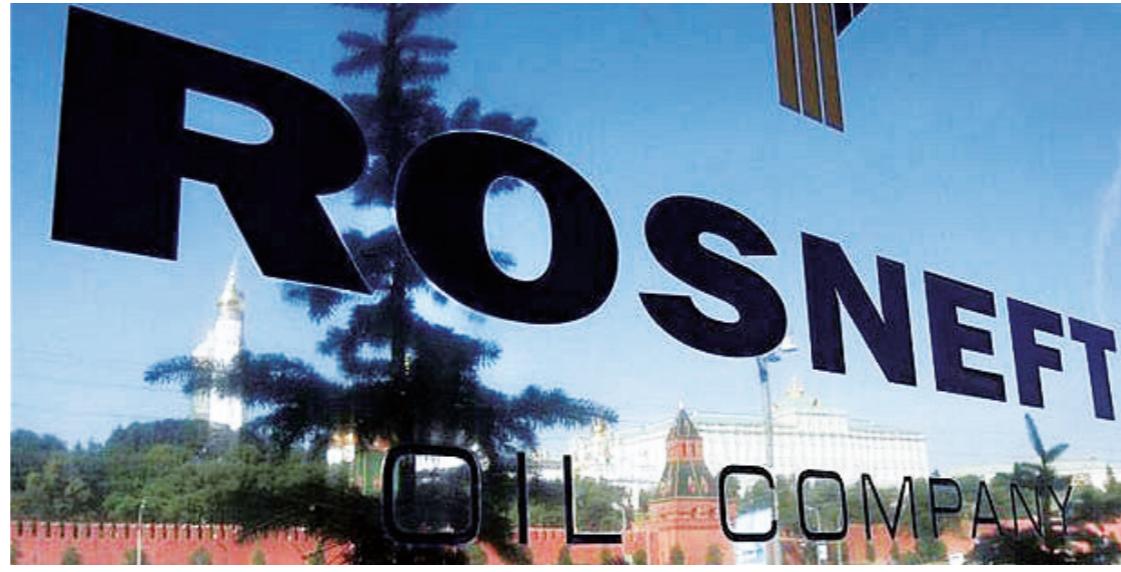
20사의 민영화가 실현되면 이는 러시아 역사상 최대 규모다.

MRI는 사상 초유의 이번 민영화 계획이 러시아 경제정책의 대변혁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2000년대 후반 러시아 정부가 자원·에너지 업체들을 잇따라 국유화하면서 '내셔널 코퍼레이션'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국영기업이 잇따라 설립됐다.

또 정부가 해외 투자 규제를 강화하면서 경제 활동에서 민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히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민영화 기업 리스트에는 2000년대 후반 국유화 의지를 반영했다.



러시아는 로스네프트를 비롯 중장기적으로 20사를 민영화할 방침으로 내년 대선과 금융시장 추이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16년까지 국영기업 20여곳 민영화

매각대금 223조원으로 재정적자 감축

메드베데프 주도…패배땐 수정 가능성

화한 로즈네프트와 로스나노 등이 포함되면서 정부의 변혁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 작년 11월 민영화 계획에서는 향후 민영화 정책의 기본 과제로 민간 주도 하의 이노베이션 추진 방침을 표방하면서 적극적인 민간 활성화 의지를 반영했다.

재 메드베데프 대통령 주도로 이뤄진 것인 만큼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경우 민영화 계획이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MRI는 또 민영화 대상 기업의 규모를 감안했을 때 해외 증권시장에서의 상장이 가장 유력한 방법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세계적으로 증시가 부진을 보일 경우 러시아 정부는 민영화 계획 연기가 불가피 할 것이라고 MRI는 전망했다.

이번에 발표된 민영화 계획은 현 배수경 기자 sue6870@



브라질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글로벌 사모펀드 업계의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다. 사진은 상파울루증시 트레이더들이 바쁘게 주문을 내고 있는 모습.

사모펀드, 이머징마켓으로 이동 중

■ 날리지앳와튼 보고서

中·브라질·인도 등으로

몸집·투자규모도 늘려

이머징마켓이 사모펀드 업계의 주력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 불안에 세계의 부가 중국·인도·남미 등지로 이동하면서 사모펀드 업계 역시 투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경영대학원 와튼스쿨의 '날리지앳와튼(Knowledge@Wharton)'은 최근 보고서에서 "브라질을 비롯한 신흥국들의 경제가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사모펀드 업계도 부활에 시동을 걸었다"면서 "펀드들은 몸집과 함께 투자 규모도 불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브라질 회사 GP인베스트먼트의 옥타비오 로페즈 파트너에 따르면 남미에서는 1990년대 중반 대형 사모펀드가 처음 등장했다.

이후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등에 관심이 높은 사모펀드가 늘어났지만 1999년 브라질 경제위기로 2000년대 초 사모펀드 대부분이 사라졌다.

최근 남미의 경제성장세를 타고 사모펀드들도 급성장하고 있다.

로페즈 파트너는 사모펀드들의 연 매출은 5년 전 1억달러에서 현재 3억~4억달러(약 4314억원)

로 늘었다고 전했다.

중국에서는 2003년까지 사모펀드가 들어설 자리가 거의 없는 상태였다.

국유기업들이 시장을 독차지하면서 민간 금융산업이 발달되

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국 기업들의 증시 상장이 제한됐던 점도 사모펀드 운영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후 8년간 금융시장이 변성하고 부동산과 기술 등 산업에서 자산을 불리는 새로운 기업가들이 생겨났다.

중국이 지난 30년에 걸쳐 해외 투자를 통해 사모펀드 모델을 이해하는 전문가들을 양성한 것도 관련 산업 성장에 도움이 됐다.

뉴욕증시의 나스닥과 다른 국제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중국 기업들도 늘었다.

중국 기업은 자본 뿐만 아니라

기술을 제공하는 알코아, 코카콜라, IBM 등 대기업들로부터 전략적 투자를 받는 것을 선호했다.

이들 기업은 오늘날 혁신적인 기술을 갖추게 됐으며 경쟁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얻기를 바라고 있다.

중국에서 사모펀드는 현재 '페

로나입'의 대전환을 거치고 있다

고 날리지앳와튼은 전했다.

중국 사모펀드들은 미국 달러화와 함께 자국에서 위안화로 표시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날리지앳와튼은 "(이머징마켓

에서) 사모펀드들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기존의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버리고 경

쟁에서 이기기 위한 적극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세계적인 사모펀드인 롤버그 크라비츠 로버츠(KKR)의 프레더릭 골츠 파트너는 "사모펀드들이

이 위기 이후 새로운 투자 환경과 경쟁에 발맞춰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키는 등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집중적이고 상황을 앞서서 주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모펀드의 일반적인 경영에서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경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머징마켓의 부상으로 사모

나폴레옹은 35세에 황제가 되었단다.

나는 35세에 아직도 대리다.

참, 속 쓰리다...

속쓰리에
Yes
겔포스엠



中 온라인 동영상 시장 뜬다

4년내 7억명 이상 콘텐츠 감상 전망

■ 맥킨지 보고서

중국 온라인 동영상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경영컨설팅업체 맥킨지는 최근 보고서에서 4년 안에 중국에서 7억명 이상이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를 이용할 것이라며 글로벌 투자자들은 중국 1위 온라인 동영상업체 유쿠닷컴과 2위업체 투더우 등 중국 온라인 동영상업체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유쿠닷컴 이용자 수는 월 2억명이 넘었고 경쟁사인 투더우 이용자 수도 1억 8000만명에 이른다.

맥킨지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 이용자들은 1주일에 평균 4시간을 인터넷으로 영화와 TV, 스포츠 등 각종 동영상 콘텐츠를 감상한다. 이는 미국에 비해 2배나 높은 수치다.

중국에서는 케이블TV 등 유료 TV 사업자와 IPTV 등 다른 동영상 공급업체들의 발전이 늦어 온라인 업체들이 성장할 여지가 더 있다고 맥킨지는 분석했다.

지난해 동영상 사이트들은 중국 전체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8%를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오는 2013년에는 그 비중이 2배 이상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애플과의 특허전쟁 삼성 “이길 자신있다”

수요 사장단 회의 스마트폰 사업전략 방안

미국·신흥시장 공략
미디어등 4대 허브 강화

삼성그룹이 유럽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애플과의 특허 분쟁과 스마트폰 경쟁에서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를 위해 미국과 신흥 시장에 대한 공략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이인용 삼성 커뮤니케이션 팀장은 24일 수요 사장단 회의 이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삼성이 보유한 통신관련 특허가 많고, 특히 고객 권리보호를 위해 자신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애플은 유럽지역에서 삼성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판매 거치분신정을 했으며, 삼성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상황이다.

이 날 수요 사장단 회의에서는 홍원표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상품전략팀장이 ‘스마트 혁명과 우리의 과제’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향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전략에 대해 소개했다.

삼성전자는 미국과 중동·아프리카, 중남미 등 신흥시장에 대한 공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스마트폰 신규 판매량 비율(휴대폰 전체 판매량 대비)을 살펴보면 한국은 지난해 1분기 16%에서 올해 1분기에 72%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중 북미지역은 31%→49%, 유럽 29%→49%, 아·태시장 16%→25%, 중남미 15%→16%, 중동·아프리카 10%→14%로 늘어났다.

홍원표 팀장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신흥 시장이 비중이 적다”며 “향후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성장여력을 높이기 시장을 적극 공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00달러 이하의 매스 스마트폰을 신흥시장에 중점적으로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은 미국시장에서 애플과의 격차를 줄이면서 글로벌 스마트폰의 리더가 된다는 계획이다. 홍 팀장은 “프리미엄 시장의 지배력과 신흥시장 공략을 강화할 것”이라며 “미국시장에서는 아직 애플 판매량의 80% 수준에 그쳐 격차를 축소하는 것이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스마트폰 공략을 강화하는 것은 스마트폰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것이다.

물량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전체 휴대폰 물량 13억600만대 가운데 3억대(22%)가 스마트폰이었으며, 올해도 15억 500만대 중 27%인 4억2000만대가 스마트폰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액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1880억 달러 가운데 990억달러(54%)에서 올해는 2000억달러 중 1270억달러(64%)가 스마트폰이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태블릿PC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어 조기에 사업을 확대, 지난해보다 5배 성장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최근 잇따르고 있는 특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팀장은 “최근 특허권을 활용해서 경쟁사의 성장을 억제하는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팀장은 아울러 최근 소프트웨어 육성 정책과 관련 “스마트 기기와 관련된 서비스와 콘텐츠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삼성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미디어·뮤직·리더·게임 등 4대 허브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철근·박다은 기자 ckpark@

동부 LED사업 가속화

화우테크놀로지 이어 에피밸리 인수 추진
조명·웨이퍼·칩 등 특화 시너지 효과 기대

동부그룹이 LED(유기발광다이오드) 사업을 가속화한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동부그룹이 LED제조업체 에피밸리를 조건부로 인수 할 것으로 전해졌다.

동부그룹은 경영난으로 회생절차 개시에 들어간 에피밸리를 감자와 부채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인수할 계획이다.

최근 열린 에피밸리 채권단 관계인 집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회생절차 개시안이 62.94%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개시안 통과기준인 3분의 2(66.66%) 찬성에는 못 미쳤지만 팀보권을 가진 은행들은 모두 찬성했기 때문에 법원 권한으로 인가결정이 확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동부그룹은 지난 3월 LED조명업체 화우테크놀로지에 이어 에피밸리까지 인수하면서 LED사업을 특화시키는 링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하이테크 화우테크놀로지로 인수할 당시 업계에서는 동부그룹이 LED사업을 통한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또 다른 LED 패키지·칩업체 인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됐다. 에피밸리는 삼성전기와 더불어 국내 LED시장의 대표적인 칩 메이커였다.

동부그룹은 기존 반도체 사업과 화우테크놀로지의 LED조명사업, LED에피 웨이퍼·칩으로 이어지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에피밸리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으며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에피밸리는 지난 2008년부터 피인수합병을 추진해왔지만 매각가격 차이로 난항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번 M&A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에피밸리는 LED업체 루멘스의 유태경 대표(최대주주)가 지난 1997년 설립한 기업으로 유 대표는 성일텔레콤으로 회사가 매각되는 과정에서 지분을 팔고 나왔다.

이후 에피밸리가 발행한 100억원 규모 BWI(신주인수권부사채)에 유 대표가 24억 원, 루멘스가 26억원, 총 50억원을 투자하면서 지분투자를 통한 우호관계에 지속하면서 실적 호전 기대감이 확산됐다.

하지만 에피밸리는 경영난을 이기지 못했고, 지난 3월 자본잠식률이 74.4%로 거래소로부터 관리종목에 지정됐으며, 4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에피밸리는 지난해 영업손실이 전년 동기대비 285.3% 증가한 139억9812만원, 매출액은 6.1% 늘어난 988억1299만원, 당기 순손실은 94.5% 증가한 492억423만원을 기록했다.

한편 동부하이테크 측은 “M&A와 관련해서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해당 회사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내부적인 검토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히려 박철근 기자 ckpark@

오스람, 삼성·LG상대 추가 소송

오스람이 삼성과 LG를 상대로 LED 특허를 침해했다며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오스람코리아는 24일 오스람과 오스람의 자회사인 오스람 옵토 세미컨덕터가 서울지방법원에 LG 및 삼성을 대상으로 LED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오스람은 양사가 자사의 ‘백색 미 표면

실장형 LED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손해 배상을 청구했고, 허가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사용 금지를 요청했다.

이에 앞서 오스람은 지난 7월 한국무역 위원회에 LG이 노트북을 상대로 TV 세트 및 모니터 디스플레이 백라이트에 사용되는 ‘백색 및 전환 기술’ 등 자사 특허기술 4건을 무단으로 침해했다며 특정 제품에 대한 수출 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박다은 기자 pdaeun777@

이건희 삼성 회장 “여성도 사장돼야” 의미는…

이부진·서현 ‘역할 강화’ 될 듯

〈이회장 큰딸·둘째딸〉

서현씨도 사장… 승진 3세 경영시대 방점 찍어

그룹선 “섬세한 인력 활용 의미” 확대해석 경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여성도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올라야 한다”라는 지난 23일 발언에 내포된 의미에 삼성과 재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향후 삼성의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제일모직 부사장의 역할이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그룹 고위 관계자는 “이 회장은 자서전에도 여성인력에 대한 내용을 담을 만큼 평소 여성인력 육성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며 “더욱이 최근처럼 대외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섬세함이 상대적으로 강한 여성인력을 활용하는 것 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의미일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와 함께 올해 사장단·임원인사에서 여 풍(女風)이 강하게 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삼성그룹은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을 선포한 지난해 6월 열린 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여성인력 육성 강화 발언이 나오면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오른쪽)과 이서현 제일모직 부사장의 경영보폭이 넓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부진·서현 자매가 지난해 6월 열린 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때문이다.

이 회장이 지난해에도 하반기 들어면서 이재용 사장의 승진을 포함한 인사와 관련된 발언을 지속적으로 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임원인사에서 여성인력의 약진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이 회장이 신경영 선포와 함께 뿌린 씨앗(여성대졸공채사원)

이 빠른 턱을 시기(임원 승진)가 된 것”이라며 “앞으로 삼성그룹 내 여성임원의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현재 삼성 임직원 21만명 가운데 여성 인력은 5만6000명으로 26.7%를 차지하고 있지만 임원은 전체 1760명 중 34명(1.9%)에 불과하다.

박철근 기자 ckpark@

뉴스브리핑

전경련, 중견 인력 재취업 박람회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함께 다음달 1~3일 일산킨텍스에서 중견 전문인력 취업 박람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이 행사는 40~50대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돋고 중소기업에게는 고급 인재를 채용할 기회를 마련해 주고자 준비됐다.

박람회에 150개 이상의 우량 중견·중소기업이 참가해 기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400여명의 중견 인력을 현장에서 즉석면접을 통해 채용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박람회 홈페이지(fair.fki-rejob.or.kr)에서 취업하려는 회사에 면접 신청을 하면 된다.



LG, 3D 노트북 ‘엑스노트A530’ 출시

LG전자는 3차원(3D) 영상과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는 3D 노트북 ‘엑스노트 A530’ 시리즈를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제품은 3D 스마트폰의 듀얼 카메라 촬영 기술을 노트북에 적용해 누구나 쉽게 3D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3D 촬영을 위해 기존 노트북의 웹캠을 2개로 늘렸으며 간격을 36mm로 유지해 최적의 3D 촬영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3D 전용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트루 3D PT’를 통해 일반 문서를 3D로 변환할 수 있고 3D TV나 모니터와 연결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수도 있다.

벤츠, 1억9천만원 25.5t 덤프트럭 출시

메르세데스-벤츠 상용차의 국내 법인인 다임러트럭코리아는 최대 출력 410마력의 25.5t 덤프트럭 ‘뉴 악트로스 3841K’를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배기량 11946cc의 6기통 터보 인터쿨러 엔진을 달아 최대 출력이 410마력에 달하며 1080rpm에서도 최대 토크 204kg·m를 구현한다.

또 가속페달을 밟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으로 변속기를 증립으로 전환시키는 에코롤(EcoRoll) 기능을 채택해 연비를 높였다.

출시 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해 1억9750만원으로 메르세데스-벤츠가 판매하는 8X4(바퀴가 8개이고 이 중 4개에 엔진 동력이 전달되는 차종) 덤프트럭 중 가장 낮다.

삼성 “PC 대신 태블릿으로 구글 견제”

신제품에 MS 윈도폰7 OS 탑재 유력… 팀안드로이드 시동

PC사업을 담당하던 삼성전자의 IT솔루션사업부가 독자적인 태블릿 제품을 내놓는 등 태블릿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선사업부와 함께 IT솔루션사업부까지 태블릿 시장에 눈을 돌리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갤럭시 태블릿과 내부 경쟁을 통한 시너지를 내기 위한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IT솔루션사업부는 다음 달 2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국제가전박람회(IFA)에서 새로운 운영체제(OS) 기반의 태블릿을 공개할 예정이다.

새 태블릿에 탑재될 OS는 마이크로 소프트(MS) 윈도폰7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과 MS의 협력 강화는 향후 구글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최지성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도 “삼성은 자체 OS를 가지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MS)도 활용할 수 있다”며 향후 다양한 OS 전략으로 모토로라를 인수한 구글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쳤다.

특히 삼성은 이번 제품은 무선사업부에서 추진 중인 갤럭시탭과 전히 다른 모델로 데스크톱, 노트북 PC 등을 생산하던 IT솔루션사업부가 독자적으로 생산하는 태블릿이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2종의 태블릿이 서로 다른 사업부에서 각자 생산되며 선의 경쟁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셰이이다.

삼성전자가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 부품을 제작하는 계열사와 적극 협력해왔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

습이다.

삼성전자의 이 같은 행보는 PC시장의 정체로 고민에 빠진 IT솔루션사업부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시하고 내부 경쟁도 유도함으로써 아이패드에 밀린 태블릿 시장에서 승부수를 띠우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구글 안드로이드와 애플의 iOS가 각축을 벌이고 있지만 태블릿에서는 아직 아이패드 외에 이렇다 할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이는 곧 멀티 OS 전략을 주구하는 삼성전자가 굳이 갤럭시탭에 집중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IT솔루션사업부가 태블릿 개발에 참여할 경우 오랜 기간 PC사업자들과 구축해온 파트너십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무선사업부와의 경쟁 구도를 탄생시켰다는 분석이다.

소통·열정이 넘치는 한화 新사업 '코트의 사령관'

■ 현장의 캡틴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장 김 평 득 상무

과거 PVC 국내 최초 생산으로 한국 석유화학산업을 이끌었던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이 이제 다른 미래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그룹의 미래 먹을거리인 태양광 사업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해서다. 실제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은 지난해 태양광 셀을 생산 및 판매하면서 그룹 태양광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 곳이기도 하다. 이어 올해는 2차전지 소재인 양극재 상업화를 진행하는 등 그룹의 태양광 사업을 전방에서 이끌고 있다.

하지만 울산공장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태양광 사업 한 가지로만 한정짓기는 어렵다.

과거 국내 최초로 1967년 PVC 생산, 1985년 EVA수지 개발에 성공하면서 석유화학업계에서 한 획을 그은 회사가 한화케미칼(당시 한화석유화학)이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석유화학 분야에서 내실이 터탄하다는 얘기다.

실제 울산공장은 한화케미칼의 핵심사업인 CA, PE/EVA/전선수지, PVC 유도제품 등을 주도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한화케미칼 김평득 상무는 이 같은 상장성을 지난 울산공장 '현장의 캡틴'이다. 지난해 8월 취임해 지금까지 울산공장을 이끌고 있다. 1984년 입사해 지금까지 쭉 한화케미칼에 몸담고 있을 정도로 빼속까지 '한화인'이라는 평가다.

◇ '현장 중심형 엔지니어' 육성에 주력= 김 공장장은 울산공장에 대해 "과거와 현재, 미래가 상존하는 사업장"이라고 평한다. 과거 석유화학 분야에서 시작해 최근 태양광 사업까지 아우르고 있기 때문이다. 자부심도 대단하다. 울산공장을 '한화케미칼의 핵심사업, 신사업의 중심'이라고 말할 정도다.

"한화케미칼은 핵심사업의 경쟁력 강화, 고부가가치 특화 제품개발,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신수종 사업 발굴과 육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공장은 회사의 핵심제품들을 주도적으로 생산하고 있고, 그룹의 신성장동력인 태양광 셀 생산 등으로 미래를 향한 도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즉, 울산공장은 한화케미칼의 핵심사업, 신사업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울산공장 태양광 사업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을까. 김 공장장은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처 능력'을 꼽는데 서슴지 않는다.

"태양광 사업은 특히 이런 대처능력이 더욱 필요한 사업영역입니다. 큰 것이 작은 것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는다"는 김승연 회장님의 말씀에 따라 신속하고 전략적

1984년 입사 아래 케미칼 떠난 적 없어 유화서 태양광까지 일궈낸 화학계 산증인

인 대처능력을 바탕으로 내부와 외부의 성장전략을 병행, 그룹의 비전 달성을 원동력이 될 겁니다."

김 공장장은 이와 함께 울산공장의 기술인력 육성에 대해서도 적극 강조했다.

"현재와 같은 글로벌 경쟁에서 핵심 기술 인력 확보와 육성은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될 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장 중심형 엔지니어 양성에 역점을 두고, 공정개선 능력 뿐 아니라 해당 공정 내에 있어서 오퍼레이터 이상의 조업능력, 연구원 이상의 R&D 역량을 갖추기를 현장에 주문하고 있습니다."

◇ 현장 행기며 노사상생 강조= 김 공장장은 취임한 이래로 출근 직원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김평득 공장장이 공장 내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활동을 나누고 있다.

특히 '세대차이 극복'을 가장 첫 번째로 꼽았다. 이를 무심코 간과한다면 향후 공장 발전에 저해가 될 것이고, 직원들과 공장장과의 관계에도 소통 장애를 일으켜 업무 효율성에도 직결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화를 통한 직원들과의 스킨십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직원들과 토론을 많이 하고, 또 자주 격려하며 계층별, 직급별, 업무별로 다양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장장을 원하고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간다는 생각입니다."

그의 현장방문 모습을 보면 상당히 세심하다. 혹시 직원들이 공장장의 방문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형식에도 신경을 쓴다. 김 공장장은 "직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가벼운 티타임을 주로 갖는 등 최대한 편안하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김 공장장이 하루도 빼먹지 않고 행기는 것은 매일 공정 실과 공정현장을 둘러보는 일이다. 현장 분위기 파악과 직원들의

편안한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서다. 김 공장장은 직원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회사 경쟁력을 키워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조 갸안기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김 공장장은 '울산 공장의 조직문화를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가족이다. 생각을 전환해 노조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상생의 단계를 넘어 발전의 단계로 진화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한화케미칼 노사관계는 그리 좋지 않았지만 2006년 흥기준 사장 취임 이후 점차 나아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 공장장의 철학은 '소통과 열정'이다. 소통을 통해 임직원들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도전하는 열정으로 행동한다면 초일류 공장으로서 화학업계 귀감이 될 것이라고 설명이다.

김정유 기자 thec98@

국가유공자와 장애우 등 특정 계층에게만 거래와 소유가 허용됐던 LPG 승용차가 오는 11월부터 일반인에게도 판매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1일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에 고했다.

지경부는 "LPG 중고차가 평균 중고차 가격보다 싸게 거래돼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는 장애우들의 민원이 제기되면서, 장애우 복지 증진과 LPG 수급 안정 등을 꾀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규가 개정·발효되면 오는 11월부터는 일반인도 사용연한(자동차 등록일 기준) 5년을 넘는 LPG 승용차를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다. 현행 법규는 LPG 승용차의 거래 계층을 장애우와 국가유공자로 제한하고 있다.

관련 업계가 발표한 전국의 LPG차 등록대수는 장애우 및 국가유공자용 92만대와 영업용 택시, 렌터카 등을 포함해 총 245만5000대 정도다. 일반인이 보유한

11월부터 5년 넘은 장애인車 일반매매 허용

중고車시장 태풍 불까 미풍불까

LPG차의 점유율은 35% 가량이다.

그러나 현행 법규상으로 일반인이 구입할 수 있는 차종은 7인승 이상 다인승 승용차와 전환경 2종인 하이브리드 승용차, 경차 등으로 한정됐다. 관련 법규가 완화되면 일반인이 구입할 수 있는 LPG차의 폭은 더욱 늘어난다.

중고차 업계와 장애우 소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하고 있다. LPG 중고 승용차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중고차 업계는 이전보다 오른 금액에 차를 거래할 수 있고, 장애우들은 중고차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

어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LPG 중고 승용차 시장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차종은 배기량 2000cc급의 중형차다. 그동안 장애등급 1~3급 장애우 혹은 7급 이내 국가유공자가 5년 이상 사용을 전제로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차를 사면 여러 세제 혜택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중고차 업계는 가솔린 차보다 최대 500만원 정도 저렴하고, LPG차 시장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형차 시장에 대거 풀리면 중고차 시장이 활황을

맞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임민경 SK엔카 팀장은 "LPG의 연료비가 과거에 비해 올랐지만, 여전히 자동차 연료로는 상품성이 높아 향후 LPG차의 거래 전망이 밝은 편"이라며 "최근 시장에 풀린 LPG 중형차들 중에서는 성능이 향상된 제품이 많은 만큼 올 연말부터는 자연스럽게 시세가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완성차 업계는 시장의 주이를 관망하는 태도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LPG 중형차의 가격이 오르면, 해당 신차의 가치도 올라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완성차 업체 다른 관계자는 "생각보다 LPG 중형차를 찾으려는 시장의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5년 전에 생산된 LPG 중형차의 기술력과 품질이 최근 생산된 제품보다 월등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정백현 기자 jieom2@



잘 봐졌다!

스탠드 과학이 만든 또 하나의 걸작
(주)프리즘® LED 스탠드 4500W

(주)프리즘 LED 스탠드 4500W는 최고급 LED 헤드와 첨단 광학선 필터 장착으로 눈부심 방지는 물론, 뛰어난 배광 범위와 3단계 조도조절 기능으로 LED 스탠드의 수준을 한 차원 더 높였습니다. (주)프리즘의 일시기는 기술과 모던한 유럽미인 스타일의 LED 스탠드로 새로운 세계를 경험 하십시오.

(주)프리즘은 고객의 눈높이에서 최고의 제품을 만듭니다.



“흥행 실패땐 끝장”…게임업계 ‘가을전쟁’

을 하반기에 게임사들의 흥행 대전이 본격 전개된다. 각 게임사들은 흥행에 실패하면 끝이라는 비장한 각오 아래 기대작 개발에 막바지 담금질을 하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의 ‘블레이드앤소울’·엑스엘게임즈의 ‘아카에이지’·엠게임의 ‘열혈강호2’ 등이 흥행에 사활을 걸고 있다. 개발비가 몇 백억 이상 투입돼 실패할 경우 금전적인 타격도 만만치 않지만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어서 ‘이름값’을 해야 한다는 부담도 만만치 않다. 출시 전부터 화제가 됐던 대작 게임들의 대거 등장 소식이 게임 유저들을 더욱 설레게 하고 있다.

◇무협게임 지존의 귀환 ‘열혈강호2’= 엠게임의 애심작인 ‘열혈강호2’는 인지도, 대중성, 스케일 등 게임의 흥행요소를 두루 겸비한 만큼, 회사가 성장을 위해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작품이다.

을 하반기 공개가 예정돼 있는 열혈강호2는 현재까지도 현재 중인 인기 무협 만화 ‘열혈강호’의 게임화전인 ‘열혈강호 온라인’의 후속작이다.

열혈강호 온라인은 2005년도 대한민국 게임대상, 인기상의 영예를 얻으며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 판타지 일색의 한국 게임시장에 ‘무협’의 새바람을 일으킨 것이다. 또 남성의 전유물로 인식돼 있는 무협 만화가 온라인 게임의 날개를 달고 남녀노소가 함께 하는 대중의 콘텐츠로 진화하는데 큰 몫을 했다.

이 후속작이 더욱 관심이 높아지는 열혈강호라는 강력한 IP를 활용해 스토리텔링 게임으로 재탄생 됐기 때문이다. 전작에도 참여했던 전진진, 양재현 2명의 만화 원작자가 원작의 30년 후 이야기를 게임 시나리오뿐 아니라 그래픽 전반의 콘텐츠를 통해 펼쳐내고 있다.

또 여기에 8등신의 멋스런 캐릭터는 기존 무협게임에서 느낄 수 없는 화려함을 갖추고 있어 무협의 본고장 중국 대륙 점령도 밟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작이 이미 중국에서 큰 성공을 거두면서 장수게임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중국 현지에서도 열혈강호2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엠게임 관계자는 “열혈강호2는 전작의 흥행 이후 8년 만에 나오는 애심작”이라면서 “열혈강호온라인이 아직도 엠게임 전체 매출 40% 안팎을 차지하는 매출 기여를 하고 있어 후속작에도 사활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퓨전 판타지의 결정체, ‘블레이드앤소울’= 엔씨소프트의 차세대 프로젝트 ‘블레이드앤소울’은 오는 29일 두 번째 테스트와 함께 본격적인 서비스에 준비에 돌입한다.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시리즈는 국내에서 여전히 상

열혈강호2

인지도·대중성 등 흥행 요소 겸비

8등신 멋스런 캐릭터 유저들 유혹

블레이드앤소울

29일 두 번째 비공개 테스트 실시

오리엔탈 풍 화려한 그래픽 눈길

아카에이지

크라이엔진3 사용해 사실감 높여

제작비 300억 투입 볼륨감 극대화

위권에 랭크돼 있는 인기기호를 달리고 있지만 지난 6월 말 저조한 수익성을 이유로 ‘리니지’의 북미서비스를 종료했으며 ‘아이온’ 역시 해외에선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1분기 160억원을 기록한 로열티 매출도 2분기에는 144억원으로 떨어졌다.

따라서 엔씨소프트는 블레이드앤소울로 다시 한 번 해외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게 되는 것. 블레이드앤소울은 중국 대표 게임 퍼블리셔인 텐센트와 손을 잡고 중국 진출을 진행한다.

이 게임은 영상을 통해 공개된 오리엔탈 풍의 화려한 그래픽과 역동적인 액션에 푹 빠진 유저들에게 벌써부터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독특한 분위기의 캐릭터 검사, 권사 역사, 기공 등이 표현하는 직업 스킬, 연속기 등은 게임유저들을 한 번 끌어들이기 충분하다. 이번 2차 비공개테스트에서는 기존에 공개된 4개의 직업에 이어 신규 클래스 암살자와 고레벨 지역인 대사와 지역이 추가됐고 37레벨까지의 콘텐츠를 테스트할 수 있다.

MMORPG 명가인 엔씨소프트가 아이온을 뛰어 넘는 또 하나의 흥행 신화를 쓸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송재경 표 MMORPG, ‘아카에이지’= 송재경 대표가 이끄는 엑스엘게임즈의 ‘아카에이지’는 3·4분기 4차 비공개테스트를 준비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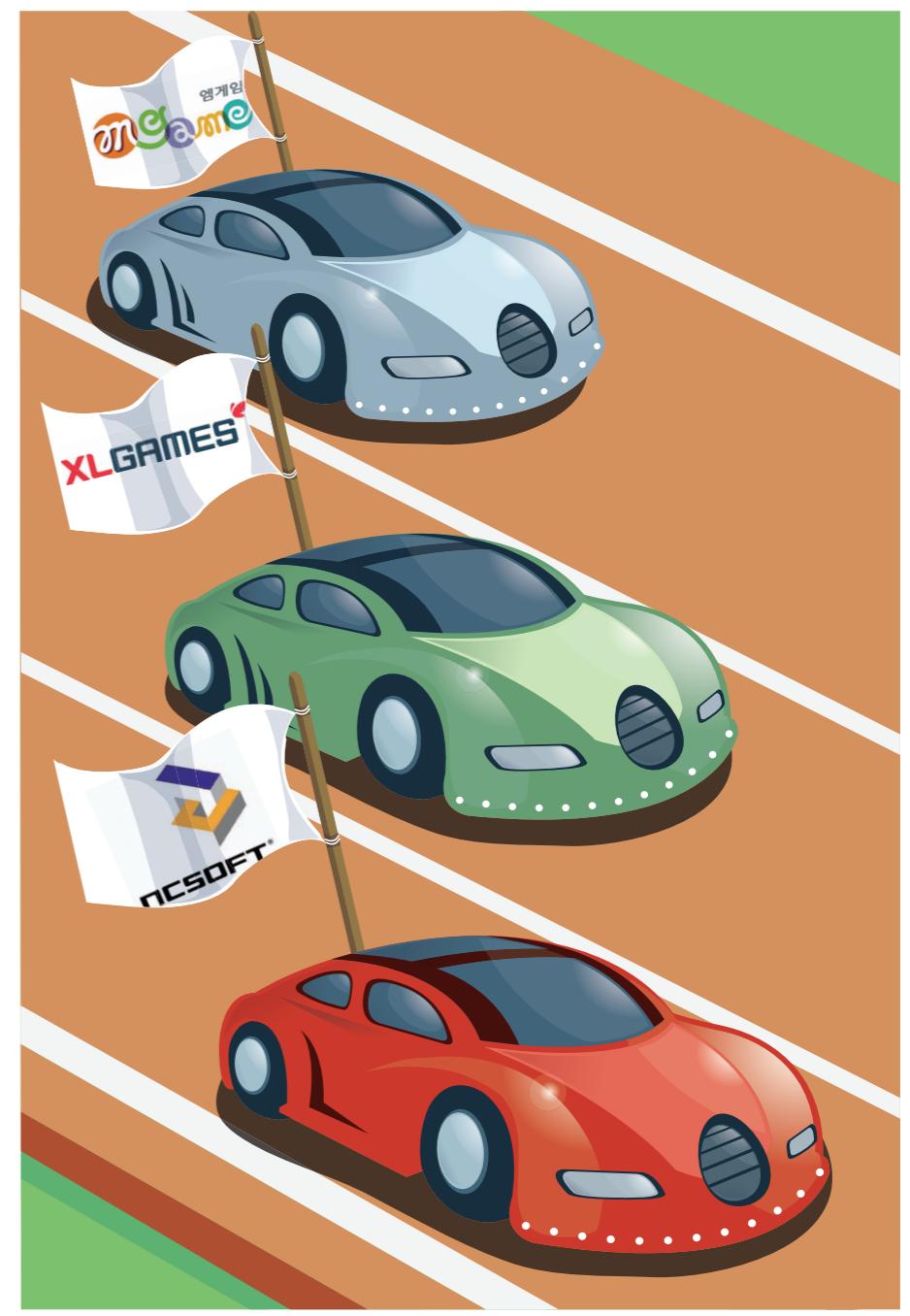
‘바람의 나라’, ‘리니지’를 히트시킨 송 대표는 과거 레이싱게임 ‘XL레이싱’을 제작했으나 뼈아픈 실패의 경험을 했다. 따라서 그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인 MMORPG에 사활을 거는 그의 도전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엑스엘게임즈는 게임성 뿐 아니라 브랜드 인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게임BI와 홈페이지 개편을 진행했고 텐센트를 통해 중국 수출이 확정된 상태다.

아카에이지는 높은 자유도를 기반으로 한 게임으로 이를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게임 제작을 크라이엔진3를 사용해 사실감을 높였다. 판타지소설로 유명한 전민희 작가가 시나리오와 세계관을 담당하고 윤상과 신해철이 음악을 맡는 등 제작비도 300억 원 이상 투입돼 게임의 볼륨감을 극대화했다.

업계 관계자는 “어느 장르나 제품이 흥행에 실패하면 타격이 크지만 게임은 특히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면서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는 대작들이 쏟아져 흥행 결과가 더욱 주목된다”고 말했다.

박엘리 기자 ellee@



‘게임자율등급분류제’ 있으나 마나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픈마켓 사업자가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개별적으로 할 수 있게 허용했으나 이동통신사들이 도입을 망설이고 있어 국내 앱스토어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앱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 이동통신3사 중 게임물 자율등급 분류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는 LG유플러스 하나다. KT와 SK텔레콤은 한달 째 도입 검토 중이다.

게임물자율등급분류제도는 오픈마켓을 통해 퍼처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게임을 제공하는 경우 게임위의 사전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오픈마켓 사업자의 자율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종전에는 신규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문화부 산하 게임물 등급위원회에서 등급심의를 받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10만원 안팎의 게임등급분류 수수료가 발생했으며 기간도 6~7일 이상 소요되는 등 비용·절차상 불편이 발생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문화부는 지난 7월 6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하고 오픈마켓에서 유용되는 게임(청소년이용불가 제외)에 대해서 오픈마켓 사업자가 등급분류를 할 수 있게 했다. 같은 달 28일 LG유플러스는 자율등급분류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했다.

LG유플러스는 게임물등급위원회와 게임물 자율등급 분류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통신사업자 최초로 게임물에 대한 자율등급 분류를 시행하고 있다. 오즈스토어에 게임을 올리려면 간단한 서류를 작성하는 것 만으로 등급심의를 받을 수 있다. 사전에 게임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앱스토어

LGU+만 도입…KT·SKT 한달째 검토중

개발자 앱스토어 등록땐 게임위 거쳐야



한 게임업체 직원들이 LG유플러스 오즈스토어 개발자센터를 통해 게임등급분류를 신청하고 있다.

의 콘텐츠 등록절차만 거쳐 2~3일만에 게임을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고 수수료도 면제받을 수 있어 만족스럽다는 평가다. 하지만 KT와 SK텔레콤은 자율등급분류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어 결국 국내 이동3사 마켓에 게임을 올리려면 게임물등급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SK텔레콤 관계자는 “현재 티스토어에 오픈마켓자율심의제도를 도입하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시장주도를 살펴보면서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KT도 비슷한 이유로 도입을 미루고 있다. 무턱대고 제도를 도입했다가는 개발사들에게 뒤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중소 개발사들은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제각각 다른 시각으로 자율등급분류제를 바라보고 있어

아이나비와 안드로이드의 놀라운 만남!

안드로이드 앱이 내비게이션 속으로
아이나비 SMART K9

안드로이드OS의 무한 앱세상을 기본! 차선이탈 감지기능과 Live 검색까지!
아이나비SMART K9으로 상상 이상의 즐거움과 놀라움을 드라이빙하라

9가지 Smart Change!

9가지 Super기능!

Smart Change of Super Navigation!

아이나비 SMART K9

내비게이션 앱시 – 아이나비

SUPER 1 스마트터치 기능 적용으로 빠르고 부드러운 지도 확대/축소

SUPER 2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누리는 아이나비 TCON+

SUPER 3 WiFi 모듈 장착으로 무로 인터넷은 기본

SUPER 4 1GHz CoreTex A8 칙적으로 최고의 처리속도

SUPER 5 512MB 대용량 RAM 적용으로 최강의 퍼포먼스

SUPER 6 HD급 홍경영상 멀티비주기기기 최강의 멀티비디오 홍경

SUPER 7 사진과 동영상 활용은 기본 충격녹화 기능까지

SUPER 8 국내 최고의 아이나비 Real 3D 김동률 그대로

SUPER 9 전면 터치 스크린 적용으로 Stylish & Premium Design

기획·마케팅 능력 일품 인테리어계 '미다스 손'

中企에 부는 風

가온 아이넥스 김희정 대표



가온 아이넥스 김희정 대표. 김 대표는 인테리어 디자인 기획력과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인정받아 올 초에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최근 완공한 성북구 길음에 위치한 재활요양전문 동서병원의 로비. 가온아이넥스는 지하 1층~지상 8층 병원 공간의 레노베이션 뿐 아니라 오픈 마케팅까지 맡아 진행,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다.

재활요양병원이라고 하면 사실상 노인들의 거주지, 약간은 칙칙한 분위기 등을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편견을 깨고 인테리어를 통해 별상의 전환을 실천한 주인공이 있다.

가온 아이넥스 김희정 대표. 그는 재활요양병원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테마를 적용시켜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느끼고 내부적으로는 현대적이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병원을 탈바꿈시켰다.

◇인테리어계의 미다스 손=실내 인테리어 회사 가온 아이넥스는 재도약을 위해 올 초 인테리어 디자인 기획력과 프레젠테이션 능력이 뛰어난 김희정 대표를 영입했다. 모기업인 가온건설은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음에도 영업력이 뛰어난 가온 아이넥스를 김 대표를 통해 키워보자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인테리어 경력 12년 베테랑으로 업계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실제로도 김 대표가 가온 아이넥스 싱구가 된 올 초부터 회사는 상당한 수주 기록을 세우고 있다.

김 대표는 “올 초에 종합병원인 동서재활병원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했다”며 “수주 경쟁이 상당히 치열했지만 우리만의 전략으로 경쟁력을 내세우며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종합병원 공사 수주를 위해 차별성으로 접근했다. 그는 “디자인 실력만으로는 승부를 걸 수 없어 병원 마케팅, 매출 등의 실적에도

이어질 수 있는 전략을 함께 내세웠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기본적인 영업력에 이 같은 전략을 접목시켜 회사를 키워나가고 있다. 그는 “올해 약 200억 원 정도의 매출액을 예상하고 있다”며 “호텔, 리조트 분야의 경우 중국을 비롯한 태국

히 중요했다.

그는 “설계와 시공이 다를 경우 공사는 공사 대로 진행되면서 이윤이 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고객과의 마찰 등의 문제도 최소화시키는 것이 매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인테리어 경력 12년 베테랑 업계서 인정 병원 공사 수주 등 올 매출 200억 예상 호텔·리조트 中·태국 등 해외진출 계획

등의 해외진출도 계획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남성일색 현장에서 '실력과 여성성'으로 승부=김 대표가 선임된 이후 어려움을 겪었던 점 중 하나가 현장관리다. 10년 이상을 실내에서만 디자이너로 일해왔던 김 대표로서는 현장 업무가 생소했기 때문이다. 그는 “여 장이 공사 현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현장 경험이 많은 남자들과의 소통이 관건이다”고 말했다. 게다가 설계와 실제 현장에서는 늘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대로 시공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김 대표의 역할이 상당

그는 이어 “최근 인테리어 업계도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면 치명적”이라며 “이 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영과 시공을 함께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김 대표가 티드한 것이 여성성을 강조으로 내세우는 것이었다. 그는 “현장에서 오랜 세월 일해 온 남자들과 일하다 보면 ‘여하 여자’라는 편견 때문에 의견이 수렴되지 않고 강경적으로 치닫을 때가 있다”며 “이러한 어려움 해결을 위해 상대방을 차근차근 이해시

키며 강경적으로 대하지 않는 습관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잘 알고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신뢰감을 쌓는 등 대화를 많이 유도하는 편이다”고 덧붙였다.

◇‘인테리어는 평생 동반자’=“앞으로도 계속 인테리어 일을 할 예정입니다”

김 대표는 인테리어 업무를 평생 직업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말한다. 그만큼 매력적인 직업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공사 수주를 위해 수일 밤새는 일이 허다할 정도로 고되지만 15분간의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수개월간 준비한 기획안이 통과되는 그 순간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다”며 “고객과 약속한 기한 내에 프로젝트를 완성하며 테이프를 끊는 그 순간 역시 희열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직업에 대한 사명감도 대단하다. 업계를 이어갈 차세대를 위한 환경 조성도 그에게는 과제다.

그는 “인테리어 분야는 주7일, 일24시간 일할 정도로 고된 일이 많기 때문에 다음 세대는 좀 더 갖춰진 환경에서 편안하게 일했으면 한다”며 “이를 위해 순수 인테리어 이 외에 다른 창출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화콘텐츠를 활용해 건물의 활용도를 높이는 등 매출에도 연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강점들을 접목시켜 볼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하유미 기자 jschs508@

■ 약기인하 압박받는 제약업계 新 풍속도

정부의 연이은 약기인하 압박에 '숨통이 막힌 제약업계'가 스스로 '살 길'모색에 나섰다. 다국적 제약사의 덫밭에 과감히 도전장을 내미는가 하면, 약가 정책의 영향을 덜 받는 '일반의약품'부문을 더욱 강화하는 등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약가 제도 개편안에 국내 제약시장은 더욱 위축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7월 원외처방 조제액은 전년 동월 대비 4.5% 증가한 7328억원을 기록하여 4월에 이어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오리지널을 보유한 외자계 업체의 증가율은 8.9%를 기록한 반면, 국내 업체 성장률은 2.9%에 그쳐 국내 업체의 점유율은 전년 동월 대비 1.1%p 감소했다.

이러한 가운데 대웅제약은 최근 CT 조영제 '네오비스트'를 출시, 다국적 제약사 주도의 조영제 시장에 대한 공략을 본격화했다. MRI나 CT 촬영 시 쓰

다국적 제약사 텃밭에 도전하고 일반의약품 마케팅은 강화하고

이는 약물인 조영제는 제약시장의 블루오션으로 일컬어진다. 조영제 시장은 매년 10% 고성장하고 있으며, 노령화 등으로 점기 건강진단이 급증함에 따라 그 수요 역시 크게 증가할 것이라 전망이다.

현재 2300억원 규모의 국내 조영제시장은 다국적 제약사들이 개발한 소수의 제품들이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최민영 대웅제약 조영제사업팀 팀장은 “네오비스트는 특허받은 순수 국내기술로 자체 개발한 고순도·고수율의 CT 조영

제로 기존 제품들에 비해 불순물이 낮아 안전성이 높은 것이 장점”이라며 “기술력과 영업력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5년 내 300억 달성을 조영제 국산화의 선두주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제약업계에 일반의약품 제품 출시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약기인하에 따른 정부 제제 압박과 무관하지 않다. 동국제약과 동화약품 등은 일 반약 시장으로 보폭을 넓혔다.

잇몸치료제 '인사돌'상처치료제 '마데카솔' 등으

로 일반의약품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동국제약은 지난 6월 모발구성 성분의 면는 확산 성 탈모치료제 '판시딜'을 출시했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향후에도 개인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해주는 삶의 질 개선'(QOL, Quality of Life) 제품 라인을 다양하게 선보일 계획이며, 이를 QOL 제품들이 동국제약의 주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화약품도 지난달 말 잇몸 치료와 약치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잇몸치료제 '잇치'를 내놓았다. 치약 형태로 매일 사용하며 잇몸치료제를 함께 할 수 있다는 편의성을 내세워 소비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동화약품은 하반기 후시단과 가스활약수 등의 TV광고를 새롭게 런칭하며 일반의약품 마케팅 강화에 한 층 고삐를 당길 계획이다.

전민정 기자 puri21@



지속되는 약기인하 제제 속에 제약업계는 새로운 제품 시장 개척, 일반의약품 강화 등을 통해 생존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사진은 대웅제약의 조영제 '네오비스트'와 동국제약의 탈모치료제 '판시딜'.

VIP GOLF GIFT SET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G&SG의 골프필드용품



(주)지앤에스지

골프용품 주문생산 전문업체



기업홍보용품 / 선물용품 / 골프장개장기념품
골프필드용품 제조전문

02-744-7444/765-7404 www.gnsg.co.kr 서울 성북구 삼선동1가 208 (주)지앤에스지

제공에 계약된 로고나 상호는 이례를 드기위한 이미지입니다.

NAVER 지앤에스지

작은 개선 큰 행복 - 엡손 라벨라이터

Let's Label with EPSON
EXCEED YOUR VISION

“라벨프린터? 따져보고 고르세요”

내가 원하는 라벨프린터의 모든 세상 - 엡손라벨프린터

아껴쓰는
행복까지!

골라 쓰는
재미에~

컬러와 디자인은
물론 사이즈까지~



같지만 다른 라벨? EPSON 라벨 제작 시스템!

엡손 라벨라이터
무료체험 이벤트!
신청 www.mylabel.co.kr

앞서가는 엡손의 기술력이 만든 라벨프린터 - 다양한 환경을 고려한 제품구성으로 용도에 따라 스타일에 맞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특징 ➔ 자동 커팅 기능 ➔ 미리보기 기능 ➔ 바코드 기능 ➔ 가로·세로 스타일 편집 ➔ 실용적 기호/재미있는 그림문자 ➔ 표 그리기/다양한 테두리



제품용도 ➔ 각급 관공서, 사무실, 금융기관, 도서실, 연수원, 산업현장 | 통신업체, 전산실, 건설현장, 전화국, 빌딩관리 | 학교·유치원 사물함, 이름표, 기정 | 실험실, 군대·경찰 장비관리, 레포츠센터 | 물류, 제조, 유통, 지영업, 창고정리, 병원, 약국, 식당, 서비스업 등

구입처 ➔ 알파(전국체인점), 오피스디포, 오피스넥스, 모든오피스, 드림디포, 오피스타운, 오피스닷컴, 써플라이, 오피스큐, 드림오피스, 기남상사 체인점 및 유명문구점 | 인터넷 쇼핑몰 : shop.mylabel.co.kr



(주)세빛맥스 Save-it Max Inc.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삼환디지털벤처타워 205호 Tel. 02-2024-0011 Fax. 02-2024-0121

www.mylabel.co.kr

꼬꼬면 열풍에 '라면시장 보글보글'

출시 보름만에 350만개 불티나게 팔려
제품 순위 톱10 진입... 지각변동 예고

꼬꼬면 효과로 라면시장에 일대 변화의 바람이 예고된다. 라면시장점유율 71%(2010년 AC닐슨 통계)를 차지하고 있는 농심의 위상에는 큰 변화가 있지만, 향후 1~10위 사이의 제품 순위가 요동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붉은색 얼큰한 라면에 길들여 있던 보수적인 소비자들의 입맛이 꼬꼬면 등 백색 국물 라면으로 이동할 경우 이같은 현상은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

24일 AC닐슨컴퍼니 코리아의 2011년 3월까지의 라면시장점유율에 따르면 농심이 71.7%로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삼양식품(12.0%), 오뚜기(9.8%), 한국야쿠르트(6.5%)가 포진해 있다.

소매점 판매액 기준으로 라면 브랜드별



여전히 넘는 대형브랜드로 발돋움할 경우 오뚜기를 제치고 2위인 삼양시장의 텁텁까지 추격하게 된다. 업계에 따르면 삼양식품의 라면 매출액은 연간 약 2200억원 수준이고 오뚜기는 약 1700억원, 한국야쿠르트는 1600억원 가량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컵라면으로 대표되는 용기면 시장도 들썩거릴 수 있다. 현재 농심의 육개장 사발면과 신라면컵이 1.2위를 다투고 있고 그 뒤를 한국야쿠르트의 왕푸경이 뒤쫓는 형국이다. 용기면 매출 기준 10위권 내에는 농심 제품이 8개나 포진해 있다. 꼬꼬면의 인기가 용기면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왕푸경에 이어 순위권 내로 진입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된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라면시장은 2조원 가량인데 성장은 정체기에 진입한 터라 업체별 경쟁에 따라 순위변동이 급격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며 "꼬꼬면의 향후 성적표에 따라 시장의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철규 기자 yoonck@



"스카프의 계절이 왔구나"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이 가을 스카프를 선보이고 있다. 실크, 울 캐시미어 등 다양한 소재가 있으며 최근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는 날씨에 보온 효과도 누릴 수 있다.

호텔·복합쇼핑몰 눈 맞았다

디큐브시티 쉐라톤·IFC 힐튼 콘래드... 핵심상권 시너지 효과

최근 복합쇼핑몰 내에 오픈, 다양한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신개념의 호텔들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이미 오픈한 영동포 타임스퀘어 매리아트 코트아드에 이어 오는 9월 신도림 디큐브시티에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이, 12월 롯데몰 김포공항에 비즈니스 호텔이, 내년 상반기에는 여의도 IFC에 콘래드 서울이 건립될 예정이다.

신규 호텔들이 대형 복합쇼핑몰에 건립되는 가장 큰 이유는 복합쇼핑몰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 복합쇼핑몰은 교통의 요지 및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 지역은 핵심상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고, 호텔은 고객과의 높은 접근성과 편리한 교통이라는 강점을 얻게 된다.

또한 쇼핑, 공연 등 문화생활 서비스와 연계, 새로운 패키지를 개발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은 복합쇼핑몰 연계 호텔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디큐브시티는 서울 서남권 교통의 중심지인 신도림에 위치하는 국내 최대 복합쇼핑몰이다.

힐튼 계열의 콘래드(Conrad) 호텔은 내년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IFC)에 오픈한다. 비즈니스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과 국내인을 타깃으로 하며 쇼핑몰 외에도 다양한 문화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김포국제공항 청사 부지에 오픈하는 롯데몰 김포스카이파크는 친환경 테마파크를 컨셉으로 다양한 종의 수목을 갖춘 대규모 공원을 조성한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공항 부지에 들어서는 복합쇼핑몰 내에 위치하게 된다. 이외에 서울역사 북부,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

동대문에도 관광 호텔 또는 비즈니스 호텔들이 오픈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아름 기자 radel@

외식업계 마늘 열풍

KFC·도미노피자 등 새 메뉴

외식업계에 마늘 열풍이 불고 있다. 유난히 마늘을 좋아하는 한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마늘을 접목한 메뉴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혈액순환을 돋우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며 건강에 좋은 마늘을 활용한 메뉴들을 소개한다.

KFC는 이번에 신메뉴로 갈릭소스를 활용한 '갈릭치킨'을 선보였다. 갈릭치킨은 한국인이 마늘이 들어간 요리를 선호한다는 것을 감안해 마늘 입자가 큼직하게 들어간 양념 소스를 개발해 냈다.

달콤한 시즈닝 소스에 한국인의 입맛에 더욱 잘 맞는 마늘향과 마늘입자의 조합으로 아삭한 식감과 깔끔한 맛을 강조한 것이다.

도미노피자의 '갈릭 히든 옛지 피자'는 도우 끝에 으깬 감자와 생크림, 마늘, 치즈, 베이컨 칩을 넣어 씹는 맛을 살린 '매쉬드포테이토필링'과 고소한 갈릭향을 더한 갈릭크림치즈가 부드러운 맛의 조화를 이룬다.

마늘을 활용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메드포 갈릭에서는 최근 '갈릭 페노 파스타'를 선보였다.

이 메뉴는 맵기로 유명한 멕시칸 고추와 마늘로 맛을 낸 메운 스파게티로, 과하지 않고 얼큰하게 메운 맛이 한국인의 입맛을 잘 맞도록 개발한 메뉴다.

최아름 기자 radel@

유통 맞수 초록마을 vs 올가흘푸드

친환경 유기농 '건강한 경쟁'



'초록' 8년 만에 매출 160배
'올가흘' 매장확대 등 맹추격

환경 개선 등을 크게 이뤄냈다. 또 초록마을은 생산이력제를 시행해 소비자들이 상품별 이력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위해상품으로 판정된 상품이 최종 판매 단계에서 소비자에게 판매가 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위해상품차단시스템' 운영매장으로 인증받기도 했다. 이를 통해 초록마을은 친환경 유기농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크게 증진 시켰다는 설명이다. 또 초록마을은 친환경 유기농 업계 최초로 친환경 유기농 전용 물류센터를 설립했다. 콜드체인 시스템과 전국 1일 배송시스템은 초록마을의 경쟁력을 크게 높린 것으로 판단된다.

풀무원의 올가흘푸드는 1981년 압구정동에 풀무원 농장 무공해 농산물 직판장을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된 풀무원의 모태기업이다. 그래서 풀무원 식품안전센터와 풀무원 QM사무국과의 긴밀한 기술 연계를 통해 까다로운 상품 공급으로 소문이 났다.

초록마을의 성공은 사람에 있다. 2009년 대비 30%가 넘는 전문 인력을 충원해 적극적인 PB상품 개발, 서비스



34개 등 총 44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올가흘푸드는 앞으로 전국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한 대형, 지역 밀착형 직영점과 습인숍 매장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가흘푸드는 매장 내 베이커리와 키친이라는 테마 코너로 타 전문점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올가흘푸드는 유기농 밀가루, 국내산 친환경 인증 잡곡·과일·야채, 유기농 설탕, 올리브유, 캐놀리유 등의 고급 원료로 만든 다양한 제과·제빵류를 판매하고 있다.

또, 올가흘은 밀반찬에서 일품요리 까지 친환경농산물을 원료로 한 여러 가지 즉석요리를 판매한다. 이를 위한 친환경 음식 맞춤 서비스로 경쟁력을 높였다.

강구귀 기자 kkk@

사이다도 칼로리걱정 뚝 '칠성 사이다 제로' 출시

롯데칠성음료는 제로칼로리 사이다'칠성 사이다 제로'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칠성사이다 제로'는 오리지널 칠성사이다의 맛과 특징은 그대로 유지해 색소, 카페인, 합성착향료, 보존료는 들어가지 않으며 설탕과 칼로리까지 제거해 더 가벼워졌다.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기존 칠성사이다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기 위해 핵심 디자인 요소인 초록별과 칠성사이다 로고는 그대로 유지했다.

그리고 배경색을 실버컬러로 바꾸어 기존 제품과 차별화하고 제로칼로리를 강

조하기 위한 레드 컬러의 'ZERO' 문구를 새롭게 삽입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오리지널 맛 그대로 더 가벼워진 맑고 깨끗한 '칠성사이다 제로'가 기존 제로칼로리 탄산음료에 실망한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어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타깃은 칼로리 섭취를 걱정하는 1525 여성층과 칼로리 부담으로 탄산음료를 마시지 않는 직장인이다.

강구귀 기자 kkk@

세계가 인정한

세계에서 인정받은 RYN 운동화

WORLD BEST NO.1

- 해외 20여개 국가로 수출
- 대통령 표창 수상
- 미국 오바마 대통령 표창 수상
- 대한체육회 / 대한올림픽위원회 공식 파트너사 선정
- 베이징 장애인 올림픽 국가대표선수단 공식후원사 선정
- 광저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선수단 공식후원사 선정
- 미국 FDA 1등급 의료기기 등록(국내 신발업계 최초)
- 유럽 CE 의료기기 인증(국내 기능성 신발 최초)
- 이탈리아 AC STUDIO와 디자인 협약



대형저축銀 계열사 정리 본격화

토마토·솔로몬·한국저축銀 등 부실해소 차원
계열은행 M&A 시장 내놔… 매각 쉽지 않을 듯

대형 저축은행 계열 저축은행의 매물이 본격적으로 M&A 시장에 나오고 있다. 24일 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한 85개 저축은행 경영진단의 강도가 센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형 저축은행들의 계열로 있는 저축은행들을 시장에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형 저축은행들이 많은 저축은행들을 자회사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상황이 어려우면 계열 저축은행을 매각하는 것도 방법

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계열저축은행들을 가진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모회사의 경영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경영상황이 안좋은 계열 저축은행들도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시장에서 이야기 되고 있는 곳은 토마토, 솔로몬, 한국 계열 저축은행 등이다.

토마토 저축은행의 경우 토마토2 저축은행이 시장에서 M&A가 논의

되고 있으며 솔로몬 저축은행도 경기 솔로몬 이외에 나머지 저축은행의 추가 매각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한국저축은행도 진행, 경기, 경남 등 계열 가운데 한 곳에 대해서 매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마토2 저축은행은 작년 12월 말 기준 BIS비율 8.89%, 고정이하여 신비율 9.85%, 총자산 1조5745억원으로 부산 본점과 서울에 선릉과 명동에 지점을 가지고 있으며 대구와 대전 등에 지역 거점을 두루 갖추고 있다.

솔로몬 저축은행의 경우 경기 솔로몬 저축은행의 경우 경기 솔로몬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 시장에 나올 저축은행 매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가격에 협상이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매각으로 자본확충이 필요하다는 것.

한국저축은행의 경우 상대적으로 상황은 좋은 편이지만 일부 계열 저축은행의 상황이 안좋아져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저축은행의 부실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대형화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따라서 웬만하면 계열 저축은행을 정리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시장에서 저축은행 매물이 많이 나와 있고 9월 이후 추가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축은행 매각이 쉽지 않다.

현재 제일저축은행 계열 제일2, 솔로몬 계열 경기 솔로몬 등이 시장에 나와 있으며 HK저축은행과 W저축은행도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또한 저축은행 중앙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로 저축은행도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고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B저축은행 관계자는 “시장에 저축은행 매물이 많이 나와 있어 대형 계열 저축은행의 매각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수도권에 위치한 이점과 부실 저축은행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가격만 잘 맞춘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



전통시장서 미소금융 홍보 김승유 미소금융재단 이사장이 23일 오후 서울 종량구 면목7동 면목시장을 방문,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있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소액대출을 56개 시장, 66억원 규모로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 대출도 고삐 쫓다

금융위, 행안부에 감독강화 요청

금융위원회가 제2금융권 가계대출 급증세를 잡기 위해 나섰다.

금융위는 최근 행정안전부에 새마을금고 감독강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농협 수협 신협의 감독권은 금융위원회가 가지고 있지만 새마을금고는 행안부에서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의 감독강화 요청은 최근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급증에 따른 것.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최근 1년간 가계대출 증가율은 31.0%에 달했다. 이는 신용협동조합 25.1%나 저축은행 24.0% 보다 높은 수준이다.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높아진 것은 타 금융기관의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을 지켜야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행안부의 관리를 받기 때문에 감독의 통일성 및 형평성에서 차이가 있었

고재인 기자 kji@

유로자금 한국 이탈 시작됐나

프랑스계 은행 이달 채권 10억달러 회수
유동성 마련 위해 재투자도 기피 가능성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로존 국가의 채권 회수가 늘고 있다. 유로존 재정위기 확대에 자본이 급격히 이탈할 가능성이 커졌다.

24일 금융권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달 들어 프랑스계 은행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채권 10억달러를 순회수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18일까지 외국인 투자자의 채권 순회수 규모는 5억달러다. 중국 등에서는 채권을 매입했지만 유럽계 자본이 매도하면서 7개월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프랑스를 떠나 유럽계가 자금 이탈을 주도한 것이다. 특히 유럽계 채권 투자금이 월 기준으로 마이너스를 보인 것은 2년여만에 처음이다.

또 업계는 이달 우리나라에서 채권을 회수한 프랑스 은행 중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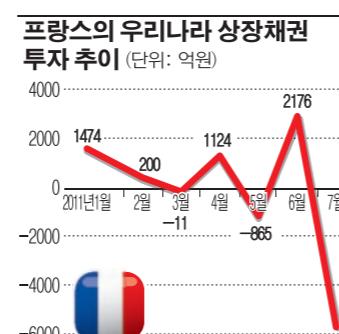
는 8월 초 유럽중앙은행(ECB)으로부터 50억달러를 빌린 은행을 포함한 것으로 추정했다. ECB로부터 달러를 빌리고 신흥국 투자금을 회수하고 있다면 앞으로도 자본 이탈 가능성은 더욱 커진 셈이다.

그리스 채무조정이 다음달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이 신용경색을 염려, 자본을 더욱 쓸 수 있다.

시중은행 채권딜러는 “아직까지 전체 외국인의 채권 투자는 안정적이지만 유럽 자금의 유출은 최근 눈에 띄게 늘었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 대외 채무는 지난 2분기 기준 3980억달러로 4000억달러에 육박했다. 미국, 일본의 신용등급 강등에 이어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선진국마저 강등된다면 자본 유출이 급증할 수 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이 경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 타격도 불가피하다.

박윤아 동부증권 연구원은 “그리스의 6차 자금지원과 관련 유럽 국가 간의 마찰이 있다”며 “유럽 금융기관이 유동성 마련을 위해 재투자를 기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국은 아직까지 염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은 관계자는 “18일까지 외국인 채권 자금이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지만 월말까지 가면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다”고 말했다.

SC제일銀 노조, 임금 받으려 파업 종료?

“성과 없는 제설 깨기 파업” 금융권 비판

스탠다드차타드(SC)제일은행 노동조합이 아무런 성과없이 파업을 종료하는 것에 금융권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무임금으로 장기간 파업을 하는 것이 부당이었다”는 노조의 명분이 이를비판적이란 지적이다.

당초 파업에 돌입한 목적을 이루지는 못한 채 은행에 막대한 피해만 끼친 ‘제설 깨기’ 파업에만 그쳤다는 것이다.

노조는 오는 29일 영업현장에 복귀할 예정이다. 지난 6월27일 2900여

명의 노조원이 파업에 돌입한 이후 64일만이다. 은행권 최장기 파업이란 불명예를 기록했다.

그러나 노조가 파업 복귀 명분에 두고 금융권에서는 조직 이기주의란 지적이다. 원하는 것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결국 임금을 받기 위해 파업을 종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은행 관계자는 “영업 현장에 복귀한 뒤에도 임금을 받으면서 파업과 태업을 병행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 같이 애매한 노조의 결정 때문에

에 노조 조직력에도 금이 갔다. 실제 파업 종료를 두고 노노 간의 갈등도 일어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여전히 파업 종료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합원은 현장에 복귀한 후 태업과 부분 파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은행 측은 노조의 파업 복귀 뒤에 임시 폐쇄했던 43개 지점에 다시 열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노조가 현장에 돌아온 뒤 어떤 방식으로 투쟁을 진행할지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금융 동부금융네트워크

“당신에게 준비된 미래가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주가 폭락에 대형 M&A 물거품 위기

CJ “대한통운 인수가 3% 이상 낮춰달라”
하이닉스도 1조 이상 떨어져 좌초 위기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으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그동안 추진해온 대형 인수합병(M&A)가 차치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주가가 빠지며 인수대금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재권단과 인수기업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새로운 갈등 요소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24일 금융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한통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CJ제일제당과 CJ GLS는 매각주 간사인 산업은행과 노무라증권에 대한통운 최종인수가격을 당초 제시

주가 하락으로 인수 가격이 1조원 이상 떨어지면서 좌초할 가능성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이닉스 주가가 당초 매각공고를 낸 지난 6월21일 2만5900원이었으나 이달 22일에는 1만5750원으로 40% 가까이 하락했다. 이는 재권단이 내세웠던 ‘구주 7.5% 이상, 신주 10% 이하’ 조건으로 하이닉스를 매각할 경우 우 매각 가격이 1조1600억원 가량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상황을 반영한 듯 재권단은 매각 일정을 연기하고 있다. 재권단 한 관계자는 “매각 기준을 정해 입찰안내서를 보낼 예정이었으나 연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안경주 기자 ahnjk@

동부화재
동부생명
동부증권
동부자산운용
동부캐피탈
동부저축은행
동부금융네트워크



KB금융 “사회공헌 활동도 리딩뱅크”

KB금융지주는 ‘가장 존경받는 기업시민’이 되고자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핵심사업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사회공헌활동 효율성 극대화, 지역사회에의 실질적 기여, 조직문화로의 정착 등 세 가지 추진방향을 설정해 사회공헌 모델 정착을 추구하고 있다.

KB금융은 지난 5월 ‘KB금융공익재단’을 공식 출범했다. 경제·금융교육 및 학술·장학사업 등을 통해 국민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나눔과 봉사 문화를 확산한다는 취지다. 공익재단은 KB금융그룹 내 모든 계열사가 공동으로 출연해 200억원 규모로 마련됐으며 KB금융은 매년 이의 1% 이내 규모로 추가 출연해 1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재단은 지난 8월 5일과 6일 서울, 부산, 대전 등 전국 11개 권역 30개 지역아동센터 아동 400여명이 참여하는 희망경제교육 ‘두근두근 경제페스티벌’을 개최하기도 했다. 희망경제교육 프로그램인 경제페스티벌은 참가 아동 각자의 적성과 장점을 바탕으로 개별 진로상담과 경제교육을 진행토록 구성됐다.

또한 최근에는 저소득 가정 장애 어린이의 재활 및 자립을 지원하는 ‘세종마을 푸르메센터’의 건립기금으로 10억원을 푸르메 재단에 기부했다.

세종마을 푸르메센터는 재활의원, 어린이 한의원, 어린이 재활센터, 장애인 전용 치과, 복지관 등이 결합한 종합재활의료센터이다.

KB금융은 기부금을 통해 장애 어린이의 감각 통합,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KB금융지주는 핵심사업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사회공헌활동 효율성 극대화, 지역사회에의 실질적 기여, 조직문화로의 정착 등 세 가지 기본 추진방향을 설정해 사회공헌 모델 정착을 추구하고 있다.

공익재단 설립·저소득 가정 지원·일자리 창출…

금융지주사 넘어 ‘가장 존경받는 기업’ 변신 중

료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게 됐다.

어윤대 KB금융 회장은 “장애인 어린이를 가진 부모의 소원이 아이보다 하루 늦게 생을 마감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접하며 우리 모두가 그들의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몸이 조금 불편한 것이 또 다른 장애를 유발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장애우들의 자활을 도울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KB가 앞장서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따듯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뿐만 아니라 KB금융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연결프로젝트인 ‘KB굿잡’을 실시하고 있다.

KB굿잡은 국민은행 전국 1200여 지점을 통해 밸류되거나 중견기업연합회 등 제휴기관을 통해 확보된 우량 중소·중견 기업의 구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용사이트

(www.kbgoodjob.co.kr) 등을 통해 청년 구직자에게 제공한다. 구인 기업에게도 전국 대학 취업센터나 한국폴리텍대학 등을 통해 확보한 우수인력의 구직 정보를 전달한다.

아울러 지난 8월부터는 중견·중소기업의 구인활동 지원과 청년 구직자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굿잡 채용 장려금’지원을 시작했다. KB굿잡을 통해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 총 4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KB금융은 오는 10월 송도에서 ‘2011 KB굿잡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구직자들에게 남동공단 내 우수 기업을 방문하는 ‘공단투어’도 실시할 계획이다.

서지희 기자 jhsseo@

카드&컨슈머

“뭐, 내가 카드 발급 자격이 안된다고?”

직업·소득·재산 등 심사기준

VIP·VVIP 카드는 더 엄격

거절돼도 신용도 영향 없어

카드사들이 대략적인 발급 기준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회원의 나이다. 미성년자의 명의로는 절대로 신용카드가 발급되지 않는다. 가입 연령을 20세가 아닌 25세로 두는 카드사도 있다.

다음은 직업이다. 금융권에서는 개인 신용등급의 70% 가량을 직장과 연봉이 좌우한다고 이야기한다. 재산보다 더 중요한 계

도로 엄격하게 심사한다.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을 통해 카드를 받을 수도 있다. 가장 쉬운 방법이 은행의 예금을 담보로 잡아서 카드를 발급받는 방법이다. 적금이나 보험도 가능하다.

당연히 신한·KB국민·하나SK카드 등은행계 카드사에서 통하는 방법이다. 해당 금액을 인출하려면 질권 설정을 해지해야 하기 때문에 카드도 쓸 수 없다.

재산이 납부 실적이 있거나 114에 등재된 업체 직원도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영업점이나 인터넷을 통해 카드를 신청하는 것보다 카드 모집인을 통하는 것이 발급 확률이 더 높다. 모집인의 1차적인 심사를 거쳤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고득관 기자 dk@

관리용장부와 회계장부를
매일! 한번에! 동시에!

“회계, 올해부터는 제대로 해보시죠”

회계 이웃소싱, 연매출 100억 이상의 회사만 하는줄 알았는데 30억대의 우리 회사도 된답니다.

이런건 안합니다!

■ 비싼 ERP사서 교육훈련에 서버관리까지

-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 입력된 Data는 맞는지
- 유지·보수비용은 적정한지

■ 회계·세무경력사원 고임금에 봄아서

- 잘 가르쳐 놓으면 그만두고 또 가르치고
- 전문성 검증은
- 업무 연속성은

■ 영수증·문서를 회사 밖으로 보내놓고

- 회계장부를 손꼽아 기다리고
- 1년에 한번 장부 받고

■ 결국 일은 우리가 다해 놓고

- 신고하자고 또 맡기고
- 시간 쓰고 돈쓰고



“회계전문가가 인터넷으로 매일 회사에 출근합니다.”

“인터넷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다음날이면 실적이 확인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 매티가 제공하는 ERP로 현장에서 기본문서를 작성하기만 합니다.

- 지출결의서 작성
- 세금계산서 발행
- 수주보고서
- 구매발주서
- 생산보고서
- 입금보고서 작성
- 거래명세표 작성
- 급여대장
- 구매입고보고서
- 자재불출보고서 등

■ 일일 실적을 매일 확인합니다.

- 일일 아침이면 4대일보가 보고되며 핸드폰으로 알람을 드립니다.
- 자금일보 • 판매일보 • 구매일보 • 생산일보 • SMS 문자 알림

■ 관리용 장부가 매일 자동으로 만들어 집니다.

- 이전 만드느라 애쓰지 말고 언제든지 불러내서 활용하기만 하세요.
- 현금출납부 • 외상관리대장 • 어음관리대장 • 수불부 • 수주관리대장 등

■ 회계장부와 관련신고는 전문가가 알아서 매일 처리 합니다.

- 관련법규 검토와 업무지식은 전문가들이 책임집니다.

코스닥 시총 '톱10' 매일 바뀐다

외국인·기관 매수가 시장 좌지우지
셀트리온 독주 속 2~10위 다툼 치열

최근 더블딥(이중침체) 우려로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 시총상위주들의 순위다툼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시총 상위 10개 종목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여부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하며, 하루가 멀다하고 순위바뀜이 나타나고 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과 비교해 이달 23일 현재 시총 10위권 이내에서 같은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셀트리온 한 종목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초부터 중소형주들에 대한 매기 가 살아나며, 시총 상위주들간의 순위다툼이 치열해졌고 특히 최근 경기둔화 우려로 변동성이 높은 장세가 이어지자 기업들의 명암이 극

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

현재 시총 1위 셀트리온은 현재 시총 5조 6450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부터 부동의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특히 올해 바이오시밀러 원료의약품 판매로, 바이오시밀러 부문의 절대강자로 평가받고 있다.

최종경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셀트리온은 바이오의약품 계약생산(CMO) 사업을 통해 축적한 세계적인 수준의 항체의약품 생산 설비와 생산 기술력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국내의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석권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올해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각각 56.2%와 56.5% 증가한 2826억원과 1669억원을 달성할

코스닥 시총 상위 10社 (단위: 원)

종목명	시가총액
셀트리온	5,645,118,416,400
CJ E&M	1,801,654,290,000
CJ오쇼핑	1,752,989,842,800
다음	1,620,983,671,200
서울반도체	1,568,415,260,000
네오워즈게임즈	1,398,177,510,400
포스코켐텍	1,207,981,500,000
SK브로드밴드	1,040,296,190,800
동서	1,026,610,000,000
에스에프에이	987,490,900,000

*8월23일 기준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같은 기간 불과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코스닥시장 대장주 자리를 꿰찼던 서울반도체가 시총 5위로 밀려났고, 메가스터디는 학원법 개정안 등 정부의 사교육비 절감 정책에 고전하며 시총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특히 서울반도체는 최근 업황부진에 따른 실적부진과 하반기 불투명한 LED조명시장 전망에 외국인들과 기관의 매도폭탄 세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전날 코스닥시장이 사흘만에 3%가까이 급등했지만, 서울반도체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1위 종목에 이름을 올리며 8% 급락세를 보였다.

이로 인해 지난 16일 시총 2위에서 일주일새 5위로 시총이 세계단위로 밀려났다.

이밖에 교육 대장주로 군림하던 메가스터디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악재에 시총이 9130억원으로 쪼그라들며 1조 클럽에서도 제외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현재 시총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에스에프에이를 제외한 9개 종목이 시총 1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더욱이 현재 시총 2위인 CJ E&M과 5위인 서울반도체의 시가총액이 1조 8000억원~1조 6000억원 수준으로, 이 구간의 기업들의 시총 규모가 2000억원 내외로 유사해 앞으로 시총 2~5위간 치열한 순위다툼이 예고되고 있다. 김기덕 기자 kiduk@

증권株 굴욕... 액면가 미달 속출

동양증금·동부증권·KTB투자 등

한화·교보는 액면가 근접

주식시장이 크게 출렁이면서 증권주들도 몸살을 앓고 있다. 연이은 주가하락으로 액면가에도 못 미치는 증권주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증권업종 지수는 국내 증시가 폭락한 2525 원까지 내려갔다가 권성문 KTB투자증권 회장이 자사주 매입에 나서면서 주가를 3000원대 까지 끌어올렸다.

코스피보다 증권주들이 더 큰 공황을 겪고 있는 것이다.

특히 몇몇 종목은 액면가에도 못 미치는 수준까지 떨어졌다.

동양증합금융증권은 지난 1일 종가기준으로 6630원이었던 주가가 지난 19일 4865원까지 떨어지면서 액면가 밑으로 내려왔다. 동양증금은 전날 반등하면서 4965원까지 상승했지만 여전히 액면가 위로는 올라가지 못했다.

동부증권은 지난 5일 4975원으로 장을 마친 이후 12거래일째 액면가가 떨어지면서 4910원으로 떨어졌다.

교보증권(5190원)과 한화증권(5240원)은 6700원 선이던 주가가 거듭 하락하면서 액면가 근처까지 내려와 있다.

증시 폭락 이전부터 액면가에 못 미쳤던 종목들은 더욱 고전하고 있다.

KTB투자증권은 23일 2865원에 장을 마감하면서 액면가 5000원보다 40% 넘게 내려앉았다. KTB증권은 저축은행사태와 연루돼 주가가 한때 액면가 절반 수준인 2525 원까지 내려갔다가 권성문 KTB투자증권 회장이 자사주 매입에 나서면서 주가를 3000원대 까지 끌어올렸다.

코스피보다 증권주들이 더 큰 공황을 겪고 있는 것이다.

특히 몇몇 종목은 액면가에도 못 미치는 수준까지 떨어졌다.

동양증합금융증권은 지난 1일 종가기준으로 6630원이었던 주가가 지난 19일 4865원까지 떨어지면서 액면가 밑으로 내려왔다. 동양증금은 전날 반등하면서 4965원까지 상승했지만 여전히 액면가 위로는 올라가지 못했다.

동부증권은 지난 5일 4975원으로 장을 마친 이후 12거래일째 액면가가 떨어지면서 4910원으로 떨어졌다.

교보증권(5190원)과 한화증권(5240원)은 6700원 선이던 주가가 거듭 하락하면서 액면가 근처까지 내려와 있다.



삼성자산운용, 태평로 시대 열었다

삼성생명 빌딩으로 이전

삼성자산운용이 오는 26일 태평로 2가에 위치한 삼성생명 빌딩으로 사옥을 이전한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태평로에 삼성 금융사들이 모두 집결해 있어 계열사 사내지도 제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외 유수의 금융기관들이 다수 모여있는 등 영업 편의성도 우수하다"고 설명했다.

삼성자산운용은 사옥이전을 계기로 스마트 사무환경 구축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일자적으로 전 직원에게 노트북을 지급해 시간·장소에 구애없이 사내 시스템을 활용한 업무 및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했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지난해 4월 사명변경에 이어 이번 사옥이전은 아시아 최고 윤용사 도약이라는 비전 실현을 앞당길 것"이라며 "이에 걸맞은 유·무형의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삼성자산운용은 새로 이전하는 삼성생명 빌딩에서 23, 24, 25층 등 3개 층을 사용할 예정이다.

박선현 기자 sunhy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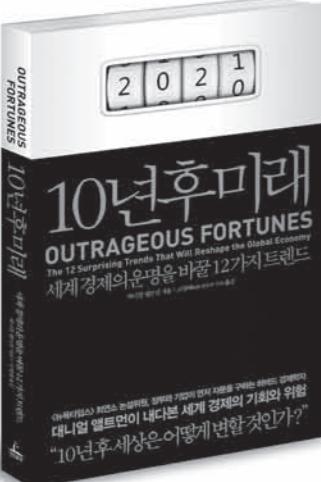
원에게 노트북을 지급해 시간·장소에 구애없이 사내 시스템을 활용한 업무 및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했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지난해 4월 사명변경에 이어 이번 사옥이전은 아시아 최고 윤용사 도약이라는 비전 실현을 앞당길 것"이라며 "이에 걸맞은 유·무형의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삼성자산운용은 새로 이전하는 삼성생명 빌딩에서 23, 24, 25층 등 3개 층을 사용할 예정이다.

박선현 기자 sunhyun@

10년 후 미래



"중국은 지고 유럽연합은 붕괴한다!"

10년 후 세계 경제의 기회와 위험에 대한 놀라운 통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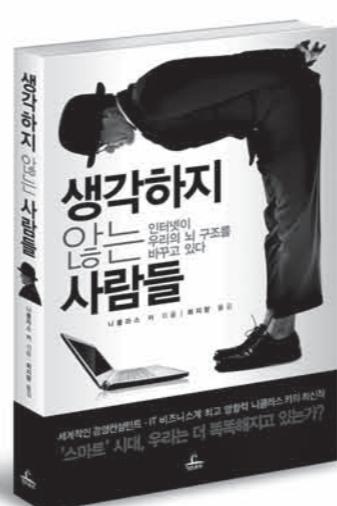
10년 후 미래에는 어떤 산업이 성장하고 어떤 국가가 경제적 위협에 직면할 것인지, 성공적인 투자 분야는 무엇이고 다음의 경제위기는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 것인지 날카로운 혜안을 보여주는 책. 향후 10년 동안 일어날 12가지 세계 경제 변화는 개인과 기업, 정부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KT 경제경영연구소
하계휴가
권장 도서

현대경제연구원
'CEO가
읽어야 할 도서'

인터넷 서점
전국 서점
베스트셀러

■ 이 책은 매우 도발적이고 빠르게 전개되며 상상력을 자극한다.
무엇보다 권위 있다. 우리는 이 책에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놀랍고도
도발적인 변화를 접하게 될 것이다. 팀 하포드, (경제학 콘서트) 저자



니플라스 카 자음 | 최저항 옮김 | 15,000원

"트위터, 구글이 내게 무슨 짓을 한거지?"

디지털 미디어가 우리의 사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놀라운 통찰

인터넷이 인지 능력, 집중력, 기억력 등 너의 능력을 감소시킨다는 저자의 진단은, 단순히 일반적인 추정이나 유의 경고가 아니라 최신 너 과학의 연구 성과를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놀랍다. 스마트 기기에 로그온되어 있지 않으면 불안한 당신과 당신 자녀를 위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KT 경제경영연구소
하계휴가
권장 도서

교보문고
이달의 책
굿모닝 CEO

인터넷 서점
전국 서점
베스트셀러

■ '인터넷이 우리 너에게 한 것'이라는 부제에 집약되듯이
이 책은 인터넷이 우리의 너 구조를 바꾸고 있다고 경고한다.
_이인식(과학문화연구소장, KAIST 겸임교수)

금값은 하늘높이 치솟는데…

미니 금선물시장은 '냉랭' 와?

거래단위 소형화 영향

홍보부족도 원인인 듯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로 국내를 비롯한 전 세계 주식시장에 희망이고 있는 가운데 안전자산으로 금이 부각되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가 야심차게 준비한 미니 금선물시장은 오히려 계약 건수가 줄어드는 이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가 급락하기 시작한 지난 2일부터 23일까지 총 거래량은 100g 단위로 소형화한 것이다. 하지만 거래활성화를 위해 거래단위를 낮췄지만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A증권사 연구원은 "거래단위를 낮춰 시장의 규모를 작게 만들기 때문에 영세업자들이나 개인이 미니금선물시장에 관심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며 "거래소에서 홍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산인 금이 부각되며 금값이 고공 행진을 이어가자 금 관련 금융상품 수익률과 인기가 동반 상승하고 있지만 미니금선물 시장은 냉랭한 기운이 돌고 있다.

미니 금선물은 종전에 1kg 단위로 거래가 이뤄지던 금 선물을 100g 단위로 소형화한 것이다. 하지만 거래활성화를 위해 거래단위를 낮췄지만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A증권사 연구원은 "거래단위를 낮춰 시장의 규모를 작게 만들기 때문에 영세업자들이나 개인이 미니금선물시장에 관심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며 "거래소에서 홍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니금선물시장이 유동성공급자(LP) 위주의 특성이 있다 보니 LP물량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거래가 주춤하면서 전체 거래량이 급감한 것이다.

실제로 증권 및 선물사의 미니금선물을 거래량은 7월 한 달간 평균 1110계약이었지만 8월 들어 일평균 330계약 수준으로 줄었다.

B증권사 관계자는 "미니금선물을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해왔던 일을 하면서 부가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미니금선물 유동성 공급에 집중을 할 수 없는 것도 거래가 줄어든 이유중 하나다"고 설명했다.

이재현 기자 nts0118@

증시 요동... 맥 못추는 '암축펀드'

33개 평균 수익률 1.9% 그쳐

펀드명	1주일	3개월	6개월	연초후	월초후

<tbl_r cells="6" ix="3" maxcspan="1" maxrspan="1"

시공 넘는 '스마트 물류'로 글로벌 기업 도약

Winners Club 대한통운



대한통운(대표 이원태)은 1930년 창립한 조선미곡창고주식회사와 조선운송주식회사를 모태로 하는 한국 물류산업의 혁신 기업이다. 항만 하역을 비롯해 육상 운송, 철도 운송, 택배, 물류 센터 운영 등 물류 전 부문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최적의 토클 물류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국내 최대 물류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대한통운은 전국 23개 주요 항만에서 총 78개 선적의 컨테이너 부두, 일반화물 및 잡화 부두를 운영하는 동시에 전국 4개소에 대단위 복합 물류 단지를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육상 운송과 철도의 병행 운송이 가능한 복합 물류 네트워크를 운영 중이다.

대한통운은 과거 8600억 원 규모와 88서울 올림픽, 2002 한일 월드컵 등 국제 대회 전 담 물류 업체로서 대회 성공에 기여했다. 최근에는 오는 27일 개막되는 대구 세계 육상 경기 대회와 내년 여수 엑스포 물류 운영사로 선정됨으로써 국제 행사 대표 물류 업체임을 공고히 했다.

또한 첫 육로를 통한 대북 양곡 지원을 비롯해 양곡과 비료 등 대북 지원 물자의 하역, 운송을 수행하는 등 대북 물류 전 담 기업이기도 하다.

이미 국내 최대 항만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대한통운은 지금도 항만 인프라 확충에 힘을 쏟고 있다.

국내 최대 물류 네트워크... 항만 인프라 구축 전력 총 1만 6000여 택배 취급 점망 '스마트 시스템' 구축

개 선적 운송사 선정 입찰에서 컨소시엄을 이뤄 운영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 달에는 부산 신항 배후부지의 대한 통운 BND 2단계 물류 센터가 운영에 들어가면서 부산 신항에서의 사업 역량이 더욱 강화됐다.

이 물류 센터의 부지 면적은 국제 규격 축 구장 4개 넓이에 달하며 다수의 컨테이너를 장치할 수 있는 약점을 갖추고 있다.



컨테이너 선박 MSC MAEVA호에서 하역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대한통운은 과거 고리 원자력 발전 1호기 를 비롯해 월성, 신월성 1·2호기, 영광 원전, 당진리 발전소 등의 발전 및 건설 기자재를 수송한 경험으로 원전 및 중량 물 운송 부문에서 독보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업 역량은 대한통운이 올해 3월 한국 전력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프로젝트 국제 물류 입찰에서 1순위 업체로 선정되면서 다시 한번 입증됐다.

이에 따라 대한통운은 오는 2020년 5월까지 한국과 미국, 일본의 원자력 발전 기자재 공급사로부터 아랍에미리트 수도 아부다비의 브리카 원전 건설 현장까지 원전 건설 및 발전 기자재의 해상 운송과 현지 항만 하역, 중량 물 운송, 컨테이너 운송 등 물류 전 과정을 담당한다.

택배 부문에서는 국내 택배 업체 중 가장 많은 전국 1만 6000여 개 취급 점망을 바탕으로 지난해 국민 1인당 연간 4회 이상 이용한 수준인 2억 2600만 상자를 취급했다. 올해는 상반기 기준 1억 2200만 상자를 취급해 전국 민이 1인당 2.5회 이상 이용한 수준의 물량을 소화했다.

대한통운은 최근 '스마트 물류 리더 대한 통운'을 슬로건으로 정하고 정보 기술을 통한 고객 만족 극대화와 물류 업계 스마트화를 이끌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마트 물류는 유비쿼터스와 디지털 컨버전스를 구현하는 새로운 물류를 말한다.

대한통운은 이를 위해 업계 최초로 택배 운송장에 인쇄된 QR 코드로 간편하게 택배 배송 추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에 들어가는 등 택배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한통운은 이외에도 글로벌 통합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전사 차원의 스마트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전보기자 jb@

다이제스트

동양종금증권 파생결합증권 9종

동양종금증권은 오는 26일까지 원금보장형 DLS 1종, 원금보장형 ELS 2종, 고수익 조기 상환이 가능한 원금비보장형 ELS 6종 등 파생결합증권 9종을 총 600억 원 규모로 공모한다고 23일 밝혔다.

DLS 78호는 CD(양도성 예금증서) 91일물의 최종 기수익률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원금보장형 상품으로, 만기 2개월에 최고 연 3.81%의 수익을 제공한다. ELS 172호는 만기 6개월의 원금보장형 상품으로 KOSPI200과 HSCEI 중 어느 하나라도 종가 기준으로 만기 평가일까지 최초 기준지수(100%)의 115%를 초과해 상승한 적이 있으면 2%의 절대 수익을 지급한다.

LIG투자증권 전국투어 투자설명회

LIG투자증권은 오는 27일부터 총 5회에 걸쳐 오르다 아카데미 전국투어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오르다 아카데미 전국투어에는 정대균·조일교·이동훈·손태건 씨 등 전문가 10명이 강사로 나선다. 이번 투자설명회를 통해 LIG투자증권은 하반기 유망주, 슈퍼개미의 매매법, 연말 증시 전망 등 다양한 주제로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고급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CREON
CREATIVE TRADER 2011
comm.creontrade.com

총 100억의 투자 기회를 가져라

국내 최대 주식투자 서바이벌

NAVER + Mobile 크레온

대회 특징 · 참가금, 참가자격 제한 없음 · 그룹별로 선별하는 모두를 위한 투자 대회 · 단순 수익률이 아닌 미션 수행을 통해 진행되는 서바이벌 방식

참여방법 가까운 은행에서 대신증권 계좌 개설 → 크레온 커뮤니티 사이트(comm.creontrade.com) 가입 → 참가 신청

대회 진행 방식

Top 10 선별리그(실전 투자 방식, 13주)

· 6개 그룹(대학생·주부/직장인·직장여/투자동호회/전업투자자)

· 4개 미션을 통해 Top 10 진출자 선발

* 대학생 그룹은 모의 투자 방식을 통한 별도 선별로 100억 리그 합류

100억 리그(모의 투자 방식, 8주)

· Top 10에게 각 10억 원의 투자금 배정(총 100억 원)

· 투자 수익금을 리그 순위에 따라 상금으로 치등 지급(최대 100%~최저 30%)

* 총 상금 합계 100억 원 초과 시 인분지급

총상금 합계 100억 원 · 일별 수수료 0.011%, 수익 수수료 0.0088%(+월 15,000원) · 수수료 기준 일자 6월 20일 · 제세공과금 22%는 본인 부담 · 크레온은 대신증권 은행연계 계좌를 활용한 온라인 주식거래 시스템입니다. 당시는 위험성, 수익성, 수수료, 해지방법 등 금융 투자 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직원으로부터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주식거래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한국 금융 투자 협회 심사필 제1-3876호 [2011.07.08~2011.12.29]

펀드 텁방 KB자산운용 '코리아스타 주식형 펀드'

"기본에 충실한 투자"... 수익률 상위 7%

'어려울수록 기본에 충실하라'! 서두르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기본을 단단히 다져 놓으면 아무리 힘든 역경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으로 지금처럼 한자 앞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되새기게 되는 말이다.

KB자산운용의 'KB코리아스타 주식형 펀드'는 2006년 1월 설정된 후 시장의 단기적 상황이나 유행에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고수하는 기본에 충실한 투자를 하고 있는 정통 주식형 펀드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인 초과 수익을 꾸준히 추구하는 KB자산운용의 운용 철학을 고스란히 실천하고 있는 이 펀드는 상위 25%의 성과를 목표로 한다. 얼핏 보면 투자자들의 구미를 당기는 수준의 수익률은 아니다.

하지만 설정 후 목표한 수익률을 꾸준히 유지한 결과 5년 누적 수익률은 78.39%(제료인, 2011년 8월 22일 기준)를 기록하며 수익률 상위 7%에 이름을 올렸다.

이석원 KB자산운용 주식 운용본부 이사는 "KB코리아스타 펀드는 특정한 상황이나 시기나 유행에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고수하는 기본에 충실한 투자를 하고 있는 정통 주식형 펀드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인 초과 수익을 꾸준히 추구하는 KB자산운용의 운용 철학을 고스란히 실천하고 있는 이 펀드는 상위 25%의 성과를 목표로 한다. 얼핏 보면 투자자들의 구미를 당기는 수준의 수익률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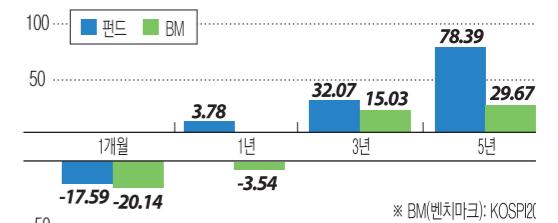
하지만 설정 후 목표한 수익률을 꾸준히 유지한 결과 5년 누적 수익률은 78.39%(제료인, 2011년 8월 22일 기준)를 기록하며 수익률 상위 7%에 이름을 올렸다.

이 이사는 "KB코리아스타는 단기 고수익보다는 중기적으로 상위 20~25% 정도의 성과를 인정적으로 유지하는 펀드를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라며 "수익률이 낮아지더라도 투자자들이 길게는 한 분기 정도만 기다려 준다면 가입 후 언제나 편안한 잡자리에 들 수 있는 펀드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보기자 jb@

KB코리아스타 수익률

단위: % (2011.08.22)



가면서 선두 기업을 위협하는 종목을 선호한다.

인터넷 포털 기업인 다음이 대표적이다.

이 이사는 "업계 1위인 NHN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지만 꾸준한 이익을 내고 있고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4년 이상 길게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웅진코웨이와 오리온의 비중도 높은 편이다. 필수 품이 된 정수기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거나 사람들의 입맛이 갑자기 변할 가능성이 낮은 만큼 수익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안정성과 꾸준함을 추구한 결과 올해 초 주식 시장을 주도했던 화학주의 비중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성과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 이사는 "KB코리아스타는 단기 고수익보다는 중기적으로 상위 20~25% 정도의 성과를 인정적으로 유지하는 펀드를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라며 "수익률이 낮아지더라도 투자자들이 길게는 한 분기 정도만 기다려 준다면 가입 후 언제나 편안한 잡자리에 들 수 있는 펀드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보기자 jb@

토종 OS 개발·신제품 양 날개로 높이 날다

종목 레이더

한글과 컴퓨터

부각되고 있다"며 "대기업들과 손잡고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 체계에 대응하는 한국형 OS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글과 컴퓨터가 정부의 토종 모바일 OS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한글과 컴퓨터의 신제품 출시 소식도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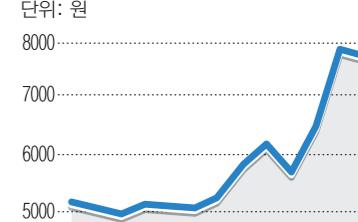
결호재에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5년 강통이란 이름을 쓰는 투자자는 "절대 팔아서는 안된다"며 "매물 대 없이 파죽지세로 급등해 한 달 후에 보면 깜짝 놀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투자자는 "내일부터 상한가

한글과 컴퓨터 주가 추이

단위: 원



랠리를 기대해보자"고 말했고 "상한 가격 5번 기록해도 절대 매도하지 말라"고 권하는 투자자도 있었다.

한편 또 다른 투자자는 "한글과 컴퓨터가 모바일 OS를 정말로 만들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토종 모바일 OS가 나오면 지금 나와 있는 OS들보다 더 좋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보기자 jb@

中 기업 여전히 低평가 … 이머징 시장 추락 때도 '선방'

혼돈의 글로벌 증시, 다시 주목받는 중국 본토 펀드

내리막 길을 걷고 있는 해외펀드 시장의 유일한 대안으로 중국본토 펀드가 재차 관심을 받고 있다. 긴축정책 우려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내수성장을 바탕으로 경기 연착륙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달 초 미국과 프랑스의 신용등급 하향조정 여파에 이어징(MSCI이머징) 시장이 10% 이상 떨릴 때도 중국 시장은 마이너스(-) 4%를 기록하며 선방했다. 단단한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대내외 악재를 이겨낼 만한 내용을 쌓았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펀드 전문가들 역시 중국 기업들의 이익 성장률에 비해 여전히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며 중국본토 펀드는 앞으로도 '인기몰이'를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익률 낙폭 제한적=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최근 해외펀드가 고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본토 펀드가 1개월 평균 수익률 -5%대를 기록하며 선방하고 있다.

실제 제로인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25개 중국본토펀드의 22일 기준 1개월 평균 수익률은 -5.69%를 기록하고 있다. 같은기간 전체 해외펀드 수익률 -12.39%를 6.7%포인트나 상회하고 있는 것이다. 코스피지수 급락으로 고전했던 국내주식형 펀드 -19.06%와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3개월, 6개월, 1년 등 장기 수익률도 각각 -7.47%, -11.66%, -0.88%를 기록하며 유형평균(-13.85%, -13.86%, -6.09%)을 꾸준히 웃돌고 있다.

개별 펀드별로는 'PCA China Dragon A Share자A- 1[주식]'

가 1개월 0.49%를 기록하며 유일하게 플러스(+) 성적을 거둔 가운데 미래에셋China A Share자 1[주식](-0.56%), 푸르덴셜중국본토자H[주식](-3.80%), 삼성CHINA2.0본토자 2[주식](-3.96%), 한국투자네비게이터중국본토자[주식](-4.2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펀드 전문가들은 중국본토 펀드에 대한 잠재적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우려에 인도·러시아 등 이머징 펀드들에 대한 투자 의견을 허향조정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우리투자증권 장준하 펀드애널리스트는 "산업 및 내수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을 감안하면 여전히 중국펀드 전망은 밝다"라며 "브릭스국가들의 투자 의견을 허향조정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긍정적'이란 당초 의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견조한 내수성장 버팀목=중국본토 펀드의 수익률 호조가 지속될 수 있었던 비결은 단단한 내수성장을 바탕으로 한 경기연착륙 기대감이다.

중국 통계국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총생산(GDP)은 20조 4459억위안(약 3353조 33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6% 늘었다.

GDP 성장률은 지난해 10.3%에서 올 1분기 9.7%, 2분기 9.5%로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둔화

폭은 시장 예상치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

30%를 넘어서는 통화증가율 역시 15%대로 낮아졌다. 비록 6월에 물가가 6.4%로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현재지변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한 것이어서 하반기에는 상승세가 둔화될 것이라 전망이 우세하다.

현대증권 김경환 연구원은 "시장관심이 펀더멘털로 이동할 경우 중국경제가 핵심변수이자 유일한 베팅목이 될 것"이라며 "3분기 중국경제가 9%대 성장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정책스탠스를 바꾼다면 시장엔 플러스요인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물론 하반기 인플레 압력과 구조적인 문제들(과잉유동성 및 지방정부 부실대출)로 인해

최근 1개월 해외펀드 평균수익률
-10%이하 기록할 때 中은 -5%
유일한 투자 대안으로 떠올라
펀더멘탈 단단… 연착륙 기대감
인플레 압력·긴축 우려는 변수

3년전 단행했던 '4조위안 부양책'과 같은 공격적인 정책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경기방어를 위한 효율적인 재정확장 정책과 12차 5개년 관련 투자는 계속 기대해 볼만하다"고 덧붙였다.

물론 중국의 긴축 우려감은 여전히 주요 변수다.

전문가들은 3분기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증

고점을 찍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 유동성 문제와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하반기 한차례 추가 금리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신영증권 김선영 연구원은 "중국정부는 '글로벌 쓰나미'로 인해 적정 성장을 유지하면서 물가 안정을 퍼하려던 당초 계획을 지켜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따라서 중국정부는 현재 물가수준에 따른 긴축보다는 대내외 사정을 고려한 점진적 긴축원화 정책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투자 전문가가 보는 중국 펀드

중국본토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작년 글로벌 주식시장의 호황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부진한 성과를 나타냈던 중국펀드들이 최근 들어 회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난 몇 년간 중국 본토 증시가 오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재 중국 증시가 저평가 상태라는 인식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동필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홍콩시장대비 중국본토 주식 시장의 상대성과는 그동안 부진하다가 2010년 중반 이후 점차 개선되고 있다"며 "중국 주식시장이 최근 바닥을 다지며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역시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계웅 신한금융투자 팀장은 "이번 급락을 기회로 생각하는 투자자 늘어난 모습"이라며 "특히 위기 진원지가 유럽·미국이다보니 중국이 향후 좀 더 반등할 수 있다는 선취미 영향으로 중국본토 펀드자금 유입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경제의 성장 모멘텀은 여전하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중

작년 호황기 때 상대적으로 부진

美·유럽 위기 진원지, 中 반등 기회

뭉칫돈 넣기보다는 적립 투자를

국본토펀드에 대한 투자를 권하고 있다.

서 연구원은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9.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고성장세 지속되고 있다"며 "경기선행지수가 반등하고 있어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긴축정책의 강도가 완화된다면 경기회복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중국본토 펀드는 물론이고 홍콩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 역시 본토의 움직임에 따라 기본적인 수익률이 결정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잠재력이 높은 본토시장에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플랫 신영증권 연구원도 "최근 미국 압달리, 신용등급 강등 등의 사태를 보며 미국의 패권이 아시아, 특히 중국으로 넘어오고 있다"며 "홍콩보다는 본토 증시가 가격이 저렴하고 투자매력도 높아 투자에 나설만 하다"고 설명했다.

중국본토펀드가 저평가로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싸다' 혹은 '비싸다'라는 판단은 시장 상황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뭉칫돈을 집어넣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적립투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오 연구원은 "중국 증시의 벤류에이션이 크게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여기에 더블딥 우려 등으로 글로벌 시장이 안좋은 만큼 적립식 투자를 추천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 팀장 역시 "본토증시는 홍콩처럼 금융주 위주가 아니고 선진국 연계도 낮아 더 홍콩펀드보다 오를 가능성 높다"면서도 "인플레이션이 더욱 심화되고 있고 부동산 버블 또한 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여기에 부실대출 등으로 인한 중국정부의 증자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장기적 시각을 갖고 적립식 투자에 나설만 하다"고 권했다.

문선영 기자 moon@

펀드명	설정액	단위: 억원, %					
		1주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연초후
PCA China Dragon A Share자A- 1[주식]Class A	2,053	-2.31	0.49	-0.95	-9.52	-2.79	-12.54
미래에셋China A Share 자 1(H)(주식)종류A	78	-1.65	-0.56	-3.79	-10.50	-4.08	-10.60
PCA China Dragon A Share[한해지자]자A- 1[주식]Class A	1,317	-2.91	-1.48	-0.90	-7.01	4.54	-8.77
미래에셋China A Share자 2(H)[주식]종류A	714	-2.21	-2.97	-3.22	-6.23	-5.48	-5.90
미래에셋China A Share 자 1(H)[주식]종류A	1,217	-2.38	-3.16	-3.36	-6.52	6.78	-4.77
푸르덴셜중국본토자[주식]A	872	-1.17	-3.80	-4.44	-8.54	0.11	-6.40
삼성CHINA2.0본토자 2[주식](A)	183	-2.13	-3.96	-7.40	-13.12	-7.71	-13.21
한국투자네비게이터중국본토자[주식](A)	83	-1.87	-4.20	-5.58	-14.39	-1.31	-11.63
동양자이나본토주식자[주식]ClassA	46	-1.56	-4.52	-7.93	-13.87	-12.10	-8.98
KB국본토A주식자[주식]A	538	-2.29	-4.60	-4.78	-6.50		
한화증권[그린자]나A주식[파생]C/C12	752	-1.52	-4.75	-9.77	-15.32	-9.03	-13.52
삼성CHINA본토포커스자 2[주식]_A	70	-1.82	-4.88	-8.81	-13.01	-11.40	-15.56
산은차이나스페셜[주식]자[주식]C1	82	-2.55	-5.97	-5.77	-11.14	3.56	-7.62
PCA ChinaA/H적립식[한해지자]자- 1[주식]C/A	53	-2.57	-6.13	-7.93	-8.52	1.97	-9.31
한국투자네비게이터중국본토자 H[주식](A)	1,338	-2.46	-6.31	-5.46	-10.99	6.66	-7.00
삼성CHINA2.0본토자 1[주식](A)	1,496	-2.93	-6.47	-7.26	-9.85	2.40	-8.37
동양자이나본토주식자 H[주식]ClassA	580	-2.15	-6.55	-7.05	-9.63	-6.38	-1.52
삼성CHINA본토포커스자 1[주식]_A	877	-2.60	-7.26	-8.46	-9.61	-6.51	-11.44
한화증권[그린자]나A주식[파생]C/A	57	-2.32	-7.35	-9.58	-12.35	-1.27	-9.00
KB자이나A주식자[주식]-재간접클래스A	645	-3.20	-8.82	-10.54	-13.16	-3.01	-10.67
한국투자설렉트중국A주자 H[주식]-재간접(A)	452	-3.37	-9.10	-12.11	-14.58	-5.61	-12.68
신한BNP파리바나본토[IT]자 1[주식]-재간접(종류A 1)	1,301	-3.58	-9.40	-12.20	-14.67	-12.44	-20.74
하나UBSS우파자나AShareETF[자주식]-재간접ClassA	62	-4.08	-9.56	-12.21	-15.00	-12.38	-16.64
현대자이나주자 1[주식]-재간접종류A	67	-3.48	-9.82	-12.68	-14.71	-5.26	-12.86
IBK증국본토[주식]-재간접(A)	72	-3.59	-11.00	-14.51	-17.54	-16.09	-21.07
중국본토주자 펀드 단순평균 수익률		-5.69	-7.47	-11.66	-0.88	-10.07	
H시장주자 펀드 단순평균 수익률		-13.76	-16.95	-14.69	-7.57	-15.41	
해외주식형 펀드 단순평균 수익률		-12.39	-13.85	-13.86	-6.09	-15.17	

*자료: 제로인

강력추천 ★★★★★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증권시장의 비화를 통해 바른 투자의 중요성을 전한 독창적인 주식투자 안내서! _고승덕 변호사

위린 베팅의 투자 원칙을 실천해 작전 세력을 이기고 증권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최고의 비법서! _이민주 베팅연구소장

검찰 출입 기자가 희대의 주가조작 사건을 파헤치며 터득한 성공 투자 노하우



안형영 지음 | 360쪽 | 정가 18,000원

투자 달인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작전 세력 삼진법

주식투자

강남 전셋값 주춤…숨고르기 들어갔나

은마아파트 113㎡ 최근 1억 가량 내려 거래
시장선 “대치동 재건축 본격 이주땐 다시 상승”

얼마전까지만 해도 고공행진을 거듭하던 강남권 아파트의 전세값 오름세가 주춤해졌다. 전세를 찾는 문의가 눈에 띄게 줄었을 뿐만 아니라 가격도 미미한 수준이지만 약세로 돌아섰다.

올 초 3억원대 초반이었던 은마아파트 113㎡ 전셋값은 7월 5억5000만원까지 급등했다가 최근에는 4억5000만원 선으로 1억원 가량 내렸다. 103㎡도 소폭 하락한 2억8000만원에 계약되고 있다.

대치동은 마공인중개 관계자는 “여름방학 수요 세력으로 인해 한동안 전세물건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전세 물건이 나오고 있다”며 “집주인은 호가를 높여부르는데 그렇게 전세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집주인들도 전셋값을 조금씩 낮추기 시작했다. 인근 대치우성1차 103㎡도 5000만원 가량 내린 4억5000만원, 개포우성1차 103㎡ 5억원에 전세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파트 10가구 중 6가구 물가상승률보다 못 올라

전국 아파트 10제 중 6제의 매매가 변동률이 물가상승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주택시장이 미국 신용등급 하락, 유럽재정위기 등 글로벌 경기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성장둔화와 물가상승이 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씨브에 따르면 1~7월까지 소비자 물가 평균 상승률은(전년 동기 대비) 4.4%를 나타냈으나, 수도권 집값은 오히려 떨어졌다.

아파트 가격이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인 곳은 수도권이 대표적이다. 서울 집값은 0.66%가 하락했으며, 경기 1.04%, 인천 2.04% 등도 모두 가격이 내렸다. 물가 상승률이 4%대를 계속 유지하는 반면,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7월 현재 물가상승률은 4.7%를 기록하면서 집값 상승률과의 차이는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경북과 충남 지역의 집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하지만 각각 3.40%, 3.49%로 나타나, 역시 물가상승률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처럼 올 7월 현재 물가변동률에 미치지 못한 지역내 총 아파트 가구수는 385만3026가구로 조사됐다.

김성배 기자 sbkim@



은마아파트 113㎡ 최근 1억 가량 내려 거래
시장선 “대치동 재건축 본격 이주땐 다시 상승”

얼마전까지만 해도 고공행진을 거듭하던 강남권 아파트의 전세값 오름세가 주춤해졌다. 전세를 찾는 문의가 눈에 띄게 줄었을 뿐만 아니라 가격도 미미한 수준이지만 약세로 돌아섰다.

이 같은 강남권 전셋값 주춤 현상은 정실아파트 등 재건축 이주 수요가 주석 이후로 늦어지고 있는 것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정실아파트 1차 이주시기는 10월 말, 2차 이주시기는 12월 말이다. 이미 1차 이주수요는 전셋집을 구했지만, 2차 이주수요자들은 정부정책 등 시장 분위기를 지켜보고 있다. 정실아파트 공인중개 관계자는 “정실 아파트 이주시기가 늦어지고 있고, 1차 이주수요는 전셋집을 대부분 얻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강남 전셋집 움직임이 단기적인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일 뿐 안정세로 돌아선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의 분석이다.

부동산114 이호연 팀장은 “강남권 전세 상승세는 8월초에 비해 일시적으로 둔화

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하지만 대치동 청진이 10월 말까지 이주가 이어질 예정으로 강남 전세 상승세는 가을 하반기에 소폭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전세거래 건수는 8월 들어 전달에 비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씨브에 따르면 전세거래 건수가 지난달 869건에서 8월 들어 23일 기준으로 692건이 거래됐다.

1일 기준으로 보면 7월에는 28건, 8월에는 30건으로 1일 평균 2건 정도 더 거래가 이뤄졌다.

부동산씨브 합영진 실장은 “전세가격은 아직 가을철 성수기가 아니라서 이달 말까지는 저기어야 할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이미정 인턴기자 lmj@

세종시 민간아파트 내달부터 분양 시동

극동건설 내달 732가구 스타트

포스코건설 10월 1139가구 분양

내달부터 세종시내 민간 아파트 분양이 본격화된다.

세종시는 ‘세종시 첫마을’ 1·2단계 분양 성공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밸리 거점지구 지정 등 각종 개발 호재로 인한 수혜지역으로 각광받고 있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내달 극동건설은 포스코건설, 중흥건설, 원건설 등이 연내 분양에 나선다.

분양가는 3.3㎡당 700만원대 후반에서 800만원대 초반 대가 예상된다. LH가 분양한 첫마을 아파트와 비교하면 다소 높은 가격이지만, 브랜드 인지도 및 한층 고급화된 시설 등을 무기로 수요자들을 끌어모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먼저, 극동건설은 9월 시범생활권 1·4구역 M4블록 ‘운전 스타클래스’ 732가구를 분양한다. 전용면적 83㎡ 310가구와 115㎡ 418가구로 구성됐다. 이어 10·11월에 L2·L3 블록 610가구를 분양한다는 계획이다.

포스코건설은 오는 10월 1·5생활권 내 M1과 L1 블록에서 ‘세종 더샵 센트럴시티’와 ‘세종 더샵 레이크파크’ 2개 단지를 분양한다. M1블록 세종 더샵 센트럴시티는 지하2층·지상26층 8개동 전용면적 59~110㎡ 총 626가구로 구성된다. 중앙행정타운과 맞닿아 있어 도보로 출·퇴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국립도서관과 아트센터 등이 건립될 예정이어서 입지가 탁월하다는 평

연내 세종시 민간분양 예정 아파트

블록	총세대수 (일반분양)	분양 면적(㎡)	면적분포 (공급,㎡)	건설회사
시범1~4생활권(M4)	732	9	미정	극동건설
1~2생활권(M3)	1969	10	95~138	대우건설
1~2생활권(L3)	626	10	95, 112	대우건설
시범1~5생활권(M1)	611	10	미정	포스코건설
시범1~5생활권(L1)	528	10	미정	포스코건설
시범1~3생활권(L3)	702	11	미정	한신공영
시범1~4생활권(L3)	300	11	미정	극동건설
시범1~4생활권(L2)	310	11	미정	극동건설
시범1~4생활권(M2)	965	11	69~106	중흥건설

주)조사일: 9월 3주차 / 건설사 일정에 따라 분양일정 및 물량 달라질 수 있음

※자료:부동산114

가다. L1블록 ‘세종 더샵 레이크파크’는 지하1층~지상12층 15개동 전용면적 84~118㎡ 총 511가구로 구성된다. 61만㎡ 규모의 국내 최대 중앙호수공원이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데다 65만㎡ 규모의 국립수목원과 근린공원이 인접해 편리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대우건설은 1·2생활권에 10월초 L3블록 622가구와 M3블록 1969가구 등 총 2591가구를 공급한다. 세종시에 분양하는 민간 아파트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중소형 면적 비중이 전체의 93%를 차지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전망이다. 용적률이 각각 175%, 129%로 낮아 타 단지에 비해 폐적화하는 게 분양 관계자의 설명이다. 중견건설사인 중흥건설도 1·4생활권 M2 블록에서 전용면적 59㎡의 임대주택 965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상혁 기자 daniel@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 동영상 DVD”

2011년 완전개정판, 합격률을 99%!!

2011년 10월 23일은 ‘22회 공인중개사 시험 예정일’입니다.

2011년 완전개정판 강의를 수록한 ‘신바람 공인중개사 동영상 강의 DVD’ 그동안 신바람 공인중개사 시리즈로 공부하여 합격한 여러 선배 중개사들이 보증한 동영상 DVD입니다. 믿고 선택하여 공부하면 나도 합격이 가능합니다.~



피부미용사 동영상 강의
198,000원 (교재별도)

■ 부동산학 개론 (DVD 3장/42강차)

■ 민법 및 민사특별법 (DVD 3장/42강차)

■ 중개법 및 중개실무 (DVD 3장/42강차)

인터넷 판매처

YES24.COM AUCTION G MARKET KYOBOKBOO KYOBOKBOO TECHNO DVD SmarDVD movie4989 OZDVD.co.kr BANDI & LUNIS E-MART mall.com

인터넷판매처

날마다 오르는 장바구니 물가 주부 괴롭다

경기도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 A씨(55)에게는 수개월째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 있다. 웬만한 먹을 거리는 모두 올라 하루하루 식단을 짜기가 곤혹스러울 정도기 때문이다. 그나마 요즘은 위안거리가 있는데, 일부 품목의 가격이 상승세를 멈췄기 때문이다. 특히 몇몇 품목은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가격이 내리기까지 했다.

그런데 이게 또 다른 고민을 만든다. 가격이 오르지 않는 품목으로 식단을 짜려면 아예 가족들의 입맛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설과 함께 가장 큰 명절인 추석까지 앞두고 있어 추석 상에 내놓을 음식까지 바꿔야 하는지도 고민거리다.

이처럼 올 여름 대한민국 주부들은 추석 제수용품 장만과 가정식단을 새로 만들어야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최근 태풍 및 폭우피해를 입은 농산물들로 인해 추석을 앞두고 가격이 전정부지로 치솟아 주부들이 지갑을 열기가 부담스럽다. 가격이 오른 대표적 농산물로는 배추, 붉은 고추, 참외, 배 등의 채소류와 과실류다.

23일 농수산물 유통공사에 따르면 배추의 소매가는 장미가 시작된 6월부터 지난달까지 계속 올랐다.

6월에 포기당 평균 1217원 하던 가격이 다음달에는 1739원으로 상승했다. 붉은 고추도 지난 6월 100g 당 1005원 하던 것이 7월 1093원, 8월 1097원으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붉은 고추와 배추의 가격 상승으로 국민 대표 반찬인 김치는 '금(金) 치'가 됐다.

참외도 두 달 전 10개당 1만9455



채소·과일값 천정부지 지갑열기 두려워

일부 식료품값 내렸지만 가계 부담 높아

한가위 차례상도 수입산이 점령할 듯

원 하던 가격이 7월에 2만283원, 8월에 2만1534원으로 치솟았다. 배(10개당)도 6월에 3만7132원, 7월에는 4만1955원 8월에 4만3737원으로 상승했다. 닭고기(마리당)는 7월에 5972원이었으나 이달 6316원으로 가격이 뛰었다.

이 같은 시장상황이 계속된다면 3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 차례상에는 닭고기와 배, 참외가 빠진 '홍동백서'가 등장할지도 모른다.

반면 이달에 가격이 내려간 품목들도 있다. 특히 마늘과 가지, 메론 등의 채소류와 바나나, 포도 등의 과실류, 축산물, 수산물 일부 품목의 소매가격이 하락했다.

마늘(1kg당)은 지난 6월부터 6699

원까지 하락했다. 새송이버섯 가격은 100g당 지난달 627원에서 이번달 622원으로 소폭 내렸다.

과실류에서는 포도와 전망 수입되는 바나나의 가격이 지난달에 비해 하락했다. 포도종류 중 켐벨은 1kg당 지난달 평균 8930원에서 이달 7991원으로, 거봉도 1kg당 7월 1만257원에서 8월 9491원으로 떨어졌다.

축산물분야에서는 한우갈비와 삼겹살이 하락했다. 한우갈비(500g 당)가 7월 2만3566원에서 2만2711원으로, 삼겹살도 한우갈비와 같은 기준으로 지난달 1만1798원에서 이달 1만758원으로 하락했다. 고등어(중품) 가격도 마리당 지난달 4082원에서 이달 3840원으로 내렸다.

주부 A씨는 "일부 식료품의 가격이 내려 우리 같은 서민의 부담은 줄었지만 김치와 닭껍, 배를 즐겨먹던 우리 가족의 입맛을 가지무침과 고등어, 바나나 등으로 충족할 수 있을지 고민"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농축수산물의 가격 변동으로 처음에는 제수용품 장만에만 고심했는데 일반 가정 식단도 당장 바꿔야 할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박태진 기자 tippopo@



첫 수확이지만…죽정이만 남았네

강원지역에 23일 올해 첫 벼베기가 시작됐지만 작황 부진으로 농민들의 표정이 밝지 않다. 짧은 비로 올해 햅쌀 수확량은 평년보다 25~30%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도에서 가장 먼저 벼를 수확한 양구군 박봉화씨가 죽정이가 20%나 되는 벼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원룸임대 중개사이트 괴롭다

공정위 밝혀

월세방을 구하던 대학생 K씨는 아파트형 원룸이 시세보다 매우 싸게 나온 인터넷 광고를 보고 중개업자를 찾아갔다. 하지만 중개업자는 광고보다 2~3배 비싼 다른 원룸을 소개했다. K씨는 중개업자에게 광고와 다르다고 항의하자 중개업자는 공동화장실을 사용하는 낡은 다세대 주택을 보여주며 광고와 같은 가격대의 원룸은 이런 곳 밖에 없다며 K씨에게 면박까지 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원룸임대 중개사이트들이 전·월세난 가중으로 인한 대학 주변의 부족한 원룸임대 매물 현상에 편승해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 현재 온라인을 통해 원룸임대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전국에 약 50여개에 달한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온라인 부동산 광고 자율규약'에 기입된 부동산 포털사이트 등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임대원룸을 검색할 것을 권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잘 꾸며진 원룸 사진을 게재하고 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인 요즘 원룸임대 중개사이트들이 전·월세난 가중으로 인한 대학 주변의 부족한 원룸임대 매물 현상에 편승해 허위·과장 광고"라고 말했다.

이진영 기자 mint@

올 평균 임금인상을 5.2%

작년 동기보다 0.6%p ↑

올해 임금협상을 마무리한 사업장의 평균 임금인상을 5.2%로 지난해보다 높게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 8458곳 가운데 7월 말까지 임금협상을 타결한 3636곳의 협약 임금(정액급여+고정상여금)의 인상률이 4.1%로 집계됐다. 또 임금교섭 타결률(임금교섭 타결 원료 사업장 비율)은 43.0%로 지난해 같은 때의 22.5%보다 무려 20.5% 포인트나 높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인상률(4.6%)보다 0.6%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상반기의 높은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 데다 공공부문의 높은 인상률이 민간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1~6월 중 우리나라 소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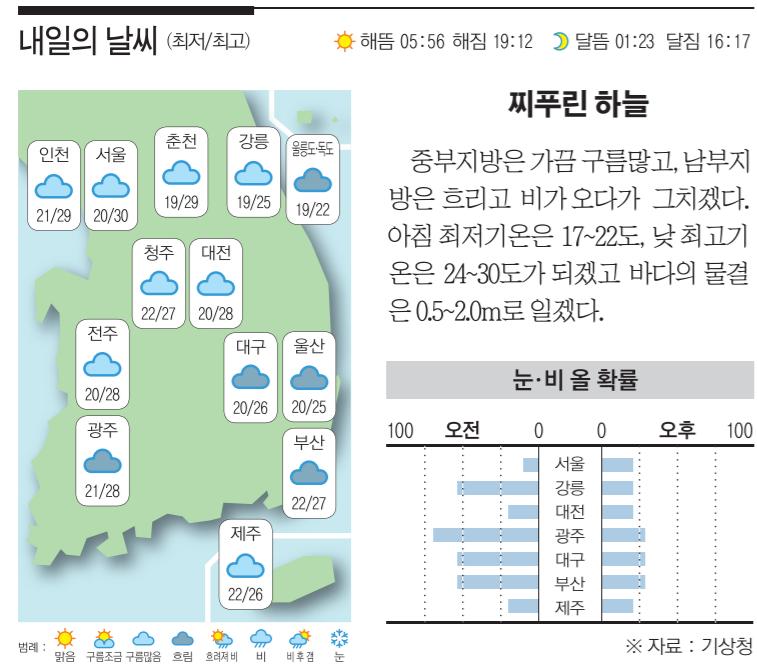
대입수능시험
오늘부터 원서접수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24일 시작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은 오는 11월 10일 실시되는 수능 응시원서를 24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토·일요일을 제외한 평일(오전 9시~오후 5시)에 원서를 낼 수 있다. 이미 원서를 냈더라도 9월 8일~9월 8일 3일 동안 시험영역이나 과목 등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교에서, 졸업자는 출신 고교에 원서를 내야 한다. 준비물은 원서 1장과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여권용 사진 2장, 응시수료증, 신분증 등이다.

유충현 기자 lamuziq@



추석선물 '한우세트'가 대세

과일값 폭등 영향

예약판매 50% 늘어

올해 추석선물은 '한우갈비세트'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짧은 폭우에 과일값이 급등하고 굽비 어획량이 감소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한우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23일 이마트가 지난 9~22일 전 행된 추석 선물세트 예약판매 실적을 집계한 결과 올 상반기 구제역에 따른 수요감소와 사육두수 증가로 가격이 저렴해진 한우갈비 선물세트의 일평균 매출이 작년 예약판매 기간(8월23~9월1일) 대비 53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이상기온의 영향으로 어획량이 크게 줄어든 굽비 선물세트는 지난해보다 30% 가량 감소했다.

가장 인기 있는 추석 선물세트였던 과일은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작년 대비 한자릿수 신장하는데 그쳤다.

과일 가격이 비싸지면서 건강식품을 찾는 소비자도 증가했다. 조미료, 커피, 건강식품 등으로 저렴해진 한우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전체 추석 선물세트 예약판매 일평균 매출 역시 지난해와 비교할 때 405% 늘었다.

이마트 관계자는 "올해 추석 선물세트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 범위·단체등 대량구매 고객들이 할인혜택이 있는 예약판매로 많이 몰려 작년보다 실제로 좋아졌다"며 "지난해 전체 추석선물세트 판매 중 예약판매가 53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선애 기자 lsaa@

대입수능시험 오늘부터 원서접수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24일 시작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은 오는 11월 10일 실시되는 수능 응시원서를 24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토·일요일을 제외한 평일(오전 9시~오후 5시)에 원서를 낼 수 있다. 이미 원서를 냈더라도 9월 8일~9월 8일 3일 동안 시험영역이나 과목 등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교에서, 졸업자는 출신 고교에 원서를 내야 한다. 준비물은 원서 1장과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여권용 사진 2장, 응시수료증, 신분증 등이다.

유충현 기자 lamuziq@

독일에서 '휴식' 열풍을 일으킨 바로 그 책!

지금 우리에게는 '할 수 있다'는 응원이 아니라 자신감과 용기를 회복시켜 줄 '휴식'이 필요하다

독일 최고의 과학 저널리스트가 밝혀낸 창조적 휴식 설계의 기술

세계 역사상 유례 없는 경제 발전을 이뤄낸 한국인이 가장 못하는 것이 있다. 바로 휴식이다. 휴식은 자신과의 화합! 김정운(KBS 명작스캔들 진행, 명지대 교수, 여러가지 문제연구소장)

책상 앞에 앉아 있는 10시간보다 30분의 산책이 훨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올리히 슈나벨은 증명했다. _도이체 베스트

이 책은 휴식이 주는 창조성과 재생력을 제조하고 우리의 일상에 사소한 휴식 습관을 뿌리내리게 만들어 우리를 행복의 중심으로 이끌어준다. _인라이프

허겁지겁 바쁜 일상은 우리를 쉽게 지치고 짜증내고 우울해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하며, 다른 사람의 아픔에도 둔감하게 만든다. 휴식은 그런 부정적 흐름을 끌어주는 제어장치다. _주간경제 비르트샤프트보케

행복의 중심 휴식
올리히 슈나벨 저 / 김희상 옮김 | 15,000원

바른교육 큰사람 글로벌 교육문화기업 웅진씽크빅
같은나무는 웅진씽크빅의 단행본개발본부의 출판 브랜드입니다. 문의 02-3670-1144

사랑드릴게
자꾸나는자갈개

www.wjbooks.co.kr

금융계 MB의 두 남자 '엇박자'

〈어윤대·김승유〉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

정부 대출규제정책이 뭐길래

예대율 규제 강화 등 정부정책에 발맞춰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은 같은 날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 자리으로 서울 면목시장을 찾은 자리에서 "가계대출 문제는 직접규제도

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두 CEO가 정부정책에 대해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인 것은 주력 계열사인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간 가계대출 여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어윤대 회장 "규제 강화 정책 적극 지지한다"

김승유 회장 "대손총당금 통한 간접규제 필요"

좋지만 대손총당금을 이용한 간접규제도 필요하다"며 쓴소리를 했다.

사실상 금융당국의 무리한 총량규제가 가계대출 중단 등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한 것에 대해 두 CEO간 상반된 입장을 내비친 것.

어 회장은 정부정책에 더욱 호응하겠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김 회장은 간접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을

국민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율이 전월대비 0.2% 가량에 불과하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인 '가계대출 증가율 전월대비 0.6%'를 감안하더라도 3000억원 가량 신규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하나은행은 다르다. 하나은행은 가이드라인인 '전월대비 0.6%'까지 500억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

~600억원 가량 남았다. 가계대출 증가율을 조절하더라도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어 회장은 이같은 입장을 반영, "가계대출이 없으면 국민은행이 살 수 없다"며 "가능하면 실질적으로 자금을 필요로 하고 있는 가계에 대해서 더 공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안경주 기자 ahnk@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내놓은 대출 총량 규제와 후속대책에 대해 금융권 대표 최고경영자(CEO)인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과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서로 상반된 입장을 내비춰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어윤대 KB금융 회장은 지난 23일 세종마을 푸르메센터 컨벤션기금 기부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여신금융협, 소상공인 지원 업무협약

여신금융협회는 23일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왼쪽부터 김의성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최기의 KB 국민카드 대표이사, 홍용용 소상공인진흥원장, 이재우 신한카드 대표이사, 김경배 전국소상공인연합회회장, 미래희망연대 김혜성의원, 이우형 여신금융협회장, 임종식 중소기업청 청장, 이종호 비씨카드 대표이사, 오승근 한국IB금융 대표이사.



코오롱·원자력研, 방사선 융합 기술 협력

코오롱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방사선 융합 기술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자 김남수 코오롱 사장과 정연호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23일 코오롱 본사에서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중근 의사 뮤지컬 '영웅' 뉴욕서 개막

내달 3일까지 14회 공연
반기문 총장 오프닝 참석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를 다룬 뮤지컬 '영웅'이 미국 뉴욕 링컨센터 데이비드코크 극장에서 개막됐다.

'영웅'은 '하이로'라는 영문 이름으로 23일(현지 시간) 첫 공연을 시작했으며 내달 3일까지 14회간 펼쳐진다.

오프닝 공연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포함해 유엔 각국 대사 등이 참석해 뮤지컬을 관람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안중근 의사의 정성과, 이토 히로부미 의사의 김성기를 포함해 40여명의 배우가 무대에 선다. 제작비로는 약 250만 달러(약 28억원)가 투입됐다.

영웅을 연출한 윤호진(사진)에 이어 인터내셔널 대표는 "이번 공연을 통해 안 의사가 인류 평화를 위한 메시지를 던진 사람으로 각인된다"는 게 한국으로서는 훌륭한 일이 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정아름 기자 jar43@

사공일 무협회장 G20 준비회의 참석



김종수 한국은행 총재(사진)은 오는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2011년 G20 정상회의 비즈니스 서밋 준비회'에 특별 연사로 참석한다. 준비회에는 프랑스 정부와 세계경제포럼이 함께 개최한다.

에너지관리공 이사장 허증수씨

건설정책과 원장 노재화씨

에너지관리공단 신임 이사장에 허증수(51·사진) 경북대 교수 가 임명됐다. 허 이사장은 대구고와 서울대 재료공학과를 나와 인천대 교수를 지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신임원장에 노재화(사진) 전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이 23일 취임했다. 노 원장은 국토부에서 32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한 수자원 관리 전문가이다.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www.ietoday.co.kr

발행인·편집인 김상우 편집국장 김종현 광고국장 김진택
정치경제부 (02)799-2655 증권부 (02)799-2658 금융부 (02)799-2665
신사업부 (02)799-2664 국제부 (02)799-2650 온라인뉴스부 (02)799-2646
사회생활부 (02)799-2661 유통경제부 (02)799-2667 시장집 (02)799-2633
광고철수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신청 배달안내 (02)799-2603 / 260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600원
2010.10.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150-774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6 센터빌딩 6F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당신도 매일 깜빡깜빡하는가?

당신만 몰랐던 실수 종결자들의 23 가지 법칙!

실수를
만드는
10가지
사고 패턴

- 작은 사건을 보고 큰 사건이 일어날 것처럼 생각한다.
-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잘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모든 문제는 나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 난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다른 사람의 비난을 무조건 받아들인다.
- 모든 것에 백퍼센트 완벽해지고자 한다.
- 특히 나와 남을 비교한다.
- '만약에...'라며 사서 걱정한다.
- 무엇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다.
- '그렇긴 한데'라고 긍정한 뒤에 부정하는 생각이 있다.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은
절대 모르는 10가지 심리법칙

기고

기업도 재난관리시스템 절실



이기환

소방방재청장

주요 연구기관들은 지난 3월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일본의 산업피해와 관련, 현지 기업들의 직접피해액은 최대 25조엔(GDP 대비 5%), 간접피해는 11조엔~18조엔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지진과 쓰나미 피해를 입은 일본 기업들의 복구가 상당부분 진척됐지만 완전한 정상화는 올 가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업에서 발생 가능한 재난들에는 화재사고, 테러위협, 폭발, 전쟁, 과업, 공공시설의 마비, 건물붕괴, 태풍, 집중호우, 폭설, 지진, 지진해일 등이 있으며 이러한 재난은 예고 없이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다양한 재난 발생시에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얼마나 신속하게 정상적인 업무로 복구하느냐는 기업 생존에 결정적인 요소이다. 기업의 재난관리는 생존전략 차원에서 날로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미숙한 관리 기업생명 단축

왜냐면 미숙한 재난관리는 기업의 생명을 그만큼 빼리 단축시키기 때문이다.

재난 발생시 기업에서 손실을 줄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사전에 재난에 대비해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고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직원들이 재난시에 어떻게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렇듯 기업경영에서 영업이나 연구개발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재난관리이다. 오늘날 기업경영의 필수요소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도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지구촌 기상이변의 증가로 갖가지 재난위협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재난관리를 기업경영의 중요업무로 인식해야하고 최고경영자(CEO)와 전문성 갖춘 관리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발맞추어 정부도 기업의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해 4월 기업재난관리표준을 제정 고시하고 기업 재해경감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즉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이 인명 및 자산 등을 보호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재난관리 표준을 제시한 것이다.

더욱이 고시된 표준에 맞게 재해경감활동을 기업이 성실히 수행하면 재해경감우수기업으로 인증 받

아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설비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농공단지 입주우선권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은 아직도 태풍, 집중호우, 폭설,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활동 유지를 위한 예방·대비 능력이 여전히 취약한 상태다.

재난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는 기업시설은 물론 조업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제 조금씩 재난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예방부지를 하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미흡하다.

전담부서 등 예방투자 필요

현재 지진이나 해啸, 테러나 전쟁 등으로 기업의 핵심 데이터나 시설이 파괴됐을 때 복구에서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 이른바 기업들의 업무연속성 경영, BCM(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돼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등 선진국에서 체택되고 있다. 우리나라로 조금씩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금융권과 공기업, 대기업을 중심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다.

정부가 재난관리 우수기업에게 세제지원, 자금지원, 재해경감 설비자금을 지원받도록 하는 등 아무리 좋은 정책 제도를 내놓아도 기업이 외면하면 무용지물이다. 더 이상 소잃고 외양간고치는 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이제부터라도 기업들이 재난관리에 관심을 갖고 재난이 덕쳤을 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재난관리시스템의 운용 유지를 기업의 생존차원에서 검토하고 실행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인사

◆기획재정부(국장급 전보) △세제실 재산소비세정책관 문창용 △세제실 조세정책관 김형돈

◆외교통상부 △통상기획홍보과 장 김영준 △북핵정책과장 김상진 △인사운영팀장 이준호

◆환경부(국장급 전보) △자연보전국장 배규석 △자원순환국장 최홍진

◆한국콘텐츠진흥원△감사(비상임) 흥윤오

◆한국안전△상무이사 이효숙

◆한국도로공사 △경영본부장 심찬섭 △비서실장 박승갑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승진(부장) △NPL사업부장 한석오 △영업기획부장 장명기 △자금부부장 정찬길 △대치역지점장 김희필 △e-Banking전략연구소장 김경만 △심사부 박태석 (차장) △전략기획실

안호중 세제부 송병주 △대체자원부 김재현 △고덕수 △NPL사업부 장이홍정 △태양 △세관 △국제화 △감사실 김건웅 △개발금융부 이성규 △전자금융부 정현용 △I-Project팀 심영준 △e-Banking전략연구소 김태훈

◆동아대 △학생처장 박상갑 △생명자원과 대학대학장 진병래

▲정재식(개인사업) 재균(씨BMC 대표이사) △승석(대학교수) 중석(개인사업) 부석(삼성전자 상무) 정숙(주부) △모전상 = 23일 오전 3시20분, 삼성서울병원, 밤이 25일 02:30분 02-814-4444

▲박홍준, 장준, 석준(광주여 근무) 혁준(해병대 원사) △모전상 = 22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 금호장례식장, 밤이 24일 오전 9시 062-227-4000, 010-5085-8482

▲김영일(동아회원권 거래소 회장) △민정 = 23일 오전, 서울 강남동 동작경희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밤이 25일 오전 6시 130분 02-814-4444

▲심재산(한국예탁결제원 편집위원장) △민정 = 23일 오전 4시, 이화여자대학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밤이 25일 오전 7시, 장지 성안 천주교 묘역 02-2650-5122

▲이세원(연합뉴스 기자) △조모상 = 23일 오전 8시, 광주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밤이 25일 오전 8시 062-220-3352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

최첨단 골프과학의 결정체

SHURIKEN
슈리肯 골프

SHURIKEN DRIVERS 레드시리즈 탄생!

- 고반발 헤드로 비거리 향상과 하이드로샷 실현
- 마미야사의 최고급 마미야 OP 샤프트 장착



한국 총 수입원 (주)창전상사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85-10 / Tel : 02)582-6114



건강한 삶 ■ 이명

◇귀울림 환자 7년새 2배 증가 =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 따르면 '귀울림(이명)' 진료 환자는 최근 7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2년 14만 2000명에서 지난 2009년 26만 4000명으로 1.9배 늘어난 수치다. 귀에서 소리가 나는 '이명'의 형태나 강도는 개인마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흔히 가늘고 약하게 '삐~'하는 소리가 나타나고 매미 소리, 귀뚜라미 소리, 종소리 등의 불규칙한 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평소에는 생활소음에 묻혀 잘 인지하지 못 할 수도 있지만 전제 인구의 약 30% 정도가 약한 이명을 경험하고 있으며 약 1~5% 정도는 이명 때문에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경험해 병원을 찾는다.

완전히 방음된 공간에서는 약 95%가 20dB 이하의 이명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잠들기 전 조용할 때 '이명'이 있음을 처음 감지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렇게 한번 이명이 들리기 시작하면 계속 신경이 쓰여 더욱 또렷하게 들리는 게 특징이다.

◇이명 습관화시키는 치료 효과적= 수면 부족이나 피로가 누적될 때 이명을 느끼는 사람도 많다. 아직 확실한 메커니즘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사무직과 과로가 심한 청



이명은 잠들기 전 조용할 때 처음 감지하는 경우가 많으며 한번 이명이 들리기 시작하면 더욱 또렷하게 들리는 게 특징이다.

기능이 가장 활성화되는 죽시(丑時)에는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위기(衛氣: 인체를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기운)가 약해져 이명이 발병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수면부족에서 기인한 이명은 무엇보다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다. 수면장애환자의 경우 특별한 치료 없이 매일 15분씩 일찍 잠자리에 드는 '조기취침법'이나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온수목욕·낮잠제한 등 단순한 생활교정법을 1~2주 정도 꾸준히 실천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전영명 소리아비인후과 원장은 "이명은 하나의 증상일 뿐, 실제 그 자체가 질병은 아니라

장년층에서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시적인 증상은 잠시 쉬면 금방 낫지만 심신의 스트레스가 심하게 쌓이면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

수면의 질이 떨어진 상태가 계속되면 귀의 유모세포에도 영향을 줘 이명이 발생하게 된다. 유종철 마포소리청한의원 유종철 원장은 "한의학적으로 오전 1시~3시까지 즉, 간(肝)의

생활 속 이명 관리 TIP

- ▲이명이 생겼다면 큰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피한다.
- ▲가능한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 콜라, 흥차 등 신경자극물질은 피한다.
- ▲과도한 피로를 피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한다.

는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명은 하나의 증상이기 때문에 원인과 기전이 매우 다양하다. 때문에 이명으로 생기는 문제들을 잘 이해하고 개별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기존 치료법이 실제 이명을 없애는 데에 집중했다면, 최근에는 이명을 냉장고 소리나 컴퓨터 소리와 같은 중립적인 신호로 적응시켜주는 '이명제거치료법(TRT)'이 효과적이고 검증된 치료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전영명 원장은 "개별심리상담과 소리치료 등을 통해 '이명'을 생활속에서 습관화시키면 궁극적으로는 이명을 인식하지 않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며 "이명에 대한 철저한 이해로 불필요한 공포를 없애고 '머리 속의 자연스럽고 중립적인 소리'로 반응하도록 도와주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민정 기자 puri21@

Health in Life

여름이 더 고통스러운 남성들



전립선비대증 이렇게 잡아라

- ✓ 숙면으로 원기회복
- ✓ 채소로 식습관 개선
- ✓ 저녁에 맥주줄이고
- ✓ 쏘팔메토 등 복용

여름숙면으로 원기회복은 전립선비대증 환자들이 방심하기 쉬운

계절이다. 겨울에 비해 소변 양이 적어지고, 높아진 기운으로 요도 팔약 근 자극이 완화돼 일시적으로는 증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전문가들은 여름철엔 특히 생활 속에서 전립선 건강관리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전립선 건강을 위한 가장 좋은 전략은 숙면으로 원기회복 하는 것. 적어도 밤 11시부터는 숙면을 취하는 것이 좋다. 혈액에 면역력을 키워주는 글로불린 성분이 몸 속에서 분비돼 전립선 질환이 침투하는 것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

식습관 개선도 전립선비대증 예방을 위한 지름길이다. 기름진 음식과 동물성 지방에 치우친 식단은 멀리해야

하는 대신 불포화지방산이 많은 식물성 기름이나 올리브유를 섭취하도록 한다. 채소와 과일도 1주일에 5회 이상 식단에 올리는 것이 권장된다.

전립선 건강에 탁월한 효능을 보이는 식품들 있다. 많은 연구에 의해 쏘팔메토, 라이코펜, 호박씨, 콜 등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쏘팔메토는 아시아와 북미 인디언들이 전립선 비대증 완화를 위해 전해온 약재로 주출한 성분 식품의 약품인 전정에서 그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 받은 전립선 건강 대표 소재다. 인체 시험 결과 전립선 건강 및 이뇨, 배뇨 속도 느림 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라이코펜은 정소(음낭, 전립선 등)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 전립선의 DNA 손상을 억제해 유해물질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면역체의 기능 유지로 외부 유해물질로부터 전립선 조직을 보호해 질병 발생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립선 질환에 좋은 성분을 따로 섭취하기 어렵다면 이러한 성분이 들어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CJ제일제당의 남성건강기능식품 '전립소'는 국내 최초로 전립선 건강에 좋은 쏘팔메토와 라이코펜이 동시에 함유돼 있어 전립선 건강 유지는 물론 항산화를 통한 활력까지 얻을 수 있다.

전립선 건강을 위해선 생활 습관도 중요하다. 저녁 7시 이후에는 맥주나 음료수의 섭취를 줄여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이는 것을 습관화할 필요도 있다. 이뇨 작용 때문에 잠자리가 더 피로워진다. 이밖에도 매일 30분 이상 빠른 속도로 걷는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 등도 도움이 된다.

전민정 기자 puri21@



2009년 라이브수술 모습.

잡았다. 뇌혈관 내 수술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3000여 명의 치료 경험을 통해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최근엔 눈썹 위를 3~4cm 가량 절개해 수술하는 '최소침습수술법'과 뇌혈관 치료의 모든 기술이 총동원되어야 하는 '뇌혈관기형'에 있

어서도 괄목할만한 치료 성적을 보이고 있다.

국내 뇌졸중 치료의 메카로 인정받고 있는 이곳은 올해 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성기 뇌졸중 진료기관 평가'에서 3회 연속 최우수 1등급을 받기도 했다.

전민정 기자 puri21@

전문질환센터를 찾아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뇌졸중센터

머리뼈 절개않는 '뇌혈관 내 수술'

최대 규모인 12명의 전문의가 24시간 365일 응급진료팀을 운영, 이처럼 시각을 다루는 뇌졸중 치료에 큰 강점을 갖고 있다. 특히 최고 수준의 장비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20분 내 CT촬영을 실시, 한 시간 이내에 뇌졸중 정도의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다.

그러나 발병 후 최초 3시간 이내의 대응에 따라 생사는 물론 후유증을 대폭 줄일 수 있다. 허혈성 뇌졸중(뇌경색) 발생 초기 3시간을 일명 '골든 타임'(golden time)이라 부르는 이유다.

혈관이 막혀 발생하는 허혈성 뇌졸중의 경우 발생 3시간 이내 막힌 혈관을 뽑아주는 혈전용해제를 사용해야만 치료가 가능하다.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뇌졸중센터는 국내

단일 질환으로 사망률 1위인 뇌졸중! 발병 하면 심할 경우 생명을 잃게 되고, 살더라도 의식 장애나 언어 장애, 반신불수 등의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

그러나 발병 후 최초 3시간 이내의 대응에

따라 생사는 물론 후유증을 대폭 줄일 수 있다.

허혈성 뇌졸중(뇌경색) 발생 초기 3시간을 일

명 '골든 타임'(golden time)이라 부르는 이유다.

혈관이 막혀 발생하는 허혈성 뇌졸중의 경우

발생 3시간 이내 막힌 혈관을 뽑아주는 혈

전용해제를 사용해야만 치료가 가능하다.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뇌졸중센터는 국내

www.arlico.co.kr

인정성 시험을 거친 김증빈은 루테인 KBS GNC

억울하다! 외모는 한창인데 눈은 벌써 침침하다!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침침한 눈 때문에 10년만에 만난 동창생도 못 알아보셨군요? 눈의 노화가 시작되는 중년의 눈 건강 관리,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눈이 침침할 때
아이락 하세요!

EYE 樂 아이락
루테인 20mg

루테인은 눈의 중심시력을 담당하는 망막의 황반부에 다량 존재하여 황반의 기능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황반색소로 루테인이 감소하여 눈의 황반색소밀도가 줄어들면 눈의 기능이 나빠지거나 시력저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상담전화 080-585-0004

침침한 눈의 중년을 위한 대한민국 눈 건강 프로젝트 아이락

하루가 다르게 침침해지는 중년의 눈 건강을 위해 눈의 노화와 함께 감소하는 루테인부터 쟁겨주세요! 아이락은 나이 들수록 빠져나가는 루테인을 하루 한 알로 간편하게 보충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중년의 눈을 위한 건강한 습관,
아이락! 이런 분들에게 좋습니다!

- 눈의 노화로 눈이 침침할 때
- 아간 운전 시 ■ 장시간 렌즈 착용으로 건조할 때
- 컴퓨터 사용으로 눈이 피로할 때 ■ 눈 부실 때
- 아외 활동 시(자외선 노출)

■ 기꺼운 건강 기능 식품 코너에서 구입하세요!

■ 아이락 루테인은 타른색소를 사용하지 않고 천연 세소만을 사용합니다!



Arlico
알리코제약 | 주

우리 기획사 돈 별로 없어 그래도 힙합 의리로 뜰뜰

★**스타 산실 탐방** ■**부다 레코드**



DJ DOC

부다레코드는 대표적인 힙합 레이블이다. DJ DOC, 45RPM, 버스코, 레드릭, 라임버스 등 자유로운 스타일과 거침없이 솔직한 가사들을 노래하는 힙합크루들이 포진해있는 부다레코드 조병열 대표(46)를 만났다. 부다레코드는 2000년 DJ DOC 이하늘, 김창렬, 정재용으로부터 시작됐다.



라임버스

2002년도에 45RPM이, 2004년에 레드릭, 2005년 무렵에 버스코가 들어왔다. 모두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동했던 힙합멤버들이다. 이들은 전하게 지내는 연줄로 자연스럽게 부다사운드에 소속된 것이다.

조병열 대표는 “힙합크루(힙합을 좋아하는 집단을 칭하는 말) 이름이 부다사운드다. 그리고 이들 부다사운드가 차린 회사 정식 명칭이 부다레코드인 것이다”면서 “어떤 데드라인을 두고 멤버들을 받은 것은 아니다. 전한 뮤지션들끼리 하나의 레이블을 구성하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는 계약서도 없다”고 말했다.

어느덧 DJ DOC와 17년 째 함께 해오고 있는 조 대표는 “부다레코드는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큰 기획사는 아니다. 여력이 없다보니 경영의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좁은 힙합시장, 적은 수익으로 다음 앨범에 투자할 수 있었던 깊은 이하늘의 힘이 컸다고 했다.

이어 그는 “버스코, 45RPM 등의 앨범 작업비에 이하늘의



조병열 대표

힙합크루 ‘부다사운드’서 출발

DJ DOC·라임버스 등 소속사 이하늘 사비로 앨범 만들기도

래였지만 첫 방송을 한 뒤 좌절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 그 장면이 잘 잊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 후에 DJ DOC 후속곡은 ‘DOC와 춤’을 냈고 그 곡은 국민 히트곡으로 자리매김했다. 전문 엔터테인먼트는 아니지만 단단히 다져져 있는 의리가 부다레코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그는 힙합시장이 점점 작아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힙합음악이 나왔을 때 그것을 찾는 대중들이 없어지면서 현재 마니아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시대의 흐름이 그려다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욕심내지 않았다.

방송출연은 많이 하지 못하지만 그들의 무대는 힙합마니아가 모여드는 홍대 등에서 이어가고 있다고.

“돈 없어 땅에 앉아 땅에 앉아 땅에 앉아 땅에 앉아”

DJ DOC의 ‘머피의 법칙’가사의 일부다. 그들이 노래한 ‘머피의 법칙’의 노랫말처럼 돈, 명예, 따분한 음악보다 메츠를 들이대듯 날카로운 메시지를 제시하고, 하고 싶은 음악을 추구하는 힙합크루의 집합소. 부다레코드의 다음이 기대되는 이유다.

김현정 기자 khj@

새얼굴 투입 ‘나가수’ 새바람 분다

인순이·바비킴·윤민수 등 합류 뚜렷한 개성으로 인기 재점화

한동안 주춤했던 MBC ‘우리들의 일밤-나는 가수다’(이하 ‘나가수’)가 박정현, 김범수를 명예졸업생으로 졸업 시킨 후 다시 인기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나가수’는 최근 7회 경연 동안 생존 가수들이 명예롭게 떠나는 ‘명예 졸업’ 제도를 도입하고 새로운 가수들을 영입했다. ‘원년 멤버’ 김범수와 박정현이 명예 졸업에 성공했고, 윤도현(YB)은 마지막 경연에서 탈락자로 선정됐다. 김범수, 박정현, 윤도현이 빠진 자리에는 인순이와 바비킴, 윤민수(바이브) 등 3명의 가수가 새롭게 합류했다.

‘나가수’는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포맷

으로 높은 관심을 받는 듯 했지만 점점 그 관심이 떨어져 아쉬움을 남겼다. 시청률에 서도 동시간대 KBS 예능에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 21일 방송에서 펼친 고별무대와 새로운 가수들의 감명깊은 무대로 시청률도 소폭 상승했다. 일요예능에서 갈 길을 읊었던 ‘일밤’은 지난주 대비 3%포인트 상승하면서 SBS ‘일요일이 좋다’를 제쳤다.

‘나가수’의 활기를 듣는데 가장 큰 뜻을

한 가수는 바로 인순이. 평소 방송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지 않던 인순이는 자신의 노래 ‘아버지’를 열창하며 감동적인 무대를 선

선보였다. 이날 방송에서 인순이는 ‘왕의 귀환’으로 화제를 모았던 임재범에 버금가는 높은 지지율(27.7%)로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방송 출연이 뜻해 다소 얼굴이 낯선 윤민수는 바이브의 대표 히트곡 ‘그 남자 그 여자’와 ‘술이야’를 이어 불러 2위에 올랐고, 솔로곡과 드라마 OST로 인기몰이를 했던 바비킴은 ‘사랑.. 그 놈’으로 5위에 랭크됐다.

새롭게 합류한 가수들은 각자 뚜렷한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크다. 인순이는 그동안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

보이며 끊임없이 변신을 추구해 ‘나가수’에 가장 잘 어울린다는 평이다.

또 바비킴과 윤민수는 얼굴을 많이 알리지 않았지만 독특한 음색으로 다양한 연령대의 팬층을 설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가수들과 차별화 경합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22일 녹화가 진행된 6라운드 경연부터는 싱어송라이터 윤종신이 전문 MC로 등장했다. 음악적 감각 뿐 아니라 뛰어난 입담을 과시하는 윤종신이 어떤 진행 실력을 선보일지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한옥주 기자 gracebyok@



인순이

윤민수

바이크

ON AIR
러브 FM77.7MHz

100분 동안 77.7번 포복절도 하는 러브 FM77.7MHz! ❤

대학로 최고의 배우들이 뭉친 폭발적인 무대 에너지!!



강성



심은진



최대철



오주은



이정현



최대성



박명훈



박주희



서예화



윤석일



주성휘

뮤직페스티벌

나가수

Love OnAir!! Love Event!!

8월 공연 예매자에 한하여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Saint AUGUSTIN
ASIAN CUISINE

아시안 요리 전문점
“세이어거스틴” 식사권 20명

Italian Wine Bistro
Mano di Chef

이탈리안 요리 전문점
“마노 디셰프” 식사권 20명

LIVING NATURE KOREA
100% Natural. Uniquely New Zealand.

뉴질랜드산 100% 천연 화장품
“리빙네이처” 스크린케어 세트 20명

A. by BOM

Hair & Make up
“에어비이봄” 트리트먼트권 20명

아름다움을 완성하는 헤어 & 메이크업
“에어비이봄” 트리트먼트권 20명

연출 박윤호 / 각색 조윤경 / 음악감독 김동은 / 안무 천창훈
제작투자 | 미시간벤처캐피탈(주) 주관 | (주)즐거움의 숲 제작 | (주)두앤컴퍼니

2011.7.7 (목) - 2011.10.3 (월) 대학로 더굿씨어터

예매 : AUCTION 티켓 1566-1369 / Gmarket Ticket 1566-5701

화-금: 8시 | 토: 4시, 7시 | 일·공휴일: 3시, 6시 (월요일 공연없음)

Giftisnow

NEXTEP

LIVING NATURE KOREA

Max

Venqua

ORANGE:FACTORY



‘또 하나의 중요한 장비’

장갑속에 담긴 비밀

십에서 퍼팅수가 27.8개로 1위에 올랐다는 점이다. 평균 퍼팅은 PGA 투어에서 70위권이다.

양손장갑이 좋을까. 양손장갑이 게이니의 심볼마크가 되긴 했지만 프로골퍼들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게이니가 우상으로 여기는 프레드 커플스(61미국)를 비롯해 은퇴한 멕시코의 로레나 오초아, 로리 케인, 리 젠슨 등은 맨손으로 클럽을 잡는다. 커플스는 ‘고운다습한

원손 장갑도 가급적 얇은 것을 쓴다’면서 “장갑을 끼면 손과 그립의 일체감을 높여준다. 스윙시 회전축의 힘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 거리를 늘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골프장갑의 특징 부분이 심한 마모가 되거나 훼손되면 결국 잘못된 스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정상급 프로들은 1라운드에 2~3개의 새장갑을 사용하는 것이다.

골프장갑 전문가 황용훈 GMG골프대표는 “장갑은 굳은살이 박이거나 물집이 잡히는 것을 방지해 준다.

맨손보다 장갑을 착용하면 그립을 단단히 잡을 수 있고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해 스윙 도중에 클럽이 돌아가는 것을 막아 미스 샷을 줄이는데 유용하다”면서 “장갑은 약간 작다 싶을 정도로 손에 꽉 끼는 게 좋다.

안성찬 기자 golfahn@

손과 그립 일체감 높혀

비거리 향상 효과 있고

마모·훼손된 장갑은

잘못된 스윙 만들어

시애틀에서 자랐기 때문이라는 것이 맨손 그립인 이유다.

그러나 타이거 우즈(36미국)를 비롯해 세계골프랭킹 1위 루크 노널드(34잉글랜드) 등은 한손에만 장갑을 끼는다.

가죽 장갑은 맨손보다 접착성이 좋기 때문에 그립을 더 견고히 할 수 있어 샷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한국프로골프투어에서 7승을 거둔 조철상(53아담스골프)은 “오른 손 감각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른쪽은 장갑을 끼지 않는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이번 원팀챔피언



양손장갑의
토미 게이니

KJ골프, 남성전용 ‘VOL.7’ 시리즈 출시

골드·블랙 2가지 모델 내놔



KJ골프(대표이사 장선우, www.kjgolf.net)가 남성전용 라인 골프클럽 신제품 ‘VOL.7’ 시리즈를 출시해 골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011년 상반기 여성 전용 라인 골프클럽 히메(hime.공주) 시리즈를 선보여 돌풍을 일으킨 KJ골프가 이번에 내놓은 남성 신제품은 일본 최고의 장인이 디자인한 것으로 프리미엄급으로 제작됐다. VOL.7클럽은 골드와 블랙 2가지 모델이다. 풀세트 가

념의 이 클럽은 드라이버 1개, 페어웨이 우드 2개, 유털리티 1개, 아이언 7개, 예스퍼터 1개, 캐디백 세트로 구성됐다.

드라이버는 고반발의 티타늄소재, 헤드 크기는 460CC로 거리와 방향성에서 기존 제품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제품으로 헤드의 특수설계로 직진성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다.

우드는 3.5번으로 역시 방향성이 우수하다. 초중급자가 치기 쉽게끔 룸아이언 대신에 유털리티클럽을 보강했다.

샤프트는 카본소재와 경량스틸(N.S Pro950GH)을 장착해 골퍼가 선택할 수

있게끔 하고 있어 자신의 기량이나 체력에 맞춰 비거리를 더 낼 수 있도록 최적화했다. 또한 임팩트시 진동을 잡아주는 쇼크 에어로(SHOCK AERO) 실리콘 웨이트를 삽입해 정확성과 터치감을 향상시켜 완성도를 높인 클럽이다.

아이언 헤드는 오버사이즈로 누구나 쉽게 치도록 했다. 페어웨이는 스위트 스포트 에이리어를 최대한 넓혀 다소 벗어나도 거리와 정확성의 로스를 최대한 줄였다. 특히 헤드의 디자인이 미려하고 타구시 손맛이 뛰어나다는 것이 KJ족 설명이다.

모델은 블랙은 NS프로950경량 샤프트, 골드는 카본 샤프트 등 2종이다. 풀세트 구입 시 고급 항공커버를 무료로 제공한다. 02-808-0707

golfahn@

2011 New Product - Golf Sho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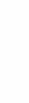
영국수입 피타드사 WR100 천연가죽 사용 / 한국인의 족형에 맞는 라스트 사용
4겹의 향균 천연가죽 수제 인솔(관절보호) / 잔디로 VPS 와이드 아웃솔



[골프화 2105-01] Golf Shoes / Price 232,000

2011 New Product - Walking Shoes

출퇴근시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발과 허리가 아프십니까? 잔디로 워킹화는 24시간 신고 걸어도 편안합니다.
장시간 걷거나, 서서 활동하시는 분, 조금만 걸어도 발이나 허리가 아프신 분, 여행 및 가벼운 산책을 즐기시는 분, 주말 나들이 및 행사로 외출이 많으신 분



[워킹화 2116-12] Hiker WR100 / Price 176,000

최급점 및 구입문의: 02)2690-9000 www.jandiro.com 세계 명품가죽 영국 피타드사 천연가죽 직수입, 우리 족형에 맞는 신발을 잔디로 서울 공장에서 직접 생산합니다.

■서울 강남점 02)6909-8800 목동점 02)2608-7400 보문점 02)928-9900 김포공항점 02)2662-9966 강서점 02)412-6501 ■경기·인천 포천송우리 031)544-9772 죽전점 031)276-1135 일산덕이점 031)922-4682 산본점 031)393-3258 이천점 031)635-5235 화정세이브 031)973-8834
안산로데오 031)416-7214 인덕원 031)424-5554 수원영통 031)202-2535 부천상동점 032)321-5447 부평아이즈빌 032)270-2525 인천검단 032)567-1066 ■강원도 원주점 033)763-9820 춘천석사점 033)264-1560 강릉죽현점 033)655-5020 ■대전·충청도 천안월드점 041)567-4691
대전세이브 042)484-9696 대전파션월드 042)472-5967 청주점 043)232-7519 청주분평점 043)291-3322 음성점 043)872-7090 천안중앙점 070)8836-8983 ■부산·대구·경상도 남산점 051)908-5989 송정점 051)908-5559 대구지더샵 053)581-5357 김천점 054)973-0801 포항해도점 054)284-0256
창원점 055)286-7887 ■광주·전라도·제주 무안남악 061)287-4884 순천SC점 061)746-1900 여수점 061)663-6777 광주금호점 062)371-1150 광주용봉점 062)511-0014 전주서신점 063)276-5000 송천점 063)255-0988 평화점 063)224-0723 전주세이브 070)4403-5077 신제주점 064)712-7335



최상호

조철상

KPGA 선수권 내일 티오프

국내 최초의 프로골프대회인 대신증권 제54회 KPGA 선수권대회(총상금 5억원 우승상금 1억원)이 25일부터 4일간 경기도 용인 아시아나CC 동코스(파72, 6,800야드)에서 열린다.

상금왕 2연패에 도전하고 있는 ‘공인 장타자’ 김대현(23.하이트)도 이번 대회를 계기로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강경남·최호성·박도규·홍순상 시즌 2승 도전 노장 최상호등 출전…녹슬지않은 기량 선봬

이지, 홍순상(30SK텔레콤) 등 4명의 올 시즌 코리안투어 우승자들이 출전해 시즌 2승을 놓고 접전을 벌인다.

이들 이외에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히는 선수는 우승없이 상금랭킹 2위의 박상현(28.양드래건골프)이다.

박상현은 올시즌 우승없이 3억1900만원의 상금을 획득해 3억6487만원을 획득하며 1위에 올라있는 김경태(25.신한금융그룹)에 4600만원 차로 뒤져 있다.

박상현의 강력한 라이벌인 홍순상 있다.

를 포함해 7회의 우승을 기록한 한장상이다.

그 뒤를 최상호가 6회, 최윤수가 3회 우승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외국인으로는 59년과 66년에 우승을 차지한 무디(미국)와 2008년 앤드류 맥켄지(호주)가 우승컵을 가져갔다. 2회 우승자는 이일안, 김승학, 임진한, 박

1958년 창설된 국내 최초 프로골프대회

프로만이 출전하는 이 대회는 국내 최초의 프로골프대회다.

지난 1958년 6월에 창설해 올 해까지 한해도 거르지 않고 치러졌다. 한장상, 김승학, 최상호, 박남진, 최경주, 신회 우승자는 이일안, 김승학, 임진한, 박

노석, 신용진, 김대섭등은 2회 정상에 올랐다.

연장전은 모두 5번 열려 77년 조대호, 91년 조철상, 99년 강육순, 2008년 앤드류 맥켄지(호주)가 우승컵을 가져갔다. 2회 우승자는 국내 프로골퍼 1호인 고(故) 연덕춘이며 최다승은 4연패(68-71년)

golfahn@